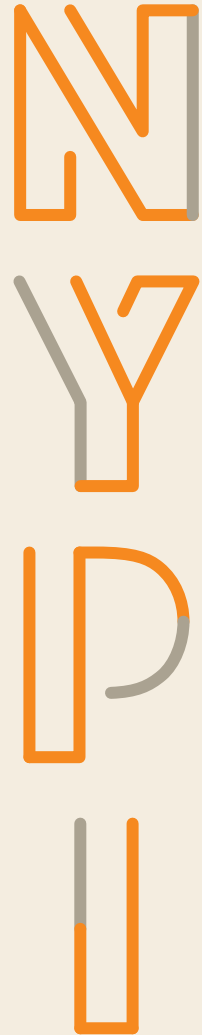


연구보고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김희진 백혜정



연구보고 20-R23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저 자 김희진, 백혜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 대상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운영모형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수와 변화 추이, 전국 시·도, 시·군·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분포 현황 및 주요 기능과 서비스 내용 등을 살펴 보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팀장급 종사자(또는 2년 이상 근무)와 10명의 시·도 및 시·군·구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현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현안,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꿈드림의 발전방향과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연계·발굴 체계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현장실무자 처우 개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력충원과 담당 사례 수 기준 마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산출 및 실적관리 방식 변경,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확대,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기관 구축 강화, 지역의 특성·현황을

고려한 센터 개편 및 종사자 수 조정 기준 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으로, 군 단위, 읍면지역에서의 거점센터 운영 방식,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에서의 특성화 꿈드림 운영 및 교차 이용 모형, 특·광역시 중심의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지원, 꿈드림 운영 모형, 거점센터, 특성화 센터,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현황 파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현장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규모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꿈드림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현황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 수와 변화 추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분포 현황과 주요 기능,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데이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과 지원 욕구를 분석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팀장급 종사자(또는 2년 이상 근무)를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함. 또한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 센터장 대상의 FGI를 통해, 센터 운영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전달체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함.
-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과 함께, 지역규모 및 전달체계를 고려한 기능 재배

분과 다양한 방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을 도출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현황 및 특징, 욕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교 밖 청소년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FGI 조사지 개발을 위해 전문가 서면 자문을 실시함.
-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친 조사지는 기관 IRB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202010-HR-수시-003), 웹조사에 활용되었음.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협조를 통해 총 218개의 꿈드림 센터 중 139개소의 꿈드림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FGI: 전국의 시·도센터장 5명, 시·군·구 센터장 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차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의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 꿈드림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데이터만 선별, 분석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 여성가족부와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운영모형(안)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침.

4. 주요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써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사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친구랑'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검토함.

-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 강화, 여러 관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개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입시 등 정보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2) 2차 자료 분석 결과

- 2018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의 80% 이상은 검정고시 지원을, 1/3 이상은 진로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았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음란물 시청 등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학교를 중단한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행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받는 경향이 더 두드러짐.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더라도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여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특히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취업 등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취·창업 병행 등과 관련한 계획을 더 선호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 멘토, 진학정보, 검정고시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진학정보와 검정고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함.

3)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 139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 3년 미만의 종사경력자는 36.7%, 3년 이상의 경력자는 63.3%였음. 설립주체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43개(30.9%), 법인 및 기타단체 설립이 96개소(69.1%)였고,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5시간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 센터들의 경우 국비는 99.3%, 지방비는 100.0%,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 재원은 21.6%가 받고 있었음. 국비·지방비를 같이 받고 있는 곳은 68.3%, 국비, 지방비,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받는 곳은 16.5%였음. 조사대상 센터 중 29.5%만이 독립된 전용공간이 있었고, 인근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이 대부분이었음.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는 학교·교육청 연계, 친구/선후배 소개 순이었음.
- 응답 기관 80.6%가 학습지원을 1순위로 제공하고 있었고,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이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구체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직접지원은 95.7%의 센터들이 수행하였고 전반적인 학습영역의 직접 지원율이 높았음. 직업체험/일자리 관련된 내용은 직접지원보다는 연계지원이 많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연계할 기관이나 작업장의 부족으로 나타남. 용돈지원,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센터 운영의 주요 애로사항은 종사자 처우였으며, 센터 내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역시 시급한 문제로 나타남. 이외에도 센터 간 서비스 질 격차에 대한 인식과 지역규모를 고려한 지원 내용의 차별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에서의 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최근 3년 간 꿈드림 이용 인원(실적), 지자체 지원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거점시설 설치기준으로 “시·도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2~4개 시·군·구 센터 통합 운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주요 역할로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과의 협력·연계”, “정부·지자체/민간 자원 연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주도적 역할,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매뉴얼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시·도센터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센터 대상 컨설팅과 시·도센터 및 시·군·구 센터의 고충 해결, 중앙부처(여성가족부)/중앙지원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꿈드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외부 민간 자원의 개발 및 연계 등이 주요 기능 및 역할로 조사됨.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의 역할/기능의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크게 현재의 가나다형 유형 구분의 재조정,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 센터별 특성화,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 센터 통합합 등의 의견들이 다수 제시됨.

(2)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센터장 총 10명(시·도센터장 5명, 시·군·구 센터장 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음.
- 도시와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률이나 센터의 접근성 등에서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구 센터와 시·도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 센터의 개소 수 및 종사자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른 기관과 공간을 공유할 경우 공간 사용 시 우선 순위가 밀리거나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위축되는 문제점을 보임.
- 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해 종사자들의 행정업무와 청소년 지원업무(사례관리)의 비율을 조율하고 일인당 담당 사례관리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관련 정책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함.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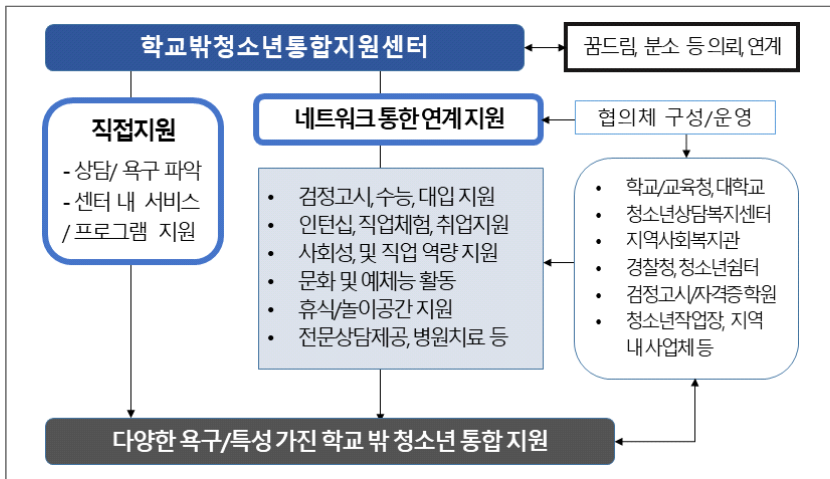
1) 정책제언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발굴 체계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 현장실무자 처우 개선
-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력충원과 담당 사례 수 기준 마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산출 및 실적관리 방식 변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확대
-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기관 구축 강화
- 지역의 특성·현황을 고려한 센터 개편 및 종사자 수 조정 기준 안 마련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수 및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거점센터 운영의 필요성, 센터의 전문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특성화 센터 운영,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충족 및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거점센터 운영 모형(안) 도출
-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개편) 고려 시 기준: 시·군·구 지역 내 학생(학교)

-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인원(실적),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 지역사회 특성 및 인프라 수준 등
- **거점센터 운영 방식(군 단위, 읍면지역):** 여성가족부↔중앙지원기관↔시·도 센터/‘거점센터’↔시·군·구센터 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개별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시·군·구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특별한 사업이나 연합사업 운영에 초점을 둔 권역별(예, 서부권역센터, 동부거점센터 등) 거점센터 설치
 - **특성화 꿈드림 운영 및 교차 이용 모형(대도시):** 개별 센터마다 모든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와 같이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차별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교차이용하게 하는 방식
 -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 모형(특·광역시):** 다양한 욕구·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가’형 센터나 인근의 3~5개 시·군·구센터 통합·운영



※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안)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주요내용 5
- 3. 연구 방법 6

II. 학교 밖 청소년 특징과 지원 체계 현황

- 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현황 11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19
- 3. 요약 및 시사점 42

III.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차 자료 분석

- 1.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실태 49
-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 및 꿈드림 이용 경험 63
- 3. 요약 및 시사점 87

IV.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 1. 설문조사 95
- 2. 초점집단인터뷰(FGI) 130
- 3. 요약 및 시사점 153

V.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161
- 2. 정책제언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164

참고문헌 179

부 록

-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191
- 2. 센터장 대상 FGI 조사지 197

표 목차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유형	12
표 II-2.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16
표 II-3.	학교 밖 청소년 규모	18
표 II-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19
표 II-5.	내일이룸학교 훈련과정 현황	22
표 II-6.	청소년특별지원사업	23
표 II-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	24
표 II-8.	청소년쉼터의 종류	27
표 II-9.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29
표 II-10.	‘친구랑’ 사업 내용(예시): 서울시 교육청	30
표 I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34
표 II-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	37
표 III-1.	응답자 기관	50
표 III-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사대상자 일반 현황	51
표 III-3.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시기	52
표 III-4.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	54
표 III-5.	최근 한 달간 하루에 많이 했던 일	56
표 III-6.	학업중단 후 비행 및 피해 경험	60
표 III-7.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63
표 III-8.	학업중단 후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65
표 III-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66
표 III-10.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1)	69
표 III-11.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2)	69
표 III-12.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3)	70
표 III-13.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4)	70
표 III-14.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5)	70
표 III-15.	진로성숙도	71

표 III-16.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74
표 III-17.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다중선택)	76
표 III-18.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다중응답분석)	78
표 III-19.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요구 (전체, 연령대별 차이) ...	80
표 III-20. 독립변수 측정방법	81
표 III-21. 복교안내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2
표 III-22. 학습멘토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3
표 III-23. 진학정보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3
표 III-24. 검정고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4
표 III-25. 진로탐색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5
표 III-26. 직업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6
표 III-27. 일자리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7
표 III-28. 지원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91
표 IV-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95
표 IV-2.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96
표 IV-3.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7
표 IV-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98
표 IV-5. 기관 운영 재원 (복수응답)	99
표 IV-6. 기관 운영 예산 재원 구성	99
표 IV-7. 공간 사용 현황	100
표 IV-8.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101
표 IV-9.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변인별 평균값 차이 ...	101
표 IV-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근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복수응답) ...	102
표 IV-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근 청소년이용시설 분포 현황 ...	102
표 IV-12.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	103
표 IV-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영역 순위	105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항목별 제공여부	106
표 IV-15. 미 지원 항목과 그 이유	109
표 IV-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애로사항, 긴급 해결사항 (복수응답)	111
표 IV-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인식	113
표 IV-1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센터 수/인프라 관련	114
표 IV-1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지자체, 지역사회 연계	116

표 IV-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서비스/프로그램 제공	117
표 IV-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들	119
표 IV-22.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 기준	120
표 IV-23.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주요 역할 (복수응답)	122
표 IV-24.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역할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123
표 IV-25. 중앙지원기관과 시·도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125
표 IV-26. 꿈드림 역할/기능 재분배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127
표 IV-27.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현황	131
표 IV-2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대상 FGI 주요 내용	131
표 V-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요약 표	161

그림 목차

그림 II-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26
그림 II-2. ‘친구랑’ 사업 소개	29
그림 II-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체계	32
그림 II-4.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추진체계	36
그림 II-5. 학교 밖 발굴·연계 체계	37
그림 II-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40
그림 IV-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복수응답 결과)	104
그림 IV-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인식	112
그림 IV-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재조정 위한 고려 항목	118
그림 IV-4. 거점시설 설치 기준 조사 결과	120
그림 IV-5. 거점시설 주요 역할(복수응답)	121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추가 사항	166
그림 V-2. 꿈드림 거점센터 운영 모형(안): 군 단위, 읍면지역 중심	172
그림 V-3. 꿈드림 특성화 운영 및 교차 이용 모형(안): 대도시	174
그림 V-4.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설치)·운영(안): 특·광역시	176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주요내용
-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4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 체계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하여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218개소²⁾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구체적으로는 시·도센터 16개, 시·군·구센터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센터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시·도센터는 센터 당 5명이며, 시·군·구 센터 중 ‘가’형은 4명, ‘나’형은 3명, ‘다’형은 2명씩으로 일괄 배치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823).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학업중단 학생 수나 청소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였다고 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여러 특성(낮은 기대수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폭력 피해 등)과 지원 욕구(검정고시·대입준비, 취업지원, 문화 활동 등), 각 지역적 특성(지역규모, 인프라 등)과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등을 더욱 고려할 필요성

1) 본 연구의 제1장 서론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전남 구례 꿈드림 센터가 개소 준비 중으로 이를 합하면 모두 219개소가 된다.

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결과들은 지역마다 꿈드림 이용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의 차이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개선의 필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간별 운영 방식 개선, 위탁기관의 다양화, 지자체의 투자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또한 지역규모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에서는(조아미, 임정아, 2018), 대도시의 경우 높은 일탈 위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현장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족과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에서는 취업연계 및 청소년관련시설의 부족과 실적위주의 평가 등에 따른 애로사항 지역규모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관련법 제정 이후 대폭적인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모든 시·도(16개 시·도센터 운영 중)와 대부분의 시·군·구(전국 233개 시·군·구에 200여개 기초 센터 운영 중)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는 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와 현장종사자의 경험에 대한 일부 질적 연구들만 수행되었고(예, 박승곤, 김수정, 2017; 정경희, 최정호, 202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지역의 현장종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규모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을 개발하였다.

2. 연구의 주요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특징과 지원 체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현황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 수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분포 현황 및 주요 기능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국 조사인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데이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데이터만 해당)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과 지원 욕구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3)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 및 결과 분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종사하는 팀장급 종사자(또는 2년 이상 근무)를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 센터장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꿈드림 운영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전달체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정책제언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제시

현장종사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규모 및 중앙 ↔ 시·도 ↔ 시·군·구 센터 간 전달체계를 고려한 기능 재배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자료조사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현황 및 특징, 욕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행정통계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학업중단 학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현장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조사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FGI 면접결과 분석에 대해서 질적자료 분석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3)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팀장급 종사자 또는 2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관 IRB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승인번호: 202010-HR-수시-003).

주요요소	설문조사
조사내용	센터 이용 청소년 및 센터 현황, 서비스/지원 내용, 센터운영에 대한 인식 등
조사대상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18개) 전수조사
조사대상 수	218개 센터 당 1명의 종사자 대상(총 139명 조사 완료)
조사시기	11월~12월 초
조사방식	웹/모바일 링크 전달, 조사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FGI조사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을 대상으로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다. COVID-19를 고려하여 충분한 방역조치과정(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주요요소	FGI
조사내용	서비스전달체계, 센터운영 현안 관련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조사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전국의 시·도, 시·군·구센터 임의 접촉하여 가능한 지역별로 골고루 섭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시·도/시·군·구 센터장
면담참여자 수	시·도/시·군·구센터 각 집단 5명으로 2개 집단으로 구성
조사시기	11월 중순
면담방식/시간	집단 인터뷰/ 1시간 30분씩 집단별로 1회 실시, 면담자료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대규모 양적조사(여성가족부의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의 데이터만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대, 학교중단기간, 지역규모 등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경험과 지원 욕구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 및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그리고 지원
욕구와 관련된 특성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의 계획 전반 뿐 아니라 현장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FGI 내용,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서의 쟁점, 향후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주무부
처와 논의하였다.

○ —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특징과 지원 체계 현황

- 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현황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 3.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학령기 청소년이 공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간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명칭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과 후로 달라졌기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중퇴생(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 2001; 황정옥, 2001), 중도탈락(구본용, 유재민, 2003; 오히경, 홍은주, 2005; 조아미, 2002), 중도탈락학생(유성경, 이소래, 1998), 학교중도탈락(김혜영, 2002), 학업중단(김범구, 조아미, 2013; 윤철경 외, 2013; 이경상, 조혜영, 2005; 전경숙, 2006) 등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어떤 이유로든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의미하였다. 이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명칭과 의미에 있어 공통점이 있으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3) 제2장은 김범구 소장(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이 집필하였고,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일부 추가·보완하였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제2조2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하고 있는 과업, 현재 상황, 향후 계획, 학업중단 경험 양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표 II-1).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유형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연구자
정착노력형(진학청소년, 건전직장 취업청소년, 취업준비 청소년) 비정착형(소년원 수용 청소년, 보호관찰 중 청소년, 요양중인 청소년, 방치된 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질환 청소년)	이숙영, 남상인(1997)
순수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	이경상, 조혜영(2005)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	김범구, 조아미(2013)
학업지속형, 학업복귀형, 직업형, 학업-직업 전환형, 비행경험형, 무업형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형, 진로직업형, 무업형	윤철경, 김승경(2019)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생활공간, 범죄경험 및 질병 유무에 따라 ‘정착노력형’과 ‘비정착형’으로 살펴보았다. ‘정착노력형’은 진학한 청소년, 건전한 직장에 입직한 청소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학교를 떠났지만 사회정착에 노력하는 유형을 포함하였다. ‘비정착형’은 비행·범죄·가출 등으로 인해 시설에 있는 청소년과 병원 치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

및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정상과 조혜영(2005)은 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계획에 따라 검정고시와 복교를 하고자 하는 ‘순수진학형’,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형’,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아르바이트형’,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김범구와 조아미(2013)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 하나의 계획이 아닌 다양한 계획을 선택하도록 한 후, 중복응답에 대한 조사결과를 잠재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미결정중심형’, 학력 및 취업준비를 고려하고 있는 ‘미래준비형’, 복학 및 검정고시와 같이 학업지속을 고려하고 있는 ‘진학준비형’으로 구분하였다.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과 김강호(2015)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후 경험한 패턴을 파악하여 상호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사례를 군집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화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지속형’,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이나 직업형으로 지내다가 학업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학업복귀형’, 입직을 원하는 ‘직업형’, 학업을 하다가 입직으로 전환한 ‘학업-직업 전환형’, 학업중단 이후 비행을 경험한 ‘비행경험형’, 학업중단 이후 학업 또는 직업의 경험을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간을 무업으로 보낸 ‘무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윤철경과 김승경(2019)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검정고시, 대학 입시, 집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인 ‘학업형’, 8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자격증과 취업시험 준비, 직업기술을 배우는 ‘진로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무업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구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대한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시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학교를 그만 둔 원인에 있어 청소년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충동조절능력 부족, 높은 공격성, 대인관계 기술 부족, 미래기대 수준이 낮음 등의 ‘개인 요인’(신현숙, 구본용, 2002; 이숙영, 남상인, 1997;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유진이 2009)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성취기대, 부적절한 양육태도,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구조적·기능적 결손, 가족의 학업중단의 ‘가정 요인’(고기홍, 2003; 배영태, 2003; 조아미, 2002; Dupper, 1993; Franklin, 1992), 불량친구와의 어울림, 또래관계 스트레스, 또래의 따돌림, 폭력피해 등의 ‘또래 요인’(김경식, 1997; 배영태, 2003; 이자영, 강석영, 이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공부가 싫음, 교사와 잘 지내지 못함, 학업에 대한 압박감, 낮은 학업성취 수준, 교사의 무관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학교 요인’(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배영태, 2003; 박창남, 도종수, 2003; 박혜진, 김정남, 2020; 윤혜순, 2019; 조아미, 2002), 노동시장에서의 유도, 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음악·영화·그림·만화 등을 위해 학업중단, 대안학교 입학의 ‘기타 요인’(김지혜, 안치민, 2006; 김현주, 박재연, 2019; 성윤숙, 2005; McNeal, 199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백혜정, 송미경, 2015; 이화명, 김영미, 2017),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2015, 2018)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동일한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우울과 무기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박혜진, 김정남, 2020; 백혜정, 송미경, 2015;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또한, 학업중단 이후에 흡연, 음주 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김승경, 2019).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과 소외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철경과 김승경(2019)은 검정고시 준비, 대학입시 공부, 집에서의 학습, 대안학교 재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학업형이 60.6%, 일을 하거나 자격증·취직시험을 준비하는 진로직업형이 24.3%,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무업형은 15.1%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황연경과 홍은영(2018)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검정고시, 무계획, 직업훈련, 복학 순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및 직업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실과 접하게 되고 가족, 상담자 등 지지자와 자신의 변화의지를 통해 학업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노동경험에 대해 조사한 김미옥과 조아미(2020)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에 맞닥뜨리고 끊임없이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노동의 과정 속 자신의 삶에 있어 변화의 주체는 자기임을 깨닫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노동의 가치를 통해 삶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결국, 학교 밖에서의 삶에서 다양한 지혜를 익히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세상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소연, 조진옥, 2016).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낙인감, 외로움, 학업, 취업준비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나,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래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학교 교육의 교육복지여건 개선, 학업중단 숙려제, Wee클래스 등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최근 5년 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비율)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2019년	52,261 (1.0%)	18,366	10,001	23,894	13,791	961	7,921	1,221
2018년	52,539 (0.9%)	17,797	9,764	24,978	14,677	915	8,052	1,334
2017년	50,057 (0.9%)	16,422	9,129	24,506	15,069	866	7,301	1,270
2016년	47,663 (0.8%)	14,998	8,924	23,741	14,924	753	6,807	1,257
2015년	47,070 (0.8%)	14,555	9,961	22,554	13,946	765	6,652	1,191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10월 21일 인출.

주: 비율은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47,070명(0.8%)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 2017년에는 50,057명(0.9%), 2019년에는 52,261명(1.0%)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중 특성

학교 학업중단율은 일반고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II-2).

매년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 밖으로 나온 이후 복교, 취업, 검정고시 합격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직접추정 방식과 간접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추정 방식은 모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 또는 집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정하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는 과소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송인덕, 조성겸, 2013).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 비행청소년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간접추정 방식은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알고자 하는 집단의 특징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나 자료가 없거나 불안정할 때, 다른 자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특정집단 인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하형석, 이종원, 이정민, 2019). 이에 따라, 하형석(2020)이 제시한 간접추정 방법 중 부분집합 방식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9년 244천명 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단위: 명)

구분	청소년인구(6-17세)		학생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주민등록 인구현황 ¹⁾	외국인 순입국 ²⁾	교육기본통계 ³⁾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B-C)	내국인 순출국 ⁴⁾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	B	C	D	E	D-E
2019	5,760,986	51,061	5,407,971	404,076	159,885	244,191
2018	5,911,831	46,401	5,542,543	415,789	163,793	251,996
2017	6,055,963	41,870	5,691,694	406,139	161,522	244,617
2016	6,221,904	35,790	5,849,197	408,497	161,803	246,694
2015	6,445,006	30,699	6,061,868	413,837	161,337	252,500

* 출처: 하형석(2020).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 주: 1) 전년 12월 31일 기준
 2) 전년 12월 기준
 3) 4월 1일 기준 학생 수, 연령은 전년 12월 31일 기준
 4) 전년 12월 기준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국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을 부처별로 살펴보았다(표 II-4).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내일이룸학교를 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도교육청의 ‘친구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표 II-4).

표 II-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구분	사업명	주요대상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	■ 직업훈련(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 헤어미용, 커피전문가, 애견미용사 등) ■ 특화프로그램(인성·교양,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위기 청소년	■ 현금급여 지원 및 서비스 지원(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법률·의료지원 등
	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	■ 청소년 현장에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위기 청소년	■ 청소년 발굴, 개입,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기관 발굴·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구분	사업명	주요대상	주요내용
	청소년쉼터	가출 청소년	■ 가출청소년 조기발굴, 위기예방, 생활보호, 정서지 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교육부 ^{주)}	의무교육단계 미 취학·학업중단학 생 학습지원	학교 밖 청소년	■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상태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습 경험 및 학력 인정 사업
	친구랑 (시·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 학업중단 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돌봄 공간 설치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약계층 청소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통한 진로·경로 설정, 집단상담·직업훈련·일 경험 지원, 집중 취업 알선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 중견 기업취업 청소년	■ 청년 공제금 적립 시, 정부 취업지원금 및 기업의 정부지원금 매칭을 통한 성과보상금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work.go.kr>(검색일: 2020. 11. 14)
 교육부 홈페이지 '친구랑'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3603>,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
원'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70297> (검색일: 2020. 12. 2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검색일: 2020. 10. 21)
 Wee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검색일: 2020. 11. 0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검색일: 2020. 11. 16)

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 학업중단숙려제, 그리고 학령인정이 되는 공교육 범위의 대안학교
 등이 아닌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 대상의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만 포함하였음.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3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다 확충하였다(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11. 28; 여성
 가족부, 2020). 2015년에는 범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학업중단 사전예방,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의료·보호·복지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의 5대 중

점과제와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부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5. 12). 이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내일이름학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15년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2020. 11. 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시·군·구로 확대·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여성가족부, 2019. 01. 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내용 등의 관련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나. 내일이름학교

내일이름학교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1개월의 기간 동안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곳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1. 15). 2011년 취업사관학교로 시작한 이후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일이름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1. 15).

내일이룸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앙운영기관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학교, 직업훈련과 특화프로그램, 취업지원 과정이 운영된다(여성가족부, 2020. 11. 04). 예비학교에서는 직업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와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과정을,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기계가공, 네일 미용, 바리스타, 조리사, 드론 운용 등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함께 인성교양,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및 특기적성 개발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료 이후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11. 04). 2020년 11월 현재 17개 직업훈련 과정이 운영 중이며 이는 표 II-5와 같다(여성가족부, 2020. 11. 04).

표 II-5. 내일이룸학교 훈련과정 현황

지역	훈련과정	인원	특화
서울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	19명	
	파이썬을 응용한 스마트 마케팅 실무자 양성 과정	16명	
	플라워 디자이너 및 상품기획자 과정	16명	한부모
	스마트 스포츠 현장매니저 양성 과정	16명	
인천	기계가공 조립 전문가 과정	24명	
	네일미용사 과정	16명	
	애견미용사 및 펫헬퍼 과정	17명	
경기	커피 바리스타 및 제과 기능사 과정	16명	
부산	조리사 과정	13명	
	커피 전문가 과정	20명	
대구	드론운용 전문가 과정	12명	
대전	로봇코딩 지도자 과정	12명	
광주	조리 실무사	20명	
경북	웹 편집디자이너 과정	12명	
경남	헤어미용사 과정	15명	
충남	헤어미용사 과정	14명	
전북	헤어미용사 과정	16명	
계	17개 과정	274명	

* 출처: 여성가족부(2020, 11. 4).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모집」

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초·중·고·대·특·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를 살펴보면, 비행 및 일탈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건강지원·학업지원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표 II-6).

표 II-6.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지원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 월 50만원 이내
건강 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 연 200만원
학업 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36만원 이내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연 350만원 이내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 월 25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별도)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및 서비스	■ 월 10만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이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참조하여 규모 결정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p.763-764.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17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해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II-7).

표 II-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

주요기능	지역 특성화 사업(예시)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할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비행영역: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 후기청소년 영역: 군장병, 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 지원 ■ 진로·인성영역: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 ■ 계층, 지역특성 영역: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 ■ 정책사업 영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350.

마.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는 위기청소년이 있는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시설 퇴소 후 가정복귀 청소년, 학교 및 경찰·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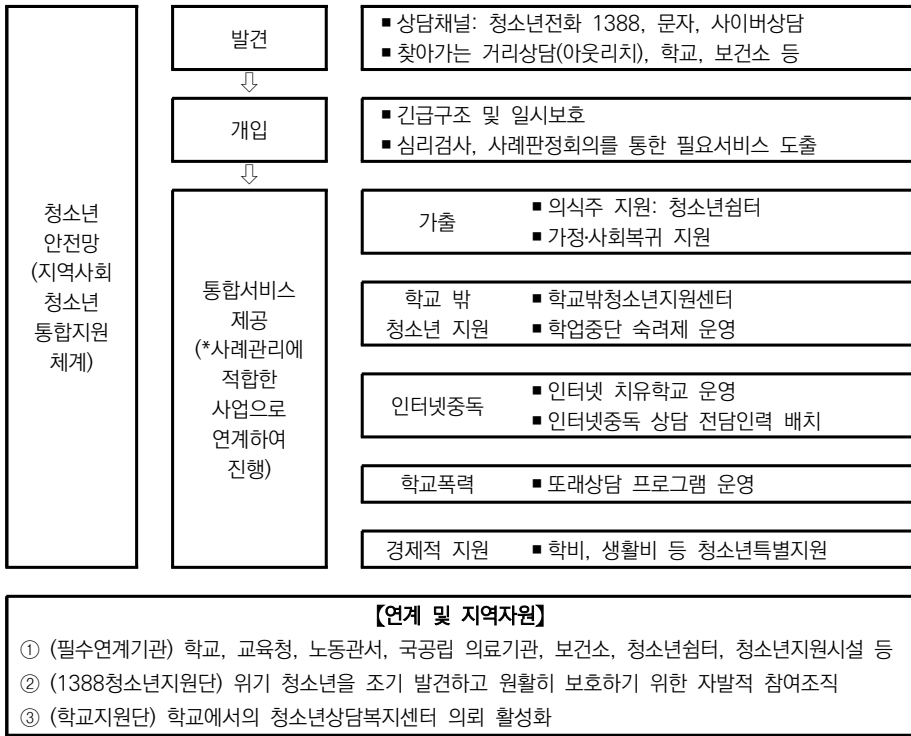
등 사법기관 의뢰 청소년, 소년법 보호처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문제해결, 맞춤형 지원 강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복지와 상담 분야에서 일정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들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황미숙, 최정숙, 2020).

청소년동반자는 전일제동반자와 시간제동반자로 자격기준, 근무시간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분기당 전일제동반자는 12개 사례 이상, 시간제동반자는 6개 사례 이상 기준으로 사례를 담당하며, 위기청소년의 특성 상 자발적인 방문보다는 청소년을 찾아가는 형태의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2005년 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 후 2008년 16개 시·도로 확대되어 4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 1,313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여성가족부, 2020). 2005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시작한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은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의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안전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여성가족부, 2019. 09. 26), 청소년안전망 운영체계는 그림 II-1과 같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구성 기관(1차 연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0).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398

그림 II-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 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20).

가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 시설로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건강, 학습 및 자립 등을 지원하면서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이성진, 김경미, 2020). 청소년쉼터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138개 청소년쉼터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표 II-8과 같다(여성가족부, 2020). 2019년 기준 가출청소년 규모는 연간 약 1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연인원 32,402명으로 전체 가출청소년 중 약 27%가 쉼터를 이용하였다(매일경제, 2020. 10. 27).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쉼터유형별로 가출청소년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일시이동은 18.1%, 일시고정은 51.6%, 단기는 36.5%, 중장기는 24.7%로 보고되었다(조규필, 김범구, 김기남, 김민찬, 이건, 2019).

표 II-8.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 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 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 인 서비스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470

(2) 교육부

교육부는 먼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2013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수립하고(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11. 28), 이에 따라 Wee프로젝트, 학업중단숙려제와 대안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을 보호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친구랑’ 사업과 2017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2017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교육청을 시범으로 시작하여(교육부 보도자료, 2017. 1. 24.), 현재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 제외).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을 이유로 학교복귀를 하지 못한 만 24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 및 학력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학력인정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방송통신 중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국가기술/전문/공인민간자격증, 문해 교육, 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각종학교, 내일이룸학교, 산업체 실습/훈련과정 등이 포함되며,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학력인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한국교육개발원 운영)를 통해서도 교육프로그램과 학습경험을 안내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과정과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 첫 해는 42명 지원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242명, 2019년에는 662명 지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표 II-9). 이는 투입 예산의 증액으로 가능

4) 미취학·학업중단 학습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ducerti.or.kr/main.do>에서 내용 발췌, 정리(2020.12.29. 인출)

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10억 예산이 지원되었으나(집행액은 631백만원), 2019년에는 18억으로 증액되었다(표 II-9).

표 II-9.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지원인원	42	242	662
예산액	1,000	1,000	1,800
집행액	631	831	1,673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p.5 발췌

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학업중단 학생을 보호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친구랑’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서울, 대구, 강원도에 ‘친구랑’ 1, 2, 3호점을 설치,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05. 28.).



그림 II-2. ‘친구랑’ 사업 소개

그림 II-2에서 보듯이 ‘친구랑’은 <현장형 Wee센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하면서 돌봄 및 상담,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카페와 같은 공간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05. 28)으로 센터장외에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멘토 및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학업복귀를 위한 동기부여 뿐 아니라 검정고시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05. 28). 서울시 교육청의 ‘친구랑’ 사업 예시에서 보듯이(표 II-10), 학력인정 및 기초학습 멘토링을 포함한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10. ‘친구랑’ 사업 내용(예시): 서울시 교육청

사업영역	분야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5개소(관악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위치)	교육지원	학력인정
		검정고시 지원
		기초학습멘토링
	진로지원	진로체험활동
		기관연계지원
	정서지원	청소년 대상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건강지원	연계지원

* 출처: 강명숙, 황지원(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성과분석, 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세미나 자료집. p. 58 발췌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사업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친구랑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에 참여(각종 프로그램에 2개월 이상 주 2일 출석 및 70%이상의 출석율 기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강명숙, 황지원, 2019: 62).

(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성인이 아닌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인 청소년이라는 발달 특성 상,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 지원 보다는 취약계층, 청년대상 사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가. 취업성공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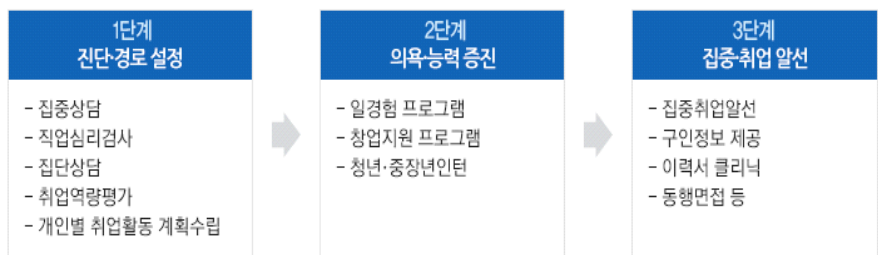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1년 기간 내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최석현, 남승연, 2020).

취업성공패키지 I 과 II에 따라 대상 및 참여수당이 상이한데,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I은 만18세에서 만69세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 또한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참여 시에 최대 참여수당이 2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취업성공패키지II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대상 사업과 중·장년층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만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 대상 지원사업은 대졸 이상 미취업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등과 함께 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이 포함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서비스는 그림 II-3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연계되는데, 먼저, 진로 및 경로를 설정하는 1개월 과정의 1단계에서는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최석현, 남승연, 2020). 2단계는 의욕·능력증진 단계이며 취업성공패키지의 핵심과정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과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역량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월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3단계는 집중 취업 알선 단계로 3개월 기간 동안 지원대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지원하게 되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취업성공패키지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이고 이 중 취업자 수는 11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2020년 11월 14일 인출.

그림 II-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체계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가입유형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김유빈, 2020). 이 정책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인 청소년은 제외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2019년 9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98,675명 중 고졸이하 대상은 22.5%인 22,238명이 참여하였다(김유빈, 2020).

가입유형으로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 간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에서 정부지원금 400만원이 지원되는 형태로 청년은 1,6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이 나오게 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3년형은 본인이 3년 간 매월 16만 5천씩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에서 정부지원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됨으로써 3,000만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11. 14).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교육부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기타 다른 정책의 경우 위기청소년, 위기학생, 취약계층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된 정도였다. 이는,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연계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취업 등의 사회진입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협력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상담·직업·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설립 근거 및 역사,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설립근거 및 연혁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세부연혁은 표 II-11과 같다. 이 사업의 모태는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동기 강화, 기초적인 자립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과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지원한 해밀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표 I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2013. 11)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5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6	■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6. 6. 14)
2017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 전국 206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유공간 9개소 추가 설치(전체 52개소 설치) ■ 「2018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9	■ 전국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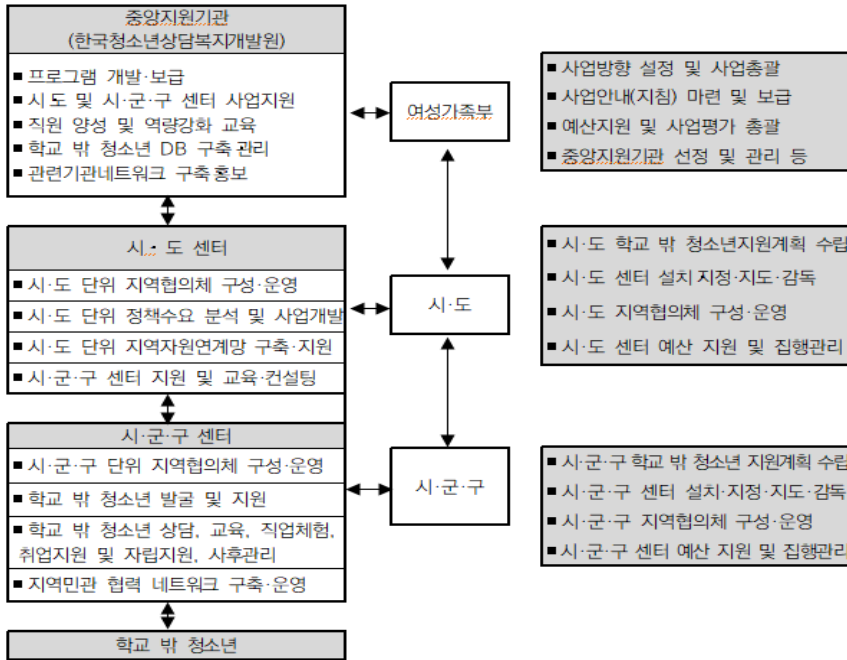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p.184

2014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이어서 전국 199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지정·설치 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2018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을 하는 자유공간이 9개소가 확충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국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여성가족부, 2020).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운영체계는 그림 II-4와 같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와 예산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 사업을 지원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용청소년의 DB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II-4).

시·도센터의 경우 시·군·구 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허브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도 단위의 지역협의체 구성·운영과 정책수요 분석 및 사업개발, 지역자원연계망 구축 및 시·군·구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시·군·구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군·구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822

그림 II-4.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 중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며,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별 담당자 지정 및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한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민간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밀집시간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과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한다(그림 II-5 참조).



*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p.186

그림 II-5. 학교 밖 발굴연계 체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2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II-12와 같다(여성가족부, 2020. 10. 21). 17개 시·도 중 세종시에는 시·군·구센터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된 관계로 16개 시·도센터와 202개 시·군·구센터에 꿈드림이 운영 중이다(표 II-12). 시·도센터 종사자는 5명, 시·군·구센터는 ‘가’, ‘나’, ‘다’ 유형에 따라 종사자들의 배치인원이 상이한데, ‘가’형은 4명, ‘나’형은 3명, ‘다’형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표 II-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14	26	16	9	9	6	3	5	1	31	11	13	16	10	19	15	21	3
시·도센터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센터	208	25	15	8	8	5	2	4	1	30	12	13	16	10	21	15	21	2

*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0년 10월 21일 인출.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굴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실태가 확인된 청소년,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청소년, 실태가 확인되었지만 지원을 거부하는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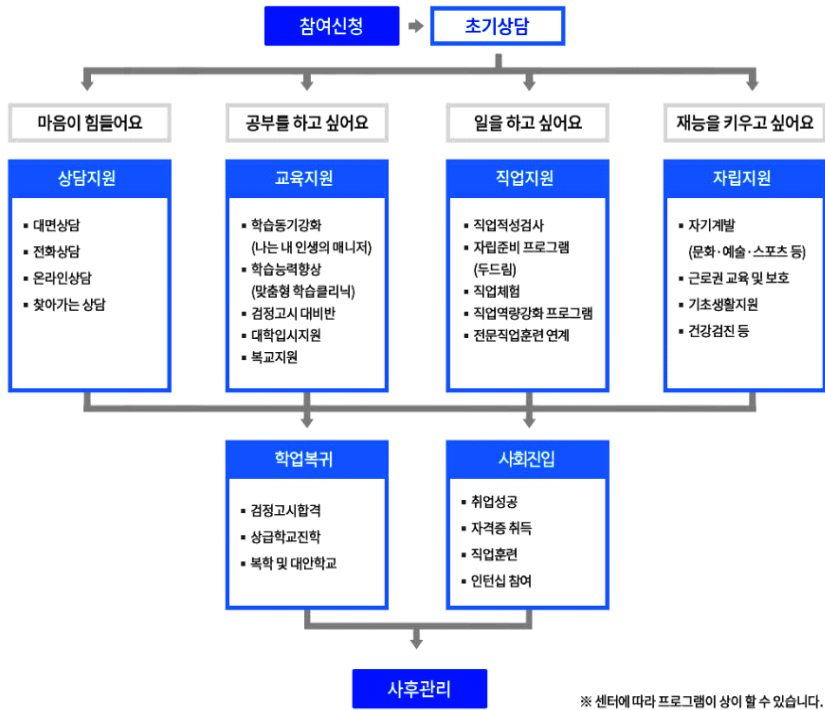
첫째, 교육청, 경찰서 등을 통해 확인된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에는 각 기관의 '온라인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함께 교육청·학교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둘째,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시·도 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법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는 전달되었으나 지원 받기를 거부하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다(여성가족부, 2020).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운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참여를 신청하게 되면 초기 상담 과정을 거쳐 상담, 교육, 직업,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여성가족부,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에 따른 선입견, 부정적인 시선,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 및 진로문제,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0).

교육지원은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의 학업동기와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을 연계한다(여성가족부, 2020). 대학입시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진학관련 정보제공,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대학캠퍼스 투어 등을 통해 대학입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등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절차를 안내한다(여성가족부, 2020). 직업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적성을 탐색하기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자립준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봉사 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청소년특별 지원 연계와 매 3년마다 건강에 대한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진로·탐색·직업교육 등 관련활동 및 또래소통 공간의 확보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그림 II-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이러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김수연, 2017; 명소연, 조진옥, 2016; 정경희, 최정호, 2020; 조혜영, 김영란, 2018)에서 보고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소속감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안, 소외감, 낙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명소연, 조진옥, 2016).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부정적 선입견으로 꿈드림 이용에 다소 망설였던 청소년들도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편안함과 따뜻한 환영으로 호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심리적 지지와 진로관련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조혜영, 김영란, 201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부재했던 소속감을 채울 수 있었고, 학교 밖에서의 낙인과 미래의 불안에 대한 상담자의 지지, 실질적인 물질·인적자원의 지원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 자기효능감 증진, 대인관계 개선 및 소속감 획득에 도움이 되었다(김수연, 2017; 명소연, 조진옥, 2016; 정경희, 최정호, 2020).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학업 지속을 위한 학원 연계와 검정고시 준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멘토와의 연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명소연, 조진옥, 2016).

2019년에는 5만명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1만 1천 3백여 명, 대학진학은 89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 26%가 증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이 직업훈련, 자격취득,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9. 12. 17). 이와 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따뜻한 관심, 자신감 회복 등의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진로탐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계, 사회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명칭과 정의가 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명확해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강화되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학업중단 이후 주변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등을 경험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소외감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주요대상은 아니지만, 사업대상에 일부 포함되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지역사회청소년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쉼터 등의 정책들이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친구랑’ 사업을 수행,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 218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 초기상담, 유형에 따른 상담·교육·직업·자립지원을 통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돕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구체화되고 다양화

되었다.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법무처 차원의 5대 중점 추진과제와 18개 세부 추진과제(여성가족부, 2015. 05. 12)가 도출되면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상담·교육·직업·자립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발굴에 있어서도 각 학교 현장에서 학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99개 소였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19년에는 214개, 2020년 10월 기준 218개가 설치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예산측면을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확충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227억원으로 전년 190억 대비 19.5%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12. 17).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통합지원체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정책적 연계 확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동일한 청소년 시기라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소속감의 경험하고, 심리적 지지, 학업 및 취업준비 지원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정경희, 최정호, 2020; 조혜영, 김영란, 2018).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

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을 살펴보면 2015년 0.8%, 2017년 0.9%, 2019년에는 1.0%로 증가하고 있고(교육통계서비스, 2020. 10. 2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은 244천명으로 추정된다(하형석, 2020).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지역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다(인천일보, 2020. 11. 18).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통한 정책적 참여 유도, 사회적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의 통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분절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부처의 주요특성과 기능이 상이하다고 하지만, 학교 안과 학교 밖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취업을 위한 지원,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있어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만의 수행업무인 것처럼 과도하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이지만, 타 부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에 있어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의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학업복귀는 정규 학교 복학, 상급학교 진학,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진학,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 학교 재적응, 대학진학 등이 성과이며, 사회진입은 취업, 직업훈련 과정, 인턴십,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에 대한 성과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까지 도출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조그마한 자극에도 백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준비에 있어 과정상의 평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박승곤, 김수정, 2017).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학교생활을 힘들게 정리하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응유연성, 사회적 인식, 심리적 안정감 등 심리·정서적 변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정도 등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에 포함하는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다각적인 평가 방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윤철경, 김승경, 2019), 이에 대한 진로 및 입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정경희, 최정호,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대학별 입시·진학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가 이 업무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 준비 및 입시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차 자료 분석

- 1.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실태
-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
및 꿈드림 이용 경험
- 3.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실태

본 장에서는 2018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서⁶⁾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경제 상태, 진로, 지원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과 관련한 문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⁷⁾.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추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2018년의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7개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

5) 제3장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가 집필하였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20. 11. 3. 인출

7)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020. 11. 3. 인출

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동쉼터, 미인가대안학교)을 중심으로 표본이 추출되었고⁸⁾,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원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윤철경 외, 2019). 기관별 응답자 현황은 아래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Ⅲ-1. 응답자 기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2,522	10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00	59.5
단기쉼터	39	1.5
이동쉼터	68	2.7
소년원	75	3.0
보호관찰소	424	16.8
미인가대안학교	396	15.7
내일이룸학교	20	0.8

본 장에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수집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청소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57.3%로 남자 청소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6세~18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3~15세 청소년들이 16.4%를 차지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청소년들의 89%는 13세~18세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 기간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8) 조사 대상 기관에는 검정고시 접수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관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이 아닌 출구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중단 시점에서의 학교 성적은 “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정 경제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중단 학교의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 대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 읍면리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지역 규모에 따라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표 III-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사대상자 일반 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1,500	100
성별	남자	641	42.7
	여자	859	57.3
연령대	만9세~12세	23	1.5
	만13세~15세	246	16.4
	만16세~18세	1,089	72.6
	만19세 이상	142	9.5
학교 중단기간	0~6개월 미만	295	19.7
	6개월 이상~1년 미만	319	21.3
	1년 이상~2년 미만	391	26.1
	2년 이상	494	32.9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	상	360	24.0
	중	404	27.0
	하	736	49.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2	6.8
	중	1,168	77.8
	하	231	15.4
학업중단학교 지역규모 ^{주)}	대도시	510	34.0
	중소도시	799	53.3
	읍면리	183	12.2

주: 결측값(8명)을 제외한 관계로 전체 응답자 수는 1,492명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및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시기를 살펴보면(표 III-3),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모두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각각 64.2%, 68.1%로 약 2/3 정도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각각 27.0%, 25.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학교를 그만둔 시기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그만둔 학교 소재 지역 규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시기의 분포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가 각각 67.9%, 68.1%, 58.0%로 다른 시기에 비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만 둔 학교가 읍면리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31.5%인 것에 비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7.6%와 23.2%인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시기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체	χ^2
성별	남자	8.8	27.0	64.2	100.0(637)	3.965 (df=2)
	여자	6.4	25.4	68.1	100.0(857)	
지역규모	대도시	4.5	27.6	67.9	100.0(508)	16.931** (df=4)
	중소도시	8.7	23.2	68.1	100.0(796)	
	읍면리	10.5	31.5	58.0	100.0(181)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경험을 살펴보면(표 III-3), 우선 대안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19.4%인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13.5%가 대안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20%를 초과하지 않아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대안학교 경험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의 순으로 대안학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대안학교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의 78.9%가 검정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83.9%가 검정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험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만둔 학교의 지역 규모에 따른 검정고시 공부 경험의 비율은 20% 내외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 복교 경험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그만둔 학교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모두 복교 경험은 5% 미만이었으며, 지역규모의 경우에도 모두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 가운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들의 약 절반 정도는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0.3%, 여자 청소년들은 53.3%가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별 진로상담 경험은 각각 52.5%, 52.1%, 50.5%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대상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이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수준만이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은 향후 진로상담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의 경우 성별이나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약 30% 정도의 청소년들이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

단위: %(명)

구 분 (경험여부)		성별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전체
대한학교	있다	19.4	13.5	16.0	16.9	15.9	14.3	16.0(239)
	없다	80.6	86.5	84.0	83.1	84.1	85.7	84.0(1251)
	χ^2	9.400** (df=1)			.705 (df=2)			
검정고시 공부	있다	78.9	83.9	81.8	83.1	81.6	79.1	81.8(1218)
	없다	21.1	16.1	18.2	16.9	18.4	20.9	18.2(271)
	χ^2	6.299* (df=1)			1.485 (df=2)			
정규학교 복교	있다	4.1	3.7	3.9	4.3	3.9	2.7	3.9(58)
	없다	95.9	96.3	96.1	95.7	96.1	97.3	96.1(1433)
	χ^2	.112 (df=1)			.881 (df=2)			
진로상담	있다	50.3	53.3	52.0	52.5	52.1	50.5	52.0(776)
	없다	49.7	46.7	48.0	47.5	47.9	49.5	48.0(715)
	χ^2	1.327 (df=1)			.215 (df=2)			
직업기술을 배움	있다	27.5	30.5	29.2	31.8	27.4	31.5	29.4(438)
	없다	72.5	69.5	70.8	68.2	72.6	68.5	70.6(1052)
	χ^2	1.633 (df=1)			3.281 (df=2)			
심리상담· 정신과치료	있다	28.1	37.1	33.3	34.6	35.5	21.5	33.5(499)
	없다	71.9	62.9	66.7	65.4	64.5	78.5	66.5(991)
	χ^2	13.595*** (df=1)			13.312** (df=2)			
질병으로 입원경험	있다	17.5	18.3	17.9	19.0	17.8	16.5	18.0(269)
	없다	82.5	81.7	82.1	81.0	82.2	83.5	82.0(1222)
	χ^2	.150 (df=1)			.668 (df=2)			

* $p<.05$, ** $p<.01$, *** $p<.00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성별이나 지역규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 가운데 28.1%가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37.1%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6%와 35.5%인데 비해 읍면리의 경우에는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리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 혹은 관련 시설에의 낮은 접근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경험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았고, 지역 규모의 경우 대도시로 갈수록 입원 경험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두 가지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동안 하루에 했던 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III-5), 응답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및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다른 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스마트폰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23.7%)에 이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활동은 컴퓨터를 했다는 응답이 19.7%였으며, 돈벌이를 했다는 응답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취미생활(8.7%), 공부나 독서(6.7%), TV시청(6.7%)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26.5%)에 이어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돈벌이(12.2%), 공부나 독서(10.7%)인데 비해 남자 청소년들에게 높게 나타났던 컴퓨터 이용은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원이 9.8%, 취미생활이 7.7%로 남자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최근 한 달간 하루에 많이 했던 일

단위: %(명)

구 분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16세 미만	16세 이상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TV 시청	6.7	4.9	6.7	5.4	5.8	3.1	4.6	8.3	5.5	5.5	7.1
휴대폰/스마트폰	23.7	26.5	31.0	24.1	30.5	28.0	23.3	22.1	28.1	23.7	23.6
컴퓨터	19.7	6.5	9.3	12.7	13.2	8.7	11.5	14.0	10.7	13.1	12.1
집안일	1.1	2.1	1.5	1.8	.7	.6	2.1	2.4	1.0	1.6	3.8
돈벌이	10.8	12.2	2.2	13.7	6.4	13.4	11.0	14.0	10.9	11.5	14.3
학원	4.4	9.8	7.5	7.4	7.5	9.9	7.4	5.9	9.2	6.9	4.4
친구들과 방향	4.7	3.5	4.5	3.9	4.4	3.1	4.9	3.6	4.5	4.1	2.2
친구들과 음주	2.8	1.4	.4	2.4	1.7	1.6	2.6	2.2	2.0	2.1	2.2
취미생활	8.7	7.7	9.7	7.8	10.8	7.8	7.9	6.7	8.0	8.4	7.7
공부, 독서	6.7	10.7	12.3	8.3	8.5	9.0	9.2	9.1	8.0	9.3	9.9
관심 분야 모임 참여	1.1	2.0	.4	1.9	2.0	1.6	2.1	1.0	2.5	1.3	.5
지역사회 기관 실시 프로그램 참여	1.9	3.6	2.2	3.0	2.0	3.4	3.6	2.4	3.1	2.8	3.3
종교 생활	2.2	.8	3.0	1.1	.7	1.2	1.8	1.6	.2	2.1	1.1
집에서 취침·하는 일 없음	3.6	5.2	4.1	4.6	3.7	5.6	6.2	3.2	3.5	5.3	4.4
기타	2.0	3.0	5.2	2.0	2.0	3.1	1.8	3.4	2.7	12.4	3.3
χ^2	98.874*** (df=14)		59.462*** (df=14)		63.463* (df=42)				36.634 (df=28)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16세 미만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31.0%)에 이어 가장 많이 한 활동이 공부나 독서(12.3%), 취미생활(9.7%), 컴퓨터(9.3%), 학원(7.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한 일로 스마트폰 이용(24.1%)에 이어 돈벌이(13.7%), 컴퓨터(12.7%), 공부나 독서

(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를 중단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30.5%), 컴퓨터 이용(13.2%), 취미생활(10.8%), 공부나 독서(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단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28.0%)에 이어 돈벌이(13.4%)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9.9%), 공부나 독서(9.0%), 컴퓨터(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스마트폰 이용(23.3%), 컴퓨터(11.5%), 돈벌이(11.0%), 공부나 독서(9.2%) 순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22.1%), 컴퓨터(14.0%), 돈벌이(14.0%), 공부나 독서(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어섬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돈벌이를 하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며, 컴퓨터와 공부나 독서 등이 공통적으로 다른 활동들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6은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및 피해 경험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흡연의 경우 여자 청소년(33.9%)보다는 남자 청소년(48.4%)들의 흡연 경험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약 2명 중 1명 정도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 정도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미만의 경우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4%인데 비해 16세 이상의 경우에는 4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중단 기간이 길수록 흡연 경험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규모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의 경우도 흡연 경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음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음주 경험 비율도 높았다. 다만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나 읍면리의 청소년들에게서 음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음주 경험은 61.4%, 여자 청소년들은 52.4%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경우 62.7%가 음주 경험이 있었다. 학교 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60.7%, 그만둔 학교가 읍면리에 소재하는 경우 60.1%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시청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도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더 높으며, 그 차이는 약 31.8%p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집단의 음란물 시청 경험이 16세 미만 집단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학교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음란물 시청 경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만둔 학교의 지역규모가 대도시로 갈수록 음란물 시청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남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그만둔 학교가 위치한 지역규모가 클수록 음란물 시청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남학생은 9.6%, 여학생은 17.4%로 조사되었으며, 자살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조사된 학생은 3.1%로 보고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이에 비해 본 분석 결과에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은 27.6%, 여자 청소년은 37.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 시도 경험도 남자 청소년은 11.2%, 여자 청소년은 15.0%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6세 이상의 경우가 16세 미만의 경우보다 자살생각을 한 비율은 물론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자살을 생각한 비율과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규모에 따른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또 학교 중단 기간이 길수록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업중단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약물복용 경험이 경우 성별 및 지역규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경험은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경험의 경우도 학교 중단기간 및 지역규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체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경험도 약물복용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은 16.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이나 그만둔 학교의 지역규모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16세 이상 집단의 가출 경험이 18.2%로 16세 미만 집단의 8.1%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가출 경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경험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는 관계가 없으나 나이 및 학업중단 기간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2%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I -6. 학업중단 후 비행 및 피해 경험

단위: %(명)

구 분 (경험 여부)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흡연	있다	48.4	33.9	40.1 (601)	17.4	45.0	40.0 (601)	31.5	42.0	38.6	45.1	40.1 (601)	42.2	38.4	42.1	40.2 (599)
	없다	51.6	66.1	59.9 (899)	82.6	55.0	60.0 (900)	68.5	58.0	61.4	54.9	59.9 (899)	57.8	61.6	57.9	59.8 (892)
	χ ²	32.075*** (df=1)			70.242*** (df=1)			14.923** (df=3)					2.198 (df=2)			
음주	있다	61.4	52.4	56.2 (844)	26.8	62.7	56.3 (844)	43.7	57.7	58.7	60.7	56.2 (843)	59.8	53.3	60.1	56.4 (841)
	없다	38.6	47.6	43.8 (657)	73.2	37.3	43.7 (656)	56.3	42.3	41.3	39.3	43.8 (657)	40.2	46.7	39.9	43.6 (651)
	χ ²	12.049** (df=1)			115.929*** (df=1)			24.013*** (df=1)					6.514* (df=2)			
음란물 시청	있다	52.9	21.1	34.7 (520)	25.3	36.6	34.6 (519)	22.4	31.9	34.5	43.8	34.6 (520)	39.7	34.2	24.0	34.8 (519)
	없다	46.8	78.9	65.2 (978)	74.7	63.2	65.3 (979)	76.9	68.1	65.5	56.2	65.2 (979)	60.1	65.7	76.0	65.1 (970)
	모름/무응답	.3	.0	.1(2)	.0	.2	.1(2)	.7	.0	.0	.0	.1(2)	.2	.1	.0	.1(2)
	χ ²	167.971*** (df=2)			13.157** (df=2)			46.655*** (df=6)					15.364** (df=4)			
자살 생각	있다	27.6	37.4	33.2 (498)	24.9	35.0	33.2 (498)	28.4	26.3	34.3	39.7	33.2 (498)	36.9	31.5	29.5	33.1 (494)
	없다	72.4	62.6	66.8 (1002)	75.1	65.0	66.8 (1002)	71.6	73.8	65.7	60.3	66.8 (1003)	63.1	68.5	70.5	66.9 (998)
	χ ²	15.754*** (df=1)			10.165** (df=1)			19.623*** (df=3)					5.205 (df=2)			
자살 시도	있다	11.2	15.0	13.4 (201)	8.9	14.4	13.4 (201)	10.1	10.0	15.3	16.0	13.4 (201)	14.1	13.9	9.8	13.5 (201)
	없다	88.8	85.0	86.6 (1299)	91.1	85.6	86.6 (1299)	89.9	90.0	84.7	84.0	86.6 (1299)	85.9	86.1	90.2	86.5 (1291)
	χ ²	4.532* (df=1)			5.664* (df=1)			9.973* (df=3)					2.379 (df=2)			
약물 복용	있다	2.2	.8	1.4 (21)	.7	1.5	1.4 (21)	.3	.3	1.8	2.4	1.4 (21)	2.8	.8	.5	1.4 (21)
	없다	97.8	99.2	98.6 (1479)	99.3	98.5	98.6 (1479)	99.7	99.7	98.2	97.6	98.6 (1478)	97.2	99.2	99.5	98.6 (1470)
	χ ²	4.985* (df=1)			1.023 (df=1)			9.350* (df=3)					10.069** (df=2)			
본드, 부탄 가스 흡입	있다	1.7	1.3	1.5 (22)	.4	1.6	1.4 (21)	.3	.6	.3	3.4	1.4 (21)	2.6	.8	1.1	1.4 (21)
	없다	98.3	98.7	98.5 (1478)	99.6	18.4	98.6 (1479)	99.7	99.4	99.7	96.6	98.6 (1478)	97.4	99.2	98.9	98.6 (1470)
	χ ²	.482 (df=1)			2.511 (df=1)			22.393*** (df=3)					7.429* (df=2)			

구 분 (경험 여부)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전체
가출	있다	16.5	16.2	16.3 (245)	8.1	18.2	16.4 (246)	10.8	13.8	14.6	22.5	16.3 (244)	18.6	15.4	16.5 (246)
	없다	83.5	83.8	83.7 (1255)	91.9	81.8	83.6 (1255)	89.2	86.2	85.4	77.5	83.7 (1255)	81.4	84.6	83.5 (1247)
	χ^2	.034 (df=1)		16.316*** (df=1)			22.555*** (df=3)					2.607 (df=2)			
성매매	있다	.8	1.4	1.1 (17)	.7	1.1	1.1 (16)	.3	.3	1.0	2.2	1.1 (17)	1.4	1.0	1.1 (16)
	없다	99.2	98.6	98.9 (1483)	99.3	98.9	98.9 (1484)	99.7	99.7	99.0	97.8	98.9 (1483)	98.6	99.0	98.9 (1475)
	χ^2	1.247 (df=1)		.324 (df=1)			8.890* (df=3)					.955 (df=2)			
집단 따돌림 피해	있다	3.6	5.0	4.4 (66)	3.0	4.6	4.3 (65)	3.4	1.9	4.6	6.5	4.4 (66)	4.3	4.4	4.5 (67)
	없다	96.4	95.0	95.6 (1434)	97.0	95.4	95.7 (1435)	96.6	98.1	95.4	93.5	95.6 (1434)	95.7	95.6	95.5 (1425)
	χ^2	1.754 (df=1)		1.461 (df=1)			10.655* (df=3)					.454 (df=2)			
문자, SNS 등으로 폭언·괴롭힘	있다	3.4	7.1	5.5 (83)	4.5	5.8	5.5 (83)	4.7	4.1	4.9	7.3	5.5 (82)	5.9	5.3	5.6 (83)
	없다	96.6	92.9	94.5 (1418)	95.5	94.2	94.5 (1417)	95.3	95.9	95.1	92.7	94.5 (1417)	94.1	94.7	94.4 (1409)
	χ^2	9.496** (df=1)		.721 (df=1)			4.937 (df=3)					.312 (df=2)			
돈이나 물건 강탈	있다	1.7	1.6	1.7 (25)	1.5	1.8	1.7 (26)	.3	.6	.5	3.8	1.6 (24)	1.6	1.6	1.7 (25)
	없다	98.3	98.4	98.3 (1475)	98.5	98.2	98.3 (1475)	99.7	99.4	99.5	96.2	98.4 (1475)	98.4	98.4	98.3 (1466)
	χ^2	.017 (df=1)		.122 (df=1)			23.655*** (df=3)					.334 (df=2)			
심하게 얻어맞음	있다	4.1	4.2	4.1 (62)	4.1	4.1	4.1 (62)	2.4	3.1	2.6	7.3	4.2 (63)	4.5	4.4	4.2 (63)
	없다	95.9	95.8	95.9 (1438)	95.9	95.9	95.9 (1438)	97.6	96.9	97.4	92.7	95.8 (1438)	95.5	95.6	95.8 (1429)
	χ^2	.017 (df=1)		.002 (df=1)			17.730*** (df=3)					1.158 (df=2)			
성적인 놀림을 당함	있다	2.0	4.9	3.7 (55)	1.9	4.1	3.7 (55)	2.4	2.5	1.8	6.5	3.6 (54)	4.7	3.0	3.7 (55)
	없다	98.0	95.1	96.3 (1445)	98.1	95.9	96.3 (1445)	97.6	97.5	98.2	93.5	96.4 (1445)	95.3	97.0	96.3 (1437)
	χ^2	8.508** (df=1)		3.033 (df=1)			17.843*** (df=3)					2.552 (df=2)			
성폭력을 당함	있다	.8	3.3	2.2 (33)	.7	2.4	2.1 (32)	.7	1.9	1.5	3.6	2.1 (32)	3.3	1.6	2.1 (32)
	없다	99.2	96.7	97.8 (1467)	99.3	97.6	97.9 (1468)	99.3	98.1	98.5	96.4	97.9 (1467)	96.7	98.4	97.9 (1460)
	χ^2	10.489** (df=1)		3.033 (df=1)			9.153* (df=3)					5.418 (df=2)			

* $p<.05$, ** $p<.01$, *** $p<.001$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5% 전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자나 카톡, SNS 등으로 폭언을 듣거나 괴롭힘을 받은 경험의 경우는 약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해당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나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돈이나 물건을 강탈당한 경험은 1.7%, 심하게 얻어맞은 경험은 4.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이나 연령별 및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다만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관련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적인 놀림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의 경우 각각 3.7%와 2.2%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이 더 많았으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경험의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학교 중단기간은 제반 피해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 중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매매, 집단 따돌림 피해, 돈이나 물건의 강탈, 심하게 얻어맞음, 성적인 놀림을 당함, 성폭력을 당함 등의 경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중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요인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 및 꿈드림 이용 경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수입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르바이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실제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표 III-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을 초과하는 53.8%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 청소년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구 분 (경험 여부)	성별		연령대		학업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16세 미만	16세 이상	0~6 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예	52.8	54.4	19.6	61.1	38.5	58.4	56.9	57.1	58.2	50.3	56.8	53.8(803)
아니오	47.2	45.6	80.4	38.9	61.5	41.6	43.1	42.9	41.8	49.7	43.2	46.2(689)
χ^2	.360 (df=1)		153.050*** (df=1)		34.220*** (df=3)				8.622* (df=2)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근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16세 미만 집단에서는 19.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6세 이상 집단에서는 61.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업 중단 기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 56.9%, 57.1%로 매우 유사한 수준인 것에 비해 학업중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에서는 38.5%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을 중단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나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58.2%로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50.3%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규모별로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에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종류에 잘 반영되어 있다(표 III-8). 즉 학업중단 이후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0.3%는 분식점이나 중국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6.5%가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세 번째로 카페 및 주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49.3%가 음식점과 관련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장소가 24시간 편의점으로 9.5%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남녀 청소년 모두 음식점 등에서 일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요리사로, 여자 청소년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아르바이트 종류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16세 미만 집단에 일반상점 판매원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학교 중단기간에 있어서의 차이의 경우 앞서 논의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경험이 대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8. 학업중단 후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명)

구 분 (종류)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전체
전단지	3.3	2.6	2.9 (23)	3.8	2.7	2.7 (22)	3.5	3.8	3.2	1.8	2.9 (23)	4.1	2.5	1.0	2.9 (23)
카페 및 주점	10.9	13.5	12.5 (100)	15.4	12.2	12.4 (100)	8.8	14.0	11.8	13.5	12.5 (100)	10.5	13.7	13.9	12.5 (100)
안전요원	.6	1.7	1.2 (10)	1.9	1.3	1.4 (11)	1.8	1.1	1.8	.7	1.2 (10)	1.7	1.5	.0	1.4 (11)
노래방	.3	.2	.2 (2)	.0	.3	.2 (2)	.0	.5	.5	.0	.2 (2)	.0	.2	1.0	.3 (2)
게임방	3.8	2.6	3.1 (25)	1.9	3.2	3.1 (25)	4.4	2.7	2.3	3.9	3.2 (26)	3.4	2.7	5.0	3.3 (26)
주유소	.0	.2	.1 (1)	.0	.1	.1 (1)	.0	.0	.5	.0	.1 (1)	.0	.2	.0	.1 (1)
패스트푸드점	15.1	17.4	16.4 (132)	11.5	16.8	16.5 (133)	21.9	13.4	19.5	13.8	16.4 (132)	19.3	15.2	13.9	16.5 (132)
공장노동	1.5	1.1	1.2 (10)	.0	1.3	1.2 (10)	.0	.0	.9	2.5	1.1 (9)	.7	1.2	2.0	1.1 (9)
분식점, 중국집 등	16.3	23.4	20.4 (164)	19.2	20.4	20.3 (164)	21.9	23.1	21.3	17.4	20.4 (164)	19.3	20.1	23.8	20.3 (162)
건설현장 노동	3.0	.0	1.2 (10)	1.9	1.1	1.1 (9)	.0	.0	.9	2.5	1.1 (9)	1.7	.5	2.0	1.1 (9)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8	.9	1.2 (10)	.0	1.3	1.2 (10)	.0	2.2	.9	1.4	1.2 (10)	1.4	1.2	1.0	1.3 (10)
퀵서비스 배달	4.1	.2	1.9 (15)	.0	2.1	2.0 (16)	4.4	2.7	.9	1.4	2.0 (16)	2.0	1.7	2.0	1.9 (15)
유흥업소	.3	.4	.4 (3)	.0	.5	.5 (4)	.0	.5	.5	.4	.4 (3)	.7	.2	.0	.4 (3)
24시간 편의점	7.7	10.8	9.5 (76)	11.5	9.4	9.6 (77)	12.3	7.0	8.6	10.6	9.5 (76)	8.1	10.2	10.9	9.5 (76)
일반상점 판매원	4.7	5.4	5.1 (41)	21.2	4.0	5.1 (41)	8.8	5.9	5.9	2.5	5.1 (41)	5.7	5.5	2.0	5.1 (41)
요리사	8.9	5.2	6.7 (54)	1.90	7.0	6.7 (54)	5.3	10.2	7.2	4.6	6.7 (54)	6.4	6.5	7.9	6.6 (53)
정비 엔지니어	1.2	.0	.5 (4)	.0	.5	.5 (4)	.0	.0	.0	1.4	.5 (4)	.0	.2	2.0	.4 (3)
배우	.3	.0	.1 (1)	.0	.1	.1 (1)	.9	.0	.0	.0	.1 (1)	.0	.2	.0	.1 (1)
이·미용, 네일아트 등	.6	2.6	1.7 (14)	1.9	1.7	1.7 (14)	.9	1.1	2.7	1.8	1.7 (14)	2.4	1.2	2.0	1.8 (14)
주차·안전요원	1.5	.4	.9 (7)	.0	.9	.9 (7)	.9	1.1	.5	.7	.7 (6)	.7	1.2	.0	.9 (7)
기타	10.9	9.0	9.8 (79)	7.7	9.9	9.8 (79)	4.4	8.6	7.2	15.2	10.0 (80)	9.8	11.2	5.0	9.9 (79)
모름/무응답	3.3	2.4	2.7 (22)	.0	2.9	2.7 (22)	.0	2.2	3.2	3.9	2.7 (22)	2.4	2.5	5.0	2.8 (22)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따른 낙인과 더불어 아르바이트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배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한 처우들을 살펴 보면(표 Ⅲ-9),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받기로 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22.3%로 적어도 5명 중 1명은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22.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성별이나 연령대 혹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단위: %(명)

구 분 (피해경험)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임금 미지급· 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없다	75.5	79.2	77.7(626)	84.6	77.3	77.7(625)	74.1	80.6	76.0	77.6(623)
	한두 번	19.8	15.8	17.5(141)	11.5	18.0	17.5(141)	19.9	16.4	16.3	17.7(142)
	세 번 이상	4.7	4.7	4.7(38)	3.8	4.7	4.6(37)	6.1	3.0	6.7	4.6(37)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2.798 (df=3)			1.617 (df=3)			13.642* (df=6)			
초과수당 미지급	없다	79.1	76.4	77.5(624)	92.3	76.6	77.6(625)	75.4	79.3	76.9	77.6(622)
	한두 번	12.1	10.1	10.9(88)	3.8	11.3	10.8(87)	12.8	9.7	9.6	10.8(87)
	세 번 이상	8.8	13.3	11.4(92)	3.8	12.0	11.4(92)	11.8	11.0	12.5	11.5(92)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5.039 (df=3)			6.899 (df=3)			8.906 (df=6)			
계약시간 초과 근무	없다	77.0	70.8	73.4(591)	81.1	72.8	73.3(591)	71.0	73.9	77.9	73.3(589)
	한두 번	13.9	15.7	14.9(120)	9.4	15.3	14.9(120)	13.8	16.7	11.5	14.9(120)
	세 번 이상	9.1	13.3	11.6(93)	9.4	11.8	11.7(94)	15.2	9.5	9.6	11.6(93)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5.114 (df=3)			1.917 (df=3)			14.295* (df=6)			

구 분 (피해경험)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수행	없다	85.2	85.2	85.2(685)	94.2	84.6	85.2(685)	84.5	86.1	84.8	85.3(685)
	한두 번	9.5	10.7	10.2(82)	3.8	10.6	10.2(82)	11.1	9.5	9.5	10.1(81)
	세 번 이상	5.3	3.9	4.5(36)	1.9	4.7	4.5(36)	4.4	4.5	4.8	4.5(36)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1.968 (df=3)			3.612 (df=3)			7.251 (df=6)			
폭언 등 인격 모독	없다	79.1	83.5	81.6(685)	92.5	80.9	81.6(685)	79.8	83.6	79.8	81.7(656)
	한두 번	12.1	12.6	12.4(100)	7.5	12.7	12.4(100)	13.8	11.7	11.5	12.5(100)
	세 번 이상	8.8	3.6	5.8(47)	.0	6.2	5.8(47)	6.4	4.7	(7.7)	5.7(46)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10.390* (df=3)			5.271 (df=3)			9.402 (df=6)			
구타·폭행	없다	95.0	98.5	97.0(781)	100.0	96.8	97.0(782)	96.3	97.3	98.1	97.0(779)
	한두 번	3.2	1.1	2.0(16)	.0	2.1	2.0(16)	2.4	1.7	1.0	1.9(15)
	세 번 이상	1.8	.2	.9(7)	.0	.9	.9(7)	1.3	1.0	.0	1.0(8)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11.094* (df=3)			1.741 (df=3)			9.026 (df=6)			
성희롱·성폭력	없다	96.5	91.0	93.3(752)	96.2	93.2	93.4(751)	90.9	93.8	98.1	93.3(749)
	한두 번	2.1	7.9	5.5(44)	3.8	5.6	5.5(44)	7.7	5.0	1.0	5.5(44)
	세 번 이상	1.5	.9	1.1(9)	.0	1.1	1.0(8)	1.3	1.2	.0	1.1(9)
	모름/모응답	.0	.2	.1(1)	.0	.1	.1(1)	.0	.0	1.0	.1(1)
	χ^2	14.372** (df=3)			.936 (df=3)			15.363* (df=6)			

* $p<.05$, ** $p<.01$, *** $p<.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26.6%가 계약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해당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대도시 지역에서 해당 경험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는 14.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및 지역규모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8.4%로 약 6명 중 1명 정도는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나 지역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구타나 폭행 경험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구타나 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여자 청소년들보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이나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오히려 구타나 폭행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구타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Ⅲ-10에서 표 Ⅲ-14까지의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0을 살펴보면,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63.5%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대처 방법으로 18.8%의 청소년들이 “참고 계속 일함”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성별이나 연령대 혹은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표 Ⅲ-11에서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46%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항의함”과 “아무 것도 하지 못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처 방법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처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함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감당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0.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1)

단위: %(명)

구 분 (대처방법)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경험 없음	65.2	62.3	63.5(512)	78.8	62.6	63.7(512)	60.5	65.8	64.1	63.6(509)
참고 계속 일함	16.5	20.3	18.7(151)	13.5	19.1	18.8(151)	19.3	18.2	19.4	18.8(150)
아무것도 하지 못함	1.2	1.3	1.2(10)	.0	1.3	1.2(10)	1.4	1.2	1.0	1.3(10)
일을 그만둠	8.6	8.4	8.4(68)	3.8	8.8	8.5(68)	11.1	6.5	7.8	8.4(67)
개인적으로 항의함	5.6	4.7	5.1(41)	1.9	5.2	4.0(5.0)	5.4	5.0	4.9	5.1(41)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1.2	1.1	1.1(9)	.0	1.1	8(1.0)	.3	1.5	1.0	1.0(8)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도움 요청	.0	.2	.1(1)	.0	.1	.1(1)	.0	.2	.0	.1(1)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1.2	.9	1.0(8)	.0	.9	.9(7)	1.4	1.0	.0	1.0(8)
기타	.6	.4	.5(4)	1.9	.5	.6(5)	.7	.2	1.0	.5(4)
무응답	.0	.4	.2(2)	.0	.3	.2(2)	.0	.2	1.0	.3(2)
χ^2	4.634 (df=9)			8.734 (df=9)			14.244 (df=18)			

표 III-11.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2)

단위: %(명)

구 분 (대처방법)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아무것도 하지 못함	14.3	16.9	15.8(19)	25.0	15.7	16.0(19)	9.8	25.0	5.9	15.8(19)
일을 그만둠	40.8	49.3	45.8(55)	50.0	46.1	46.2(55)	45.1	50.0	35.3	45.8(55)
개인적으로 항의함	22.4	11.3	15.8(19)	25.0	15.7	16.0(19)	19.6	11.5	23.5	16.7(20)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8.2	11.3	10.2(12)	.0	10.4	10.1(12)	13.7	3.8	11.8	9.2(11)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도움 요청	4.1	5.6	5.0(6)	.0	5.2	5.0(6)	3.9	7.7	.0	5.0(6)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10.2	5.6	7.5(9)	.0	7.0	6.7(8)	7.8	1.9	23.5	7.5(9)
χ^2	4.096 (df=5)			1.340 (df=5)			19.773** (df=10)			

* $p<.05$, ** $p<.01$, *** $p<.001$

표 III-12.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3)

단위: %(명)

구 분 (대처방법)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일을 그만둠	16.0	23.1	19.6(10)	.0	20.0	19.6(10)	10.0	26.1	14.3	18.0(9)
개인적으로 항의함	28.0	19.2	23.5(12)	.0	24.0	23.5(12)	30.0	21.7	14.3	24.0(12)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32.0	46.2	39.2(20)	100.0	38.0	39.2(20)	40.0	34.8	57.1	40.0(20)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도움 요청	.0	7.7	3.9(2)	.0	4.0	3.9(2)	10.0	.0	.0	4.0(2)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24.0	3.8	13.7(7)	.0	14.0	13.7(7)	10.0	17.4	14.3	14.0(7)
χ^2	7.088 (df=4)			1.581 (df=4)			6.313 (df=8)			

표 III-13.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4)

단위: %(명)

구 분 (대처방법)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개인적으로 항의함	16.7	.0	9.1(1)	-	7.1	7.1(1)	.0	14.3	.0	9.1(1)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16.7	40.0	27.3(3)	-	28.6	28.6(4)	33.3	28.6	.0	27.3(3)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도움 요청	33.3	40.0	36.4(4)	-	35.7	35.7(5)	33.3	28.6	100.0	36.4(4)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33.3	20.0	27.3(3)	-	28.6	28.6(4)	33.3	28.6	.0	27.3(3)
χ^2	1.589 (df=3)			-			2.444 (df=6)			

표 III-14.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 경험 시 대처방법(5)

단위: %(명)

구 분 (대처방법)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리	전체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50.0	-	50.0(1)	-	50.0	50.0(1)	.0	100.0	-	50.0(1)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50.0	-	50.0(1)	-	50.0	50.0(1)	100.0	.0	-	50.0(1)
χ^2	-			-			2.000 (df=1)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향후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과 관련한 문항들을 질문하고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아래 표 Ⅲ-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Ⅲ-15. 진로성숙도

구 분			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성별	남성	평균	2.57	2.34	2.84	1.74
		표준편차	.87	.78	.70	.67
	여성	평균	2.57	2.59	3.03	1.71
		표준편차	.86	.78	.63	.65
	t/F(Scheffé)		.038	-6.231***	-5.630***	.805
연령대	16세 미만	평균	2.56	2.40	2.90	1.73
		표준편차	.81	.75	.63	.64
	16세 이상	평균	2.57	2.50	2.96	1.72
		표준편차	.87	.80	.68	.66
	t/F(Scheffé)		-.203	-1.901	-1.235	.077
학교 중단기간	0~6개월 미만 ^a	평균	2.58	2.43	2.96	1.71
		표준편차	.85	.77	.62	.67
	6개월 이상~ 1년 미만 ^b	평균	2.72	2.45	2.95	1.64
		표준편차	.87	.81	.69	.65
	1년 이상~ 2년 미만 ^c	평균	2.54	2.45	2.98	1.73
		표준편차	.89	.80	.71	.69
	2년 이상 ^d	평균	2.50	2.56	2.92	1.79
		표준편차	.83	.77	.64	.63
t/F(Scheffé)		4.349**(b>d)	2.502	.575	3.702*(d>b)	
지역규모	대도시 ^a	평균	2.56	2.49	2.94	1.69
		표준편차	.88	.78	.66	.65
	중소도시 ^b	평균	2.57	2.49	2.96	1.72
		표준편차	.86	.78	.65	.65
	읍면리 ^c	평균	2.57	2.44	2.89	1.80
		표준편차	.82	.85	.72	.74
	t/F(Scheffé)		.023	.249	.691	1.954

* $p<.05$, ** $p<.01$, *** $p<.001$

먼저 진로결정성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서 2.5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의 경우에도 16세 미만이나 16세 이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진로결정성에서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학교 중단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집단에서 2.72점인 반면, 2년 이상인 집단에서 2.50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업 중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로결정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로결정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령대나 학교 중단기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보다 확신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독립성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성이나 진로확신성 및 진로준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둔 지 2년을 초과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6). 그 다음으로 정규학교에 복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7% 수준이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진학이나 해외 유학 준비 등을 포함한 학업 관련 진로 계획의 비율은 51.4로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향후 진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학업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학업을 계속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나 창업,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과 관련한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9.4% 정도로 약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직업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진로 계획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들 가운데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학교 복학이나 대학 진학 및 검정고시 준비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 관련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6.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단위: %(명)

구 분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전체	16세 미만	16세 이상	전체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전체
미정	33.4	26.2	29.3 (437)	37.3	27.4	29.2 (436)	28.3	21.0	31.4	33.4	29.2 (437)	28.8	27.7	29.3 (436)
정규학교 복학 또는 대학 진학	22.1	28.3	25.7 (383)	23.1	26.2	25.7 (383)	21.2	25.4	31.9	23.3	25.6 (382)	29.0	25.0	25.6 (381)
대안학교 진학	2.2	.2	1.1 (16)	2.2	.9	1.1 (17)	.7	1.3	1.3	1.2	1.1 (17)	.8	1.3	1.2 (18)
해외 유학	5.8	4.2	4.9 (73)	2.2	5.5	4.9 (73)	3.4	6.3	4.6	5.1	4.9 (73)	4.5	5.5	4.9 (73)
검정고시 준비	16.1	22.3	19.7 (294)	25.4	18.4	19.7 (294)	32.8	24.8	12.6	14.4	19.7 (295)	19.3	21.3	19.6 (292)
취업 또는 창업	5.2	5.6	5.4 (81)	2.6	6.0	5.4 (81)	4.8	6.3	4.9	5.7	5.4 (81)	4.7	6.0	5.5 (82)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훈련	5.6	5.5	5.6 (83)	2.6	6.1	5.5 (82)	2.7	5.3	5.9	7.1	5.6 (83)	4.7	5.3	5.3 (79)
취업과 진학 병행	6.6	6.0	6.2 (93)	3.7	6.9	6.3 (94)	5.8	7.8	4.6	6.7	6.2 (93)	6.5	5.5	6.3 (93)
시간제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3.0	1.6	2.2 (33)	.7	2.5	2.2 (33)	.3	1.9	2.8	3.2	2.3 (34)	1.6	2.4	2.2 (33)
χ^2	37.379*** (df=8)		37.964*** (df=8)			88.244*** (df=24)					26.485** (df=16)			

* $p<.05$, ** $p<.01$, *** $p<.001$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세 미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16세 미만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과 관련한 계획에서는 16세 이상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보다는 취업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이미 검정고시를 통과함에 따라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검정고시 준비 응답률이 낮아진 경우가 해당된다. 또 다른 해석은 실제로 검정고시 준비를 포기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최소한 고졸 검정고시 취득을 위해 꿈드림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28% 내외 수준인 반면, 읍면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7.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규학교 복학이나 대학 진학 및 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한 비율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다중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무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7). 즉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령대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다른 시선과 차별을 경험하여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진로 찾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큰 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사를 통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진로와 관련한 문항에 대한 응답과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변으로부터의 부정적인 낙인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막막함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되며,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응답한 어려움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어려움이 무기력함과 부모와의 갈등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표 III-17.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다중선택)

구 분	빈도(명)	비율(%)
부모와의 갈등	378	25.2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648	43.2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175	11.6
진로 찾기	461	30.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223	14.8
지낼 곳 찾기	37	2.5
나 혼자라는 불안	299	19.9
무기력함	414	27.6
일을 구하기 어려움	307	20.5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	78	5.2
건강이 좋지 않음	178	11.9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함	26	1.8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291	19.4
기타	44	3.0
어려움이 없었음	339	22.6

물론 22.6%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1/5 정도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8). 즉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무시 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들은 27.6%, 남자 청소년들은 15.6%가 응답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적지 않았으며, 무기력함을 경험하거나 진로 찾기의 어려움 등에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6세 이상 연령대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어려움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나이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이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중단기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학업 중단이 길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잘 적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애로사항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8.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다중응답분석)

단위: 명(전체 중 %)

구 분	성별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규모		
	남자	여자	16세 미만	16세 이상	0~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2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부모와의 갈등	10.0	15.2	4.1	21.1	4.9	5.3	6.9	8.2	9.0	12.8	3.4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15.6	27.6	6.9	36.4	6.5	9.3	12.8	14.6	15.2	23.7	4.7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3.9	7.7	1.9	9.7	2.2	1.9	3.3	4.3	4.2	6.1	1.4
진로 찾기	11.6	19.1	4.9	25.8	5.6	5.3	7.9	11.9	10.8	16.4	3.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5.1	9.7	2.2	12.6	2.1	3.3	3.6	5.8	5.9	8.0	1.0
지낼 곳 찾기	1.0	1.4	.2	2.2	.3	.6	.6	1.0	1.0	1.2	.2
나 혼자라는 불안	6.5	13.4	3.1	16.8	3.8	3.3	6.0	6.8	7.9	10.6	1.4
무기력함	10.3	17.3	3.8	23.8	5.2	5.0	7.5	9.9	9.5	15.5	2.6
일을 구하기 어려움	8.0	12.5	3.0	17.5	4.1	3.5	5.1	7.8	7.8	10.3	2.5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	2.5	2.7	.8	4.4	.9	.9	1.2	2.2	2.5	2.2	.5
건강이 좋지 않음	4.3	7.6	1.6	10.3	2.1	2.1	3.2	4.5	4.9	5.9	1.0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함	.8	1.0	.2	1.5	.2	.2	.4	1.0	1.0	.6	.2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7.1	12.3	2.6	16.8	3.5	3.0	5.2	7.7	6.7	10.7	2.0
기타	1.4	1.5	.4	2.6	.3	.7	.6	1.4	1.0	1.0	.9
어려움이 없었음	12.2	10.4	5.7	16.8	4.9	4.5	5.2	8.0	7.0	12.2	3.4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와 읍면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리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총 28개의 지원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체 평균 기준, 그리고 연령대별 차이에 따른 지원 항목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III-19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값 기준으로 3점(필요하다)을 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지원(M=3.10점), 진학정보 제공(M=3.06점), 건강검진 제공(M=3.05점),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과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동일하게 M=3.00점) 순으로 필요도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를 보인 지원 항목들은 인터넷 중독 치료 지원, 실시간 맞춤형 상담/정보제공/인터넷 사이트 운영, 상담사가 찾아오는 방문형 상담, 가족 복지지원 항목들로 평균값 기준 2.5점에 미치지 못했다.

만 16세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요구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이 몇 가지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대해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필요성이 그 이상 연령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청소년 전용 일자리 제공과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등 취업과 진로와 관련한 지원 요구는 16세 미만보다 16세 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외에도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제공에 대한 요구도 16세 이상 청소년의 평균값이 어린 연령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상담지원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9.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요구 (전체, 연령대별 차이)

구 분 (지원 종류)	전체		연령대				t-value
			16세 미만	16세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2.00	.967	2.28	.957	1.94	.958	5.309***
2)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94	.903	2.96	.859	2.94	.912	.292
3) 진학정보 제공	3.06	.889	3.03	.850	3.06	.897	-.594
4) 검정고시 준비 지원	3.10	.863	3.15	.756	3.09	.884	1.035
5)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대안교육 제공	2.88	.904	2.91	.848	2.87	.916	.553
6)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3.00	.889	3.05	.851	2.99	.897	.979
7) 직업교육훈련	2.95	.921	2.96	.888	2.95	.929	.154
8) 근로 중 피해에 대한 보호	2.69	1.023	2.62	.997	2.71	1.028	-1.268
9)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2.75	.938	2.72	.896	2.76	.948	-.719
10) 개인 맞춤형 교육 또는 직업훈련 보장	2.87	.924	2.80	.833	2.88	.943	-1.270
11) 청소년 전용 일자리 제공	2.97	.898	2.87	.859	3.00	.905	-2.054*
12)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2.93	.908	2.83	.861	2.95	.917	-2.059*
13)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	2.78	.931	2.75	.896	2.79	.939	-.638
14) 건강검진 제공	3.05	.849	3.00	.845	3.06	.850	-1.021
15)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2.98	.885	2.94	.973	2.99	.865	-.774
16) 성교육 제공	2.65	.997	2.66	1.027	2.65	.990	.195
17)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제공	2.93	.908	2.82	.913	2.96	.906	-2.180*
18)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2.57	.996	2.57	.993	2.56	.997	.064
19) 인터넷 중독 치료 지원	2.43	.993	2.47	.945	2.42	1.003	.709
20) 메시지 등을 통한 실시간 맞춤형 상담 혹은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	2.49	.958	2.46	.915	2.49	.968	-.557
21) 상담사가 찾아오는 방문형 상담	2.34	.976	2.30	.929	2.35	.986	-.666
22) 가족복지지원	2.39	.990	2.36	.929	2.40	1.003	-.702
23)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2.78	.935	2.84	.873	2.77	.948	1.039
24) 체육 활동 지원	2.83	.977	2.91	.945	2.81	.984	1.540
25) 문화예술 활동 지원	2.91	.931	2.96	.880	2.90	.942	1.141
26)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제공	2.88	.957	2.91	.889	2.87	.971	.622
27) 야간 및 휴일에 개설되는 프로그램	2.81	.973	2.89	1.013	2.79	.963	1.525
28)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	3.00	.927	3.03	.855	3.00	.943	.52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교 안내 및 방법 지원, 학습 멘토 지원, 진학정보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지원, 직업교육 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7가지의 지원 항목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지역 규모, 성별, 연령대, 학업 중단기간 등의 변수와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SES), 학업성적,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각 독립변수들은 아래 표 III-20에서와 같이 측정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표 III-20. 독립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측정 방법
가정 경제적 수준(SES)	1=하, 2=중, 3=상
지역규모	읍면동 거주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대도시” 거주와 “중소도시” 거주 2개 변수를 범주변수로 사용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대	16세 미만=0, 16세 이상=1
중단기간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1년 미만=2, 1년 이상 2년 미만=3, 2년 이상=4
학업성적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 상=1, 중=2, 하=3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여부 미참여=0, 참여=1

먼저 복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대, 학업중단 기간,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학교를 중단했던 당시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복교 안내 지원의 필요성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21. 복교안내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상수)	2.371(.172)			.035(.030)	6.719***
SES	-.082(.053)	-.040	-1.543		
대도시	.017(.082)	.008	.209		
중소도시	.068(.078)	.035	.874		
성별	.040(.050)	.020	.793		
연령대	-.327(.066)	-.130	-4.943***		
중단기간	.075(.023)	.087	3.310**		
학업성적	-.081(.031)	-.069	-2.656**		
숙려제	-.093(.053)	-.046	-1.757		

* $p < .05$, ** $p < .01$, *** $p < .001$

학습멘토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 성별,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멘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습을 지속함에 있어 사교육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학습멘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학습멘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표 III-18)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학업을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습멘토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학 정보 지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학업중단 기간,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3). 앞서 학습멘토 지원에 대한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진학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학전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에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정보 제공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학습멘토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상수)	3.332(.160)			.036(.031)	6.898***
SES	-.184(.050)	-.095	-3.682***		
대도시	.120(.077)	.063	1.566		
중소도시	.072(.073)	.040	.995		
성별	.218(.047)	.120	4.657***		
연령대	.003(.062)	.001	.042		
중단기간	.000(.021)	.000	.016		
학업성적	-.107(.029)	-.097	-3.754***		
숙려제	-.024(.049)	-.013	-.479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3. 진학정보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진학정보	(상수)	3.400(.158)			.040(.035)	7.781***
	SES	-.115(.049)	-.060	-2.335*		
	대도시	.067(.075)	.036	.886		
	중소도시	.025(.072)	.014	.354		
	성별	.241(.046)	.135	5.235***		
	연령대	.085(.061)	.037	1.404		
	중단기간	-.041(.021)	-.052	-1.977*		
	학업성적	-.115(.028)	-.106	-4.097***		
	숙려제	.004(.049)	.002	.075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앞선 표 III-22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학정보 제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진학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를 떠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고시 지원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학업중단 기간, 학업성적이었으며, 이는 진학정보 지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동일하였다(표 III-24).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검정고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원 항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검정고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검정고시	(상수)	3.521(.115)			.026(.021)	4.993***
	SES	-.117(.048)	-.063	-2.446*		
	대도시	.047(.074)	.026	.632		
	중소도시	.077(.070)	.044	1.092		
	성별	.156(.045)	.089	3.456**		
	연령대	-.010(.060)	-.004	.160		
	중단기간	-.058(.020)	-.075	-2.842**		
	학업성적	-.078(.028)	-.074	-2.837**		
	숙려제	-.005(.048)	-.003	-.105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지원 내용인 진로탐색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학업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5). 즉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탐색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5. 진로탐색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진로탐색	(상수)	3.094(.159)			.031(.026)	5.953***
	SES	-.066(.049)	-.034	-1.339		
	대도시	-.010(.076)	-.005	-.128		
	중소도시	.022(.072)	.012	.304		
	성별	.263(.046)	.146	5.664***		
	연령대	-.023(.061)	-.010	-.372		
	중단기간	.031(.021)	.039	1.468		
	학업성적	-.070(.028)	-.065	-2.486*		
	숙려제	-.091(.049)	-.049	-1.855		

* $p < .05$, ** $p < .01$, *** $p < .001$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숙려제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의 진출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 -26. 직업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t/F(Scheffé)	$R^2(adj. R^2)$	F
직업교육	(상수)	3.142(.161)			.037(.032)	7.135***
	SES	-.132(.050)	-.068	-2.635**		
	대도시	-.038(.077)	-.020	-.493		
	중소도시	-.017(.073)	-.010	-.238		
	성별	.297(.047)	.162	6.305***		
	연령대	.018(.062)	.007	.284		
	중단기간	.009(.021)	.012	.442		
	학업성적	-.036(.029)	-.033	-1.255		
	숙려제	-.141(.050)	-.075	-2.846**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연령대의 3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7).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지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한 조속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각종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자리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27. 일자리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t	$R^2(adj. R^2)$	F
일자리	(상수)	3.203(.160)			.034(.029)	6.473***
	SES	-.217(.050)	-.112	-4.373***		
	대도시	.102(.076)	.054	1.330		
	중소도시	.081(.073)	.045	1.115		
	성별	.212(.047)	.117	4.544***		
	연령대	.138(.062)	.059	2.241*		
	중단기간	-.005(.021)	-.007	-.254		
	학업성적	-.038(.028)	-.035	-1.346		
	숙려제	-.074(.049)	-.039	-1.498		

* $p < .05$, ** $p < .01$, *** $p < .001$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8년에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조사가 진행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및 애로사항과 더불어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경험에 있어서 8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50%를 넘는 청소년들은 진로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1/3 정도는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며 29% 정도는 직업기술을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험에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 경험에서 지역 간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면리 거주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주 지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성별이나 연령대, 학교 중단기간, 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이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기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 및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흡연, 음주, 음란물시청, 약물복용 경험을 더 많이 한 반면, 자살생각, 자살 시도, 문자 등을 통한 괴롭힘, 성적인 놀림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 등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나 음주, 음란물 시청 등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흡연, 음주, 음란물시청, 자살생각, 자살시도, 가출 등에 있어 16세 이상 집단이 나이가 더 어린 집단보다 경험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중단기간이 길수록 비행이나 피해 경험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학업중단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행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받는 경향이 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나 읍면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취업을 위한 준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20%를 넘는 청소년들이 임금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 가운데 20% 정도는 폭언 등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5% 정도는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들 가운데 9% 정도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과 관련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나 읍면리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나 성희롱·성폭력 경험은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있어 진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로결정성이나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등에 비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진로독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진로확신성과 준비성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진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로 계획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정규학교 복학이나 대학진학 및 검정고시 준비에 있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정규학교 복학이나 대학진학을, 16세 미만 집단과 학업중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학교 복학이나 검정고시 준비에 있어 읍면리 거주 청소년들의 선호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이 학업을 그만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읍면리 거주 청소년들이 취업 등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취창업 병행 등과 관련한 계획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규모가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16세 이상 집단,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및 학교 중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와의 갈등, 진로찾기, 무기력함, 일을 구하기 어려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등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특정 집단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특별히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7가지의 지원 항목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III-2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멘토, 진학정보, 검정고시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원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지원 서비스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진학정보와 검정고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중단숙려제 경험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8. 지원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	SES	대도시/ 중소도시	성별	연령대	중단 기간	학교 성적	숙려제 경험
복교안내				-	+	-	
학습멘토	-		+			-	
진학정보	-		+		-	-	
검정고시	-		+		-	-	
진로탐색			+			-	
직업교육	-		+				-
일자리	-		+	+			

주. + 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성별,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 등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가 달리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이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 1. 설문조사
- 2. 초점집단인터뷰(FGI)
- 3.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향후 개선방안 및 운영모형(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현재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국 218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꿈드림의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꿈드림 운영에 대한 인식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218개 꿈드림의 현장실무자(팀장급 종사자 또는 2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주요요소	설문조사
조사내용	센터 이용 청소년 및 센터 현황, 서비스/지원 내용, 센터운영에 대한 인식 등
조사대상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18개) 전수조사
조사대상 수	218개 센터 당 1명의 종사자 대상(총 139명 조사 완료)
조사시기	11월~12월 초
조사방식	웹/모바일 링크 전달, 조사

9) 제4장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2절은 백해정 선임연구위원, 3절 요약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IV-2와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조사지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 담당부서의 서면자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성인대상의 연구이나 인간 대상 연구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기관 IRB의 심의과정을 거쳐 조사지를 승인받은 후(승인번호: 202010-HR-수시-003), 웹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각 센터 담당자를 접촉하여 본 조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후 본 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센터의 이메일 주소로 조사지 링크를 전달하여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2.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내용	비고(출처)
조사 응답자 관련	- 응답자 성별 및 연령대, 현재 시설/기관에서의 직급, 종사기간, 근무시간	
기관 개관	- 기관 설립주체(국립, 시립, 구립, 법인 등) 및 기관/법인/단체 명 - 운영 예산 재원(국비, 지방비, 자치구비, 법인전입금 등) - 현재 기관의 공간 현황(독립된 전용공간, 타 기관 공간 공유 등)	윤철경 외, 2019 수정
	-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인식 - 인근 지역 내 도보가능 청소년 이용시설 확인	연구진 개발
청소년 발굴 경로	-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 경로	윤철경 외, 2019 수정
기관 서비스/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 우선순위 및 세부 지원 항목별 제공여부 - 제공하지 못하는 지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윤철경 외, 2019 수정, 연구진 개발
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진 개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운영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우선순위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주요 역할에 대한 의견 -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연구진 개발
운영체계 관련 자유 의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중앙 ↔ 시·도 ↔ 시·군·구 센터)에 대한 자유 의견 - 중앙부처, 중앙지원기관, 시·도단위 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한 자유 의견	연구진 개발

2) 조사결과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는 총 139개소로 각 센터당 1명씩의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표 IV-3). 응답에 참여한 현장종사자 중 남자는 36명으로 약 25.9%였고, 여자는 103명으로 74.1%였다. 연령은 20~30대가 56.1%였고, 40대 이상이 43.9%에 달했다. 3년 미만의 종사경력자는 36.7%, 3년 이상의 경력자는 63.3%로 본 조사대상자가 팀장급 또는 선임종사자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센터 중에서는 13개의 센터가 참여하였고, 시·군·구 센터는 12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43개(30.9%), 법인 및 기타단체 설립이 96개소(69.1%)였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대도시) 위치 기관이 50개소, 중소도시 소재 59개, 읍면지역 30개소로 나타났다.

표 IV-3.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개소)	비율(%)
전체		139	100.0
성별	남자	36	25.9
	여자	103	74.1
연령	20~30대	78	56.1
	40대 이상	61	43.9
시설/기관 직급	시설장	10	7.2
	팀장/선임	129	92.8
종사경력	3년 미만	51	36.7
	3년 이상	88	63.3
시설유형	시·도센터	13	9.4
	시·군·구센터	126	90.6
설립주체	공공	43	30.9
	법인/기타	96	69.1
지역규모	대도시*	50	36.0
	중소도시	59	42.4
	읍면지역	30	21.6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2) 기관 개관

①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표 IV-4), 주당 평균 41.5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보다 팀장/선임급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 많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나, 종사경력, 시설유형, 설립주체,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변인 구분		평균값(표준편차)	t/F(Scheffé)
전체		41.53(3.456)	
시설/기관 직급	시설장	39.50(1.581)	-3.724**
	팀장/선임	41.69(3.515)	
종사경력	3년 미만	41.73(3.092)	0.500
	3년 이상	41.42(3.663)	
시설유형	시·도센터	44.00(5.944)	1.630
	시·군·구센터	41.28(3.016)	
설립주체	공공기관	40.98(2.721)	-1.429
	법인/기타	41.78(3.725)	
지역규모	대도시	41.86(3.692)	0.389
	중소도시	41.42(3.276)	
	읍면지역	41.20(3.468)	

* $p < .05$, ** $p < .01$, *** $p < .001$

② 기관 운영 재원

기관을 운영하는 재원을 살펴보면(중복응답)(표 IV-5), 국비 99.3%, 지방비 100.0%,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 재원이 21.6%, 법인 전입금 5.0%, 후원금 및 기타 재원을 받는다는 기관이 각각 5.8% 였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기관의 주요 운영 재원이었으며 약 1/5의 기관은 자치구 등의 기초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등은 매우 적은 비중을 보였다.

표 IV-5. 기관 운영 자원 (복수응답)

(단위: 명, %)

자원	빈도	비율
국비	138	99.3
지방비	139	100.0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 자원	30	21.6
법인전입금	7	5.0
후원금	8	5.8
기타	8	5.8

각 자원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표 IV-6), 국비와 지방비를 받는 기관은 68.3%에 달했고, 국비, 지방비,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받는 기관은 16.5%로 나타났다. 국비, 지방비 외에 법인 전입금, 후원금, 수익자 부담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5%에 불과했다.

표 IV-6. 기관 운영 예산 자원 구성

(단위: 명, %)

자원 구성	빈도	비율
국비+지방비	95	68.3
국비+지방비+기초지자체 자원	23	16.5
국비+지방비+법인전입금/후원금/수익자 부담 등	7	5.0
기타	14	10.1

③ 공간 사용 현황(전용/공유)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 29.5%만이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0.5%는 다른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시·도센터의 경우 독립된 전용공간의 비율이 61.5%로 시·군·구센터의 26.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 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독립된 전용공간 사용이 42.4%로 가장 높았고, 읍면지

역은 불과 10%에 불과해, 본 조사에 참여한 읍면지역 꿈드림 90%가 타 기관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참조).

표 IV-7. 공간 사용 현황

(단위: 빈도(%))

변인 구분	사용 공간 현황		전체	χ^2 (df)
	독립된 전용공간	타기관과 공유		
전체	41(29.5)	98(70.5)	139	
시설유형	시·도센터	8(61.5)	5(38.5)	7.080(1)**
	시·군·구센터	33(26.2)	93(73.8)	
설립주체	공공	10(23.3)	33(76.7)	1.166(1)
	법인/기타	31(32.3)	65(67.7)	
지역규모	대도시	13(26.0)	37(74.0)	10.481(2)**
	중소도시	25(42.4)	34(57.6)	
	읍면지역	3(10.0)	27(90.0)	

* $p < .05$, ** $p < .01$, *** $p < .001$

④ 위치 및 시설 공간/여건에 대한 생각

꿈드림 종사자들에게 각 센터들의 위치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표 IV-8), 먼저 센터 위치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관들의 71.2%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이었으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1%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앞서 논의한 낮은 비율의 전용공간 사용과 같은 맥락으로 조사되었다. 냉난방 및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항목에는 95.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66.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설유형, 설립주체, 지역규모 등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9),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냉난방 및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센터 간 차이가 있었고, 시·도센터의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보다 법인/기타 단체 설립 꿈드림 종사자의 응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지원항목	부정응답			긍정응답			전체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	12 (8.6)	28 (20.1)	40 (28.8)	57 (41.0)	42 (30.2)	99 (71.2)	139(100.0)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4 (17.3)	58 (41.7)	82 (59.0)	39 (28.1)	18 (12.9)	57 (41.0)	139(100.0)
3) 냉난방 및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0 (0.0)	6 (4.3)	6 (4.3)	80 (57.6)	53 (38.1)	133 (95.7)	139(100.0)
4)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7 (5.0)	39 (28.1)	46 (33.1)	69 (49.6)	24 (17.3)	93 (66.9)	139(100.0)

표 IV-9.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변인별 평균값 차이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지원항목	전체	시설유형			설립주체			지역규모			
		시·도	시·군·구	t	공공	법인/기타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Scheffe)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	2.93 (0.922)	3.08 (0.76)	2.91 (0.938)	0.610	2.88 (0.905)	2.95 (0.933)	-0.378	2.96 (0.968)	3.00 (0.851)	2.73 (0.98)	0.877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37 (0.918)	2.69 (0.63)	2.33 (0.938)	1.346	2.16 (0.924)	2.46 (0.905)	-1.768	2.38 (1.028)	2.39 (0.81)	2.3 (0.952)	0.102
3) 냉난방 및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3.34 (0.559)	3.69 (0.48)	3.3 (0.555)	2.443*	3.28 (0.504)	3.36 (0.583)	-0.880	3.3 (0.614)	3.34 (0.545)	3.40 (0.498)	0.297
4)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2.79 (0.785)	3.08 (0.494)	2.76 (0.804)	2.039	2.58 (0.852)	2.89 (0.738)	-2.139*	2.88 (0.773)	2.69 (0.749)	2.83 (0.874)	0.806

* $p < .05$, ** $p < .01$, *** $p < .001$

⑤ 인근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학교밖지원센터 인근(도보로 약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을 모두 조사한 결과(복수응답)(표 IV-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86.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이 인근에 있는 경우 역시 63.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체육시설 33.8%, 청소년작업장이 15.1% 순이었고, 대안학교도 8.6% 정도였다.

표 IV-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근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복수응답)

재원	빈도	비율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88	63.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0	86.3
대안학교(배움터 포함)	12	8.6
청소년작업장(일경험 장소)	21	15.1
체육시설	47	33.8
기타	23	16.5

청소년 관련시설이 어떠한 조합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IV-11),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있는 사례가 23.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있는 경우는 14.4%였다. 이외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시설까지 있는 사례가 10% 정도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는 7.2%였다.

표 IV-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근 청소년이용시설 분포 현황

청소년이용시설 분포	빈도	비율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	23.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체육시설	14	1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1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체육시설	10	7.2
기타 조합	63	45.3

앞선 질문에서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은 인근시설 분포 현황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발굴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순위 응답기준으로 살펴본 결과(표 IV-12),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사례가 5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윤철경 외, 2018, 2019)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센터장 FGI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전히 상당비율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초기에 꿈드림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사례 발굴 비율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친구나 선후배 소개를 통한 발굴이 23%였으며,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이용이 7.2%,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이 5.8%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

(단위: 빈도(%))

발굴 경로	1순위	2순위	3순위	1+2+3+4+5순위
학교·교육청을 통해(Wee클래스 등)	76(54.7)	20(14.6)	11(8.1)	121(87.1)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에서	4(2.9)	29(21.2)	16(11.8)	87(62.6)
청소년 쉼터에서	-	-	-	4(2.9)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등)에서	5(3.6)	33(24.1)	29(21.3)	95(68.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	1(0.7)	-	2(1.4)
청소년시설(문화의집, 수련관 등)에서	-	-	2(1.5)	7(5.0)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8(5.8)	9(6.6)	8(5.9)	55(39.6)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10(7.2)	18(13.1)	22(16.2)	82(59.0)
가족의 소개로	1(0.7)	7(5.1)	27(19.9)	70(50.4)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32(23.0)	19(13.9)	21(15.4)	112(80.6)
기타	3(2.2)	1(0.7)	-	7(5.0)
전 체	139	137	136	139



주: 복수응답결과(%)로 기타 값 제외

그림 IV-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복수응답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들에게 주요 발굴 경로를 1~5순위까지 응답한 전체 합계를 살펴보면(복수응답 산출 결과), 그림 IV-1에서 보듯이 역시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경우가 8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및 선후배 소개가 80.6%였다. 다음으로, 경찰/법원/법무부 산하기관 통한 발굴은 68.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발굴이 62.6%,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이용 59%, 가족의 소개 50.4%,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가 ① 학교·교육청, ② 친구/선·후배 소개, ③ 경찰/법원/법무부 산하기관,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⑤ 본인의 자발적 이용과 가족의 소개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4) 센터 서비스 및 지원 내용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 우선순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표 IV-13), 응답 기관 80.6%가 학습지원을 가장 1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원 영역은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51.1%)이었으며, 3순위로는 활동지원(36.7%)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28.1%) 순이었다.

표 IV-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영역 순위

(단위: 빈도(%))

지원 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1) 학습 지원	112(80.6)	18(12.9)	6(4.3)
2)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12(8.6)	71(51.1)	35(25.2)
3) 건강/상담 등 복지 지원	4(2.9)	22(15.8)	39(28.1)
4) 경제적 지원	2(1.4)	5(3.6)	8(5.8)
5) 활동 지원	9(6.5)	23(16.5)	51(36.7)
전 체	139(100.0)	139(100.0)	139(100.0)

② 지원항목별 제공 여부

각 지원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업 항목들을 제시하고 ‘직접지원’, ‘연계지원’을 구분하여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먼저 직접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지원’ 영역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직접지원이 95.7%로, 조사 참여 센터 대부분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학습지원 영역 내에서 그 다음으로는 대학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학습·진로 지원 멘토가 동일하게 78.4%, 복교 절차 안내 등의 복교 지원이 64.7%였으며 수능준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59%로 나타났다.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항목별 제공여부

(단위: 빈도(%))

영역	항 목	제공여부 빈도(%)			전체
		직접지원	연계지원	지원안함 ^{주)}	
1. 학습 지원	1)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90(64.7)	44(31.7)	5(3.6)	139(100.0)
	2) 검정고시 준비 지원	133(95.7)	5(3.6)	1(0.7)	139(100.0)
	3) 대학 진학 지원(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109(78.4)	29(20.9)	1(0.7)	139(100.0)
	4) 수능준비 지원	82(59.0)	42(30.2)	15(10.8)	139(100.0)
	5)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109(78.4)	27(19.4)	3(2.2)	139(100.0)
2.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6)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110(79.1)	27(19.4)	2(1.4)	139(100.0)
	7)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61(43.9)	62(44.6)	16(11.5)	139(100.0)
	8)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60(43.2)	78(56.1)	1(0.7)	139(100.0)
	9)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99(71.2)	38(27.3)	2(1.4)	139(100.0)
	10)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25(18.0)	86(61.9)	28(20.1)	139(100.0)
	11) 학력취득/직업훈련 병행 지역사회 작업장	22(15.8)	73(52.5)	44(31.7)	139(100.0)
3. 건강/상담 등 복지 지원	12) 급식지원	124(89.2)	11(7.9)	4(2.9)	139(100.0)
	13) 건강검진	97(69.8)	41(29.5)	1(0.7)	139(100.0)
	14) 각종 질병 치료	39(28.1)	91(65.5)	9(6.5)	139(100.0)
	15) 각종 고민 상담	120(86.3)	18(12.9)	1(0.7)	139(100.0)
	16)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보호	53(38.1)	79(56.8)	7(5.0)	139(100.0)
	17) 자산관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71(51.1)	36(25.9)	32(23.0)	139(100.0)
4. 경제 적 지원	18) 기초생활비 지원	37(26.6)	65(46.8)	37(26.6)	139(100.0)
	19) 용돈 지원	6(4.3)	35(25.2)	98(70.5)	139(100.0)
	20) 검정고시 학원비	47(33.8)	38(27.3)	54(38.8)	139(100.0)
	21) 취업준비 학원비	51(36.7)	46(33.1)	42(30.2)	139(100.0)
	22) 주거 지원(주거비, 공유 주택 등)	4(2.9)	62(44.6)	73(52.5)	139(100.0)
	23) 교통비 지원	75(54.0)	37(26.6)	27(19.4)	139(100.0)
5. 활동 지원	24) 체육 활동 지원	80(57.6)	36(25.9)	23(16.5)	139(100.0)
	25) 문화예술(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104(74.8)	24(17.3)	11(7.9)	139(100.0)
	26) 모임, 휴식, 놀이 위한 자유공간 제공	99(71.2)	20(14.4)	20(14.4)	139(100.0)

주: 검정고시 지원,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사항,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건강검진, 각종 고민 상담 중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이러한 직접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시·도센터 사례 응답도 포함되어 있음.

학습지원외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직접지원을 보인 지원 항목은 ‘건강/상담 등 복지 지원’ 영역 중 급식지원(89.2%)과 각종 고민 상담(86.3%)이었으며, 다음으로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영역 중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79.2%)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71.2%)순이었다. 그리고 ‘활동지원’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74.8%)과 모임/휴식/놀이 등을 위한 자유공간 제공(71.2%) 등이 비교적 높은 직접 지원 비율을 보였다. 직접지원 비율이 낮은 항목들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18.0%)와 학력취득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작업장 지원(15.8%)이었는데, 이 항목들의 경우는 연계지원 비율이 각각 61.9%, 52.5%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직접지원인 낮은 용돈 지원(4.3%)과 주거 지원(2.9%)의 경우는 연계 지원의 비율은 좀 더 높았으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훨씬 더 많았다.

연계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영역에서 연계 지원 비율이 높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61.9%),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56.1%), 학력 취득/작업훈련 병행 지역사회 작업장(52.5%), 직업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44.6%) 등 대부분 직업체험 및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각종 질병 치료(65.5%), 근로 중 피해 보호(56.8%)와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기초생활비 지원(46.8%), 주거지원(44.6%) 등도 연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은 주로 ‘경제적 지원’ 영역에 해당되었는데, 용돈지원(70.5%), 주거지원(52.5%), 검정고시 학원비(38.8%), 취업준비 학원비(30.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진로·직업 및 취업 지원’ 영역에서 학력취득/직업훈련 병행 지역사회 사업장(31.7%),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20.1%) 등도 지원하지 않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③ 지원하지 못하는 항목과 그 이유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지원하지 못한 이유를 유사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빈도를 산출함으로써 주로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으로 해당 지원을 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도센터여서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제외한 각 항목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와 빈도는 표 IV-15와 같다.

전반적으로 예산 및 인력부족의 이유로 언급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특히 기초생활비와 용돈 지원, 주거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든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예산부족보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일부 청소년특별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범위와 확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의 경우 점점 각 지자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3개소에서 나타났다.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항목은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직업/취업관련 내용들이었는데, 이 경우 연계할 기관이나 작업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학력 취득/직업훈련 병행이 가능한 지역사회 작업장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지역 내 연계 작업장이 부족이 31개소의 응답에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연계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답한 곳이 14군데나 되었다.

사업에 따라, 또 해당 지역의 청소년 특성에 따라 청소년 수요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없어도 필요한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례로, 자산관리에 대한 청소년의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이 경우 경제교육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체육활동 역시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체육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임, 휴식, 놀이 등을 위한 자유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독립·전용 공간 부족을 응답한 센터가 20개소 정도 나타나 여전히 전용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V-15. 미 지원 항목과 그 이유

지원 항목 ¹⁾	빈도 ²⁾	이유(빈도)
1)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4	각 학교마다 절차 상이(2), 학교 및 교육청으로 안내·연계함(2)
3) 대학 진학 지원(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1	광역센터의 진학지원 서비스로 연계(1)
4) 수능준비 지원	14	수요 및 대상자 부족(7), 검정고시 위주의 서비스 자원(4) 인력부족(2), 수능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상의 한계(1)
5)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	대학 진학 후 꿈드림 센터 소속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함(1), 센터까지 거리가 멀어 멘토 지원이 없음(1)
7)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15	인턴십 연계 기관 부족(5), 청소년의 수요 부족(3), 예산부족(2) 인력부족(2), 학교 밖 청소년 연령이 낮은 편임(1), 인턴십 연계 기관에서의 부정적 인식(1), 사업 안정화 후 내년부터 지원 예정(1)
8)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업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1)
10)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23	일자리 연계 기관 부족(14), 예산부족(2), 인력부족(2), 청소년의 수요 부족(1), 양질의 일자리 부족(1), 연계 가능 기관이 청소년 욕구와 맞지 않음(1), 지역사회 관심 부족(1), 일자리는 청소년이 직접 찾도록 권유함(1)
11) 학력 취득/직업훈련 병행 가능한 지역사회 작업장	43	지역 내 연계 작업장 부족(31), 청소년의 수요 부족(5),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4), 작업장 연계 사업 추진 예정(2), 인력부족(1)
12) 급식지원	2	예산 부족(1), 급식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 없음(1)
14) 각종 질병 치료	4	예산 부족(2), 질병 치료 가능 병원을 안내하되, 직접 지원하지 않음(2)
16) 근로 중 피해에 대한 보호	4	현재까지 근로 중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음(4)
17) 자산관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28	청소년의 수요 부족(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12), 별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4), 단회기성 경제교육만 제공함(3), 교육 연계 기관 부족(2), 사업 추진 예정(2), 서비스 항목에 포함하기 어렵고,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1), 정보 부족(1), 실무자 역량 부족(1), 예산 부족(1), 인력 부족(1)
18) 기초생활비 지원	35	예산 부족(14), 현금 지원 가능 근거 없음(5), 직접지원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직접 지원을 지양함(3), 교통비, 급식/간식, 물품 지원 등으로 대체(4), 관할 지자체 지원과 중복(3), 서비스 지원 대상 없음(3), 지자체, 타기관 등으로 연계(특별지원 포함)(3), 직접 지원비로만 지원 가능(1)

지원 항목 ¹⁾	빈도 ²⁾	이유(빈도)
19) 용돈 지원	94	현금 직접 지원 가능 근거 없음(33),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26), 교통비, 식비, 학원비, 치료비 지원 등으로 대체(9), 지자체, 타기관 등으로 연계(특별지원 포함)(8), 서비스 지원 대상 없음(5), 관련 사업 계획 없음(3), 직접 지원 대신 관련 직업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3), 직접지원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직접 지원을 지양함(3),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 부족(2), 지자체의 부정적 인식(1), 센터에서의 지원과 중복(1)
20) 검정고시 학원비	50	검정고시 준비를 센터에서 직접 지원함(멘토를 통한 학습 지원 포함)(31),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9), 지역 내 검정고시 학원이 없음(5), 지자체, 타기관 등으로 연계(인터넷 강의 포함)(2), 지자체에서의 지원과 중복(1), 청소년의 수요 부족(1),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부족(1)
21) 취업준비 학원비	38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11),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과 중복(7), 지자체, 타기관 및 부처 등으로 연계(6), 청소년의 수요 부족(4),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대체(2), 특수한 상황에서만 직접 지원함(2), 지역 내 연계 기관 부족(1),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부족(1), 직접 지원비로만 지원 가능(1), 관련 사업 계획 없음(1)
22) 주거 지원(주거비, 공유 주택 등)	66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27), 청소년의 수요 부족(15), 주거 지원 근거 부족(11), 지자체, 타 기관에서의 지원과 중복(6),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쉼터로 연계(3), 관련 사업 계획 없음(2), 학원비, 치료비 지원 등으로 대체(1), 인력 부족(1), 시·도센터(2)
23) 교통비 지원	23	예산 부족(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13),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사업 추진 예정(2), 직접지원비 운영의 어려움(1), 차량 운행과 중복되어 지원 불가(1), 청소년의 수요 부족(1), 지자체의 지원과 중복(1), 지자체의 부정적 인식(1), 인력 부족(1), 관련 사업 계획 없음(1), 구획의 안전으로 논의 후, 직접 지원(용돈)으로 대체함(1)
24) 체육 활동 지원	21	청소년의 수요 부족(10),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2), 예산 부족/미 책정(3), 체력 측정은 지원하나, 구체적인 체육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1), 직접지원비에 해당되지 않음(2), 직접지원원은 소규모로만 운영하고 있음(1), 체육 활동을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음(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사설 부족(1)
25)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5), 청소년의 수요 부족(2) 관련 사업 계획 없음(1), 예산 부족(1)
26) 모임, 휴식, 놀이 등을 위한 자유공간 제공	21	자유공간 제공을 위한 독립·전용 공간 부족(20), 예산 부족(1)

주 1) 시·도센터에서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전부인 검정고시 지원,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사항,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건강검진, 각종 고민 상담 내용은 삭제함.

2) 시·도센터이기 때문에 직접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는 빈도수에서 제외하였음.

(5) 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① 운영 애로사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이나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IV-16),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꿈드림 운영관련 문제점은 종사자 처우 문제(51.1%)였으며, 그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21.6%), 센터 내 인력 충원(14.4%),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와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합친 65.5%정도의 응답률은 결국 현재 꿈드림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현장종사자, 인력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 2, 3순위의 복수 응답을 산출한 결과에서도(표 IV-16) 종사자 처우 문제가 89.2%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센터 내 인력충원이 58.3%였다. 종사자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 발굴(51.1%)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48.9%)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 역시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애로사항, 긴급 해결사항 (복수응답)

(단위: 빈도(%))

애로사항/해결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30(21.6)	19(13.7)	22(15.8)	71(51.1)
2) 학교 및 교육청의 협조	1(0.7)	7(5.0)	14(10.1)	22(15.8)
3) 중앙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11(7.9)	16(11.5)	41(29.5)	68(48.9)
4) 센터 내 인력 충원	20(14.4)	45(32.4)	16(11.5)	81(58.3)
5) 종사자 처우 문제	71(51.1)	33(23.7)	20(14.4)	124(89.2)
6) 운영 예산 부족	2(1.4)	16(11.5)	20(14.4)	38(27.3)
7) 기타	4(2.9)	3(2.2)	6(4.3)	13(9.4)
전 체	139	139	139	139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전반적 인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개소 수, 센터 인력·시설·예산, 지자체·지역사회 연계, 서비스/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현장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긍정응답률(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인 항목은 역시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는 내용으로 95.7%의 응답자가 긍정 응답하였으며(그림 IV-2), 이는 앞선 질문에서 센터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종사자 처우를 1순위로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주: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률(%) 기준

그림 IV-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인식

그 다음으로는 지역규모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내용의 차별화 필요성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시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90%가 넘게 나타났다. 또한,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는 항목과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조사항목 역시 80%가 넘는 매우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의 필요성도 거의 80%에 달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련 인식

(단위: 빈도(%))

영역	항목	부정응답	긍정응답	전체사례수
센터 수	1)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개소수)가 충분하다.	29(20.9)	110(79.1)	139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	12(8.6)	127(91.4)	139
인력, 시설, 예산	3) 센터 내 현재 인원 배치 기준이 적절하다	104(74.8)	35(25.2)	139
	4) 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37(26.6)	102(73.4)	139
	5)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6(4.3)	133(95.7)	139
	6)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31(22.3)	108(77.7)	139
	7)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45(32.4)	94(67.6)	139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	8)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21(15.1)	118(84.9)	139
	9) 유관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하다	33(23.7)	106(76.3)	139
	10)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63(45.3)	76(54.7)	139
	11)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가 부족하다	47(33.8)	92(66.2)	139
	12)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이 부족하다	66(47.5)	73(52.5)	139
서비스/프로그램 제공관련	13) 청소년 안전망(CYS-Net)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도움을 준다	28(20.1)	111(79.9)	139
	14)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28(20.1)	111(79.9)	139
	15) 기초지자체(지역사회 내)수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기능별로 특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43(30.9)	96(69.1)	139
	16)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내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11(7.9)	128(92.1)	139
	17) 평일 야간시간(18~20시), 주말 운영이 필요하다	88(63.3)	51(36.7)	139
	18)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20(14.4)	119(85.6)	139

80%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 조사항목 중 종사자 처우와 중앙부처의 지원 부족에 대한 내용은 매우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꿈드림 운영과 관련한, 즉 센터 간 서비스 질 격차에 대한 인식과 지역규모를 고려한 지원 내용의 차별화 필요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에서의 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꿈드림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 센터 수/인프라 관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수 및 인프라와 관련된 인식 조사결과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평균값 기준)(표 IV-18),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조사항목들이 있었다.

표 IV-1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센터 수/인프라 관련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항목	전체	시설유형			t	설립주체			t	지역규모			F (Scheffé)
		시·도	시군구			공공	법인/ 기타			대도시 ^a	중소 도시 ^b	읍면 지역 ^c	
1)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개소수) 가 충분하다.	2.94 (0.744)	3.08 (1.038)	2.92 (0.711)	0.530		2.91 (0.648)	2.95 (0.786)	-0.299		2.86 (0.833)	2.97 (0.718)	3.00 (0.643)	0.416
2)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설립·운영은 각 지역 특성을 고 려, 재조정 필요	3.42 (0.648)	3.54 (0.519)	3.41 (0.661)	0.665		3.47 (0.592)	3.41 (0.674)	0.494		3.54 (0.613)	3.49 (0.598)	3.10 (0.712)	5.165** (a,b,c)
3) 센터 내 현 인원 배 치 기준이 적절함.	1.86 (0.813)	1.77 (0.927)	1.87 (0.804)	-0.404		1.88 (0.905)	1.84 (0.772)	0.251		1.48 (0.614)	1.93 (0.828)	2.33 (0.802)	12.602*** (b,c)a)
4) 센터 내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전문 인 력 부족	3.09 (0.821)	2.92 (0.862)	3.10 (0.818)	-0.752		3.07 (0.884)	3.09 (0.796)	-0.159		3.3 (0.839)	3.05 (0.818)	2.8 (0.714)	3.716* (a)c)
5)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음	3.65 (0.563)	3.69 (0.63)	3.64 (0.558)	0.301		3.63 (0.578)	3.66 (0.559)	-0.273		3.76 (0.476)	3.64 (0.58)	3.47 (0.629)	2.607
6) 기관 내 시설(인프 라)이 미흡	3.06 (0.773)	2.69 (0.63)	3.10 (0.778)	-1.841		3.23 (0.751)	2.99 (0.775)	1.726		3.08 (0.804)	3.07 (0.807)	3.03 (0.669)	0.034
7) 운영 예산이 부족	2.88 (0.852)	2.92 (0.862)	2.88 (0.854)	0.169		2.84 (0.898)	2.91 (0.834)	-0.44		3.28 (0.64)	2.61 (0.851)	2.77 (0.935)	9.855*** (a)b,c)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꿈드림의 설립·운영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응답이 읍면지역에서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센터 내 현재 인원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청소년인구/학업중단 학생 수 규모가 더 큰 도시일수록 현재 인원 배치 수준이 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센터 내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더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도시 청소년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 역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즉, 이러한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는 지역특성과 청소년 인구 수를 고려하기보다 모든 시·군·구 센터에 일정 예산과 인력이 유사하게 배치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구 수/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특히 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또 지역특성에 따른 꿈드림의 설립·운영의 재조정 필요성에도 많은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④ 꿈드림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한 꿈드림 종사자들의 인식 차이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표 IV-19), 조사항목별로 시설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유관부처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는 대도시 센터가 다른 지역의 센터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에 대해서는 시·도센터보다 시·군·구 센터가,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센터가 다른 지역 센터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시·군·구 센터가 직접지원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도센터보다 청소년발굴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시·군·구센터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IV-1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지자체, 지역사회 연계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지원항목	전체	시설유형			설립주체			지역규모			
		시·도	시군구	t	공공	법인/기타	t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지역 ^c	F (Scheffé)
8) 중앙부처(여성 가족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3.27 (0.75)	3.08 (0.954)	3.29 (0.727)	-0.992	3.23 (0.812)	3.29 (0.724)	-0.428	3.52 (0.646)	3.12 (0.768)	3.17 (0.791)	4.478* (a>b)
9) 유관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하다	3.07 (0.739)	2.85 (0.689)	3.10 (0.742)	-1.159	3.09 (0.781)	3.06 (0.723)	0.224	3.28 (0.757)	3.00 (0.67)	2.87 (0.776)	3.549* (a>c)
10)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2.73 (0.865)	2.62 (0.961)	2.75 (0.857)	-0.517	2.77 (0.922)	2.72 (0.842)	0.306	2.80 (0.926)	2.66 (0.801)	2.77 (0.898)	0.374
11)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가 부족하다	2.87 (0.806)	2.31 (0.855)	2.93 (0.782)	-2.704**	2.91 (0.811)	2.85 (0.808)	0.356	3.12 (0.799)	2.64 (0.737)	2.90 (0.845)	5.019** (a>b)
12)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이 부족하다	2.68 (0.801)	2.23 (0.599)	2.72 (0.806)	-2.715*	2.77 (0.841)	2.64 (0.783)	0.898	2.68 (0.741)	2.59 (0.812)	2.83 (0.874)	0.894
13) 청소년 안전망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도움을 준다	3.02 (0.775)	3.00 (0.707)	3.02 (0.784)	-0.105	2.91 (0.947)	3.07 (0.684)	-1.035	2.92 (0.853)	3.03 (0.669)	3.17 (0.834)	0.962

* $p < .05$, ** $p < .01$, *** $p < .001$

⑤ 꿈드림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꿈드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V-20). 평일 야간시간(18~20시) 및 주말 운영에 대해서 대도시의 센터가 다른 지역 센터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역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시·도센터가 시·군·구센터보다 더 질적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서와 중소도시의 센터가 읍면지역보다 질적 차이를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 내역, 인력의 전문성 등 지역 내 인프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IV-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_서비스/프로그램 제공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항목	전체	시설유형			설립주체			지역규모			
		시·도	시군구	t	공공	법인/ 기타	t	대도시 ^a	중소 도시 ^b	읍면 지역 ^c	F (Scheffé)
14)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거점시 설이 필요하다	3.18 (0.836)	3.15 (1.068)	3.18 (0.814)	-0.117	3.14 (0.941)	3.20 (0.79)	-0.379	3.26 (0.803)	3.25 (0.843)	2.90 (0.845)	2.18
15) 기초지자체수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 터가 기능별로 특화, 운영될 필요가 있다	2.90 (0.973)	2.85 (0.801)	2.90 (0.991)	-0.206	2.93 (1.078)	2.89 (0.928)	0.236	3.14 (0.857)	2.80 (1.013)	2.70 (1.022)	2.545
16)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서비스 자원 내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3.39 (0.676)	3.46 (0.877)	3.38 (0.656)	0.408	3.47 (0.702)	3.35 (0.665)	0.894	3.44 (0.644)	3.44 (0.702)	3.20 (0.664)	1.499
17) 평일 야간시간(18~ 20시), 주말 운영이 필요하다	2.18 (0.853)	2.31 (0.947)	2.17 (0.846)	0.566	2.02 (0.938)	2.25 (0.808)	-1.454	2.46 (0.762)	2.00 (0.928)	2.07 (0.74)	4.484* (a,b)
18) 센터 간 서비스 질 에 차이가 있다	3.19 (0.711)	3.69 (0.48)	3.14 (0.712)	2.713**	3.21 (0.773)	3.19 (0.685)	0.167	3.30 (0.58)	3.29 (0.72)	2.83 (0.791)	5.236**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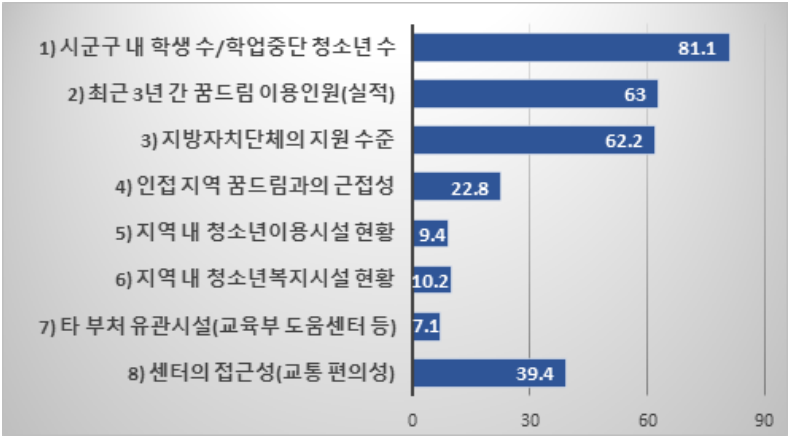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6) 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①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 시 고려 항목

앞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 중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은 각 지역 특성(학업중단 청소년 수, 지자체 지원 수준, 인근 청소년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조사 참여자들에게 추가 질문하였다. 꿈드림의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3개 항목을 선택하여 우선순위 조사한 결과(그림 IV-3), 복수응답 값을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8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63.0%),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62.2%) 등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의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이외에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센터의 접근성”(39.4%), “인접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근접성(교통 편의성)”(22.8%), “지역 내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센터 등) 현황”(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1, 2, 3순위 응답을 합친 복수응답 값 기준(%), 기타 값 제외

그림 IV-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재조정 위한 고려 항목

1순위 기준으로 살펴봐도 역시 동일한 순서로 우선순위가 조사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꿈드림 현장 종사자들은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서 ①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②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③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의 다른 꿈드림이나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타 부처 유관시설 현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IV-21).

표 IV-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들

(단위: 빈도(%))

고려해야 할 항목들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1)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58(45.7)	30(23.8)	15(12.2)	103(81.1)
2)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26(20.5)	31(24.6)	23(18.7)	80(63.0)
3) 지자체 지원 수준	21(16.5)	26(20.6)	32(26.0)	79(62.2)
4) 인접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근접성	6(4.7)	9(7.1)	14(11.4)	29(22.8)
5) 지역 내 청소년이용시설 현황(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2(1.6)	3(2.4)	7(5.7)	12(9.4)
6) 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청소년쉼터, 자립지원센터 등)	-	7(5.6)	6(4.9)	13(10.2)
7) 타 부처 유관시설 현황(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법무부 청소년자립생활관)	-	5(4.0)	4(3.3)	9(7.1)
8) 센터의 접근성(교통 편의성)	14(11.0)	14(11.1)	22(17.9)	50(39.4)
9) 기타	-	1(0.8)	-	1(0.8)
전 체	127	126	123	127

② 거점시설 설치 기준 및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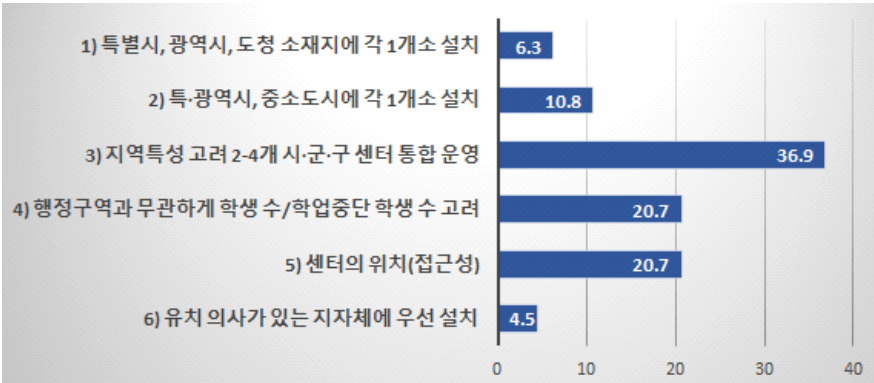
앞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 중 “14)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항목에 대해 긍정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경우 추가 질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이 설치되기 위한 그 기준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설치 기준

먼저 설치 기준으로 표 IV-22와 같이 여러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1개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시·도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4개 시·군·구 센터 통합 운영” 이 3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사 참여자들이 새로운 거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군·구 기초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학생 수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설치”

와 “센터의 위치(접근성)”가 동일하게 20.7%로 나타났다. 이외에 “특·광역시, 중소도시”에 각 1개소 설치”가 10.8%,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각 1개소 설치” 등 행정구역에 따른 일괄설치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낮았다. 또 “유치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 설치” 역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 설치 기준으로 한 개 항목만 선택(%)

그림 IV-4. 거점시설 설치 기준 조사 결과

표 IV-22.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 기준

고려해야 할 항목들	빈도	비율
1)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각 1개소 설치	7	6.3
2) 특·광역시, 중소도시에서 각 1개소 설치	12	10.8
3) 시·도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4개 시·군·구 센터 통합 운영	41	36.9
4)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학생 수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설치	23	20.7
5) 센터의 위치(접근성)	23	20.7
6) 유치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 설치	5	4.5
전 체	111	100.0

나. 거점시설 주요 역할

이러한 거점시설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도 표 IV-23과 같이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조사하였다. 복수응답기준으로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학원, 작업장 등)과의 협력 및 연계”가 6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서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자원 연결”(55.9%), “학교 밖 청소년 발굴(교육청·학교, 주민자치센터, 쉼터 등 연계, 아웃리치 등)”(55.0%), “학업/취업/취미활동/상담치료/자립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문/심층적으로 제공”(54.1%) 등의 항목들이 50%가 넘는 비슷한 수준에서 거점시설의 주요 역할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는 33.3%, “특수한 환경(다문화, 새터민 가정, 경계성 지능 저하 등의 문제)의 청소년 종합 지원”은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 거점시설 주요 역할 1, 2, 3순위 합한 복수응답(%), 기타 값 제외

그림 IV-5. 거점시설 주요 역할(복수응답)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표 IV-23),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30.6%, 정부 및 지자체, 민간 자원 연결이 25.2%, 학업/취업/취미/상담/자립 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전문/심층 지원이 19.8%,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

의 협력 및 연계가 13.5%로 나타나 복수응답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네 개의 항목 모두가 50%가 넘는 복수 응답률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조사에 참여한 현장종사자들은 거점시설의 주요 역할을 이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표 IV-23.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주요 역할 (복수응답)

(단위: 빈도(%))

고려해야 할 항목들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교육청·학교, 주민자치센터, 쉼터 등 연계, 아웃리치 등)	34(30.6)	12(11.1)	15(13.9)	61(55.0)
2)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자원 연결	28(25.2)	21(19.4)	13(12.0)	62(55.9)
3)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학원, 작업장 등)과의 협력 및 연계	15(13.5)	36(33.3)	24(22.2)	75(67.6)
4) 학업/취업/취미활동/상담치료/자립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문/심층적으로 제공	22(19.8)	19(17.6)	19(17.6)	60(54.1)
5) 특수한 환경(다문화, 새터민 가정, 경계성 지능 저하 등의 문제)의 청소년 종합 지원	2(1.8)	10(9.3)	18(16.7)	30(27.0)
6)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8(7.2)	10(9.3)	19(17.6)	37(33.3)
7) 기타	2(1.8)	-	-	2(1.8)
전 체	111	108	108	111

(7)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조사에 참여한 현장종사자들에게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중앙 ↔ 시·도 ↔ 시·군·구 센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①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

먼저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어떠한지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실무자의 59%가 의견을 제시하였다(의견이 없다는 응답자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5.1%). 의견이 있다고 한 59%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개방형 응답을 범주화하여 구분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은 크게 1) 유관 부처와의 협업 및 주도적 역할, 2) 조직체계 및 평가 등 제도적 측면, 3) 인프라 관련(인력/공간 등), 4)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5) 현장 의견 수렴/반영, 6)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표 IV-24.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역할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구분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역할
유관 부처와의 협업 및 주도적 역할	-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주도적 역할 - 개인정보보호에 우선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위한 노력 필요(연계는 필수/참여는 청소년의 선택)
제도적 측면	- 조직체계 정비: 독립기관으로서 꿈드림만을 위한 상근 센터장 필요 - 다양한 정량, 정성방식의 성과 측정 방안 마련 필요
인프라 관련 (인력/공간 등)	-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 충원 - 인건비 지급 기준 지침 마련 - 종사자 근속을 위한 종사자 임금 수준 개선 - 고용 안정 유지 - 독립된 공간 및 시설 확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센터 간 격차 방지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매뉴얼 개발
현장 의견 수렴/반영	- 현장 방문 및 실질적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 정책 수립 및 평가 추진 시 현장 의견 반영 필요, 이를 위한 실무자 의견 수렴
인식 개선/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수행

각 범주별로 좀 더 살펴보면, 현장실무자들은 유관부처와의 협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이러한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가 꿈드림에 연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COVID-19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우선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도움

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필수로 할 수 있도록(꿈드림 사업 참여 여부는 청소년의 선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행과 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단독조직으로의 꿈드림의 독립과 전담 상근 센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실적 압박이 너무 큼에 따른 종사자의 소진 문제와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실적평가 방식 대신 다양한 정량/정성 평가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력 및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 관련 의견들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충원 방안 마련, 인건비 지급 기준 지침 마련, 종사자 근속을 위한 종사자 임금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 독립된 공간 및 시설확보를 위한 역할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담당해주길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센터 간 격차 방지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매뉴얼 개발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현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수 거론되었다. 정책 수립 및 평가 추진 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 중앙지원기관, 시·도센터의 주요 기능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63.3%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이 없다고 한 실무자는 2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였다. 시·도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현장실

무자인 66.9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범주화하여 구분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중앙지원기관과 시·도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구분	중앙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센터
꿈드림 지원 역할	- 운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 전국 센터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시·군·구 센터 기능에 따른 업무 조율 - 시·도/시·군·구 센터와의 적극적 협력과 위기 및 고충 발생 시 빠른 개입과 피드백	-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 지원 -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 -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 - 모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 -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행정 허브 역할, 전달 체계 공문으로 일원화 등)
정부 부처(지자체 등)와의 연계 역할	- 시·도센터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여성가족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 현장 의견 취합 및 중앙부처 전달/설득 - 현장(군 단위 지역 등) 고충 전달 필요	- 중앙지원기관(상담복지개발원)과 시·군·구 센터 연계 - 적극적인 시·군·구 센터 의견 수렴 및 전달 - 지자체와의 협력/예산 지원 위한 노력
조직체계 관련	- 꿈드림을 독립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틀랜 마련	- 성격이 전혀 다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분리 노력
인력관련	- 실무자 역량강화/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연수 강화 - 실무자 처우 개선 노력 - 실무자 소진 방지 및 지원방안 마련	- 직원 역량 강화 - 실무자 처우 개선 노력 - 시·군·구 센터 종사자 소진 방지
서비스/ 프로그램	- 매뉴얼/프로그램 재정비와 업데이트 - 청소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교육자료 개발 - 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발 - 도시/농어촌 등 지역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요구에 부합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시·군·구 센터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편적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위해) - 센터 간 서비스 편차 축소 노력
자원 연계	- 외부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의 자원 연계 및 개발 강화(인턴십 개발, 후원처 발굴 및 연계 등)
평가 및 실적 관리 관련	- 평가 기준 재정비 및 합리적 실적관리: 지역의 발생인원수 대비 등 합리적 방안 마련 - 정량, 정성 방법 등 고려	- 합리적/공정한 실적 관리 필요
인식 개선 및 청소년 발굴	- 중앙지원기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꿈드림 인지도 확대	- 시·도차원에서 청소년 발굴 노력과 홍보 필요

먼저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중 꿈드림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써, 센터의 운영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의 컨설팅

과 전국 센터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시·군·구 센터 기능에 따른 업무 조율, 그리고 시·도센터 및 시·군·구 센터와의 협력과 고충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여성가족부)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여 현장의 고충을 잘 전달하고, 꿈드림이 독립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뿐 아니라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하였다. 또한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요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외부 민간 자원의 개발 및 연계를 주요 기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평가 방식 준용(정량, 정성 방법 등 고려) 및 실적관리 체계(지역의 학업중단 발생 인원수 대비 등)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중앙지원기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꿈드림 사업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시·도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군·구 센터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시·군·구 센터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시·군·구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연합 사업으로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중앙지원기관과 시·군·구센터와의 연계, 시·군·구 센터의 의견수렴 및 전달에 보다 적극적이길 기대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지원기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을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도센터 역시 시·군·구센터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노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였고, 청소년 요구에 부합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외에 센터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 및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함께 언급되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실적 관리와 시·도차원에서의 청소년 발굴 노력 및 홍보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8)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의 역할/기능의 재분배에 대한 의견

현재 꿈드림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의견들을 정리하여 범주화한 결과, 크게 유형 구분 재조정,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 센터별 특성화,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 센터 통폐합 등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IV-26과 같다.

표 IV-26. 꿈드림 역할/기능 재분배에 대한 꿈드림 실무자의 의견

구분	센터의 역할/기능 재분배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 재조정	- 가, 나, 다로 나누어진 센터 구분이 아닌 인구수, 학교 밖 청소년 수, 규모, 기능에 따른 재조정 필요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 및 도시 규모(지역 면적), 인근 이용 시설을 등 고려하여 센터 규모 세분화하여 설치, 운영(대도시 vs 군단위)
센터별 특성화	- 공통된 기초적 역할과 기능 외에 센터별 특화 기능 추가(학교 밖 청소년 인구 수, 센터의 지리적 여건, 인근 이용시설 등 고려) • 학습지원 중심 센터, 직업/자격취득 등 취업 특성화 센터, 자립지원 센터, 문화특성화 센터 • 다문화, 경계성 지능, 비행, 후기 청소년 특화 센터
통합거점센터 운영배치	- '가'형 센터는 주변 센터의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프로그램 조정/연계 역할 수행 -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 밀집지역에 거점 센터 설치 필요 - 개별 센터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역량, 기술 훈련 등 큰 규모의 사업 또는 통합된 종합서비스는 거점시설에서 수행 - 도 단위는 동부권 서부권과 같은 형태로 권역별 센터가 더 필요, 이 경우 기초지자체에는 분소 설치
센터 통·폐합 운영	- 인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예, 다형 3개 센터 통합 등) - 청소년 수/학교 밖 청소년 발생 수를 고려한 시·군·구 센터 통폐합 필요

먼저 현재의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하는 센터유형구분보다는 인구 수, 학교 밖 청소년 수,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꿈드림 설치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종사자들은 동일한 유형의 센터일 경우 지역규모와 학생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동일하다는 문제와 실제로 지원한

학교 밖 청소년 수와 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과 지역규모(면적) 및 인근 이용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특히 대도시와 군 단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에 차등이 있어야 함을 시사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수가 많은 곳은 실무자가 지원해야 할 청소년 수가 훨씬 많음에 따라 소진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실무자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센터별 특성화’와 ‘통합거점 센터의 운영·배치’에 대한 내용이었다. ‘센터별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통된 기초적 역할(예, 검정고시 등)을 수행하는 기능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수, 센터의 지리적 여건, 인근 이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특화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은 학습지원 중심 센터, 직업/자격취득 등 취업 특성화 센터, 자립지원 센터, 문화특성화 센터 등으로 센터의 특화/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즉 다문화, 경제성 지능, 비행, 후기 청소년 등 지원대상자 특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의견이 많이 제시된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 첫째 먼저 기존의 ‘가형’ 센터를 거점센터로 하여 주변 센터의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프로그램의 조정/연계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 밀집지역에 거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거점 시설의 역할로써 개별 센터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술 훈련 등 큰 규모의 사업이나 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특·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 동부권, 서부권과 같은 형태로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여 통합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 경우 기초지자체에는 분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 수/학교 밖 청소년 발생 수를 고려한 시·군·구

센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인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일례로 다형 센터 3개를 통합한다고 하면 실제 현장실무자가 6명이 되면서 업무 분장과 함께 개별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존 꿈드림의 역할 및 기능의 재분배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차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적다고 해도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 꿈드림 운영이 축소되거나 타 지역 꿈드림과 통합 운영 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청소년의 수가 적고 또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도 소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이나 센터 수 및 배치 등에서의 재조정 발생 시 고용 승계 등 현장실무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필수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2. 초점집단인터뷰(FGI)

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은 시·도 센터와 시·군·구센터로 구분하여 총 2회에 걸쳐, 2020년 11월 9일(시·군·구센터)과 16일(시·도센터)에 실시하였다¹⁰⁾. 면접 실시에 앞서 전국 각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협의 지역을 서울, 경기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나누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센터장들이 골고루 섭외되도록 노력하였다. 각 지역 내 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임의로 한 기관을 먼저 접촉하였고 그 곳에서 면접을 거절할 경우 다시 임의로 다른 기관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섭외하였다. 그 결과 시·도센터에서 5명의 센터장과 시·군·구센터에서 5명의 센터장이 면접에 참여하였는데 시·도센터는 2개의 광역시와 4개의 도 단위에, 시·군·구센터는 충북(읍면지역), 전북(읍면지역), 경기(중소도시), 대전, 부산에 위치한 센터의 센터장들이 참여하였다(표 IV-27).

FGI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전달체계, 센터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표 IV-28). FGI는 약 1시간 30분~2시간에 걸쳐 연구진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시작 전에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전 과정이 녹음되었다. 이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전사 자료를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적절한 분석과정을 거쳤는지, 도출된 내용이 자료에 근거에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10) FGI를 실시할 당시 COVID-19 방역단계는 1단계 수준이었다. 필요한 방역조치(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를 모두 수행하였고, 투명 칸막이로 구분된 장소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수 대비 넓은 회의 장소에서 FGI를 수행하였다.

표 IV-27.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현황

시·군·구센터	지역	시·도센터	지역 규모
A	읍면	F	특·광역시
B	도시	G	중부 도 지역
C	도시	H	남부 도 지역
D	도시	I	특·광역시
E	읍면	J	중부 도 지역

표 IV-2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대상 FGI 주요 내용

구분	조사내용
기관소개	- 근무 지역의 특성과 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운영현황	- 센터 공간 및 인력, 서비스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연계시설 및 기관 관련 등
향후 개선방안	- 향후 센터의 위치/수 조정에 대한 생각 - 시·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거점시설에 대한 의견 -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 기타 향후 개선방안

2) FGI 결과

(1) 지역별 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서의 차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읍면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 내에는 청소년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아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경우는 학업능력이 다소 부족한 인근 도시의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내 학교로 진학하여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 되었다.

(A지역 같은 경우는 △△ 인접 도시예요. 15분 정도 걸리는 도시인데 저희 A지역만 놓고 보면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인근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업중단율도 높고 산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중략) 나머지 부분은 거의 띄엄띄엄 있는데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군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 학교밖 센터라고 있지만 1년에 3, 4명 발생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A 시·군·구)

처음에는 이게 D지역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2, 3명, 1명도 없을 때가 있다 보니까... (중략) 시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발생해도 대도시권으로 가지 시골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구책으로 찾은 게 ○○, ◇◇(인근 읍면 지역) 전부 다 흡입해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D 시·군·구)

외지에 속하는 읍면지역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이 넓게 퍼져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청소년들의 시설 방문이 쉽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들이 센터로 오는 대신 종사자들이 청소년의 거주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아 그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사실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 쪽에서도 아마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후발적으로 거점지역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 ◇◇(인근 지역)에 꿈드림 센터가 없다 보니까 ○○, ◇◇에 있는 애들을 다 저희가 계속 출장을 가는 식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출장을 가시면 왕복 거리가) 꽤 되죠. (시간은) 한 번 가면 오전 시간은 다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골 단위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출장을 가면 선생님들이 오전, 오후 시간은 전부 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략) ◇◇으로 많이 가요. (중략) 일주일에 2, 3번은 출장을 가는 것 같아요. (○○, ◇◇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면) 그러면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D 시·군·구)

이러한 읍면 지역 센터는 센터가 없는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지자체 의회에서 예산문제로 반대하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도 ◎◎(인근 지역)이나 이런 쪽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인원을 흡입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왜 하느냐, 그리고 너희 예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군에 있는 예산을 너희가 쓰느냐, 아니다 그래서 군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의회에서,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의회에서 포용을 해줬어요. (D 시·군·구)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생률이 낮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규모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일인당 사례관리 수가 오히려 과중하게 느껴졌다.

작년에 진행 등록된 아이들은 314명,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한 아이들은 180명이예요. (B 시·군·구)

C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발생하는 인원이 (연간) 약 14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도중에 유학 가고 그런 아이들을 빼면 각 센터마다 배정된 실적이 400명씩이예요. (C 시·군·구)

전체 규모는 저희가 학교 밖이 1500명 정도이예요. E시에서 그 중에서 대안학교 이런 데 나가고 유학 가고 전체 400명 정도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성과는 120명 정도 내고 있습니다. (E 시·군·구)

(2) 운영현황

① 운영 공간: 공간 공유로 인한 불편함과 전용 공간의 필요성

센터들은 각기 처한 사정에 따라 개별공간을 사용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다른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우선 다른 시설과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경우는 공간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편견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도센터 시설들이 시·도나 구센터나 간에 환경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문화의집, 수련관이 있으면 크지만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낮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중략) 계속 청소년 욕구조사에서 나오는데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입에서 센터들이 공간이 좋으면 좋겠다고 해요. (중략) 상시 편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I 시·도)

H지역은 시·군·구로 다 내려가면 대부분 청소년 시설들이 청소년센터 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교실에 대해서 1순위는 청소년센터이고 2순위는 상담센터이고 3순위가 학교밖이에요. 쓰기가 어려운 사정이고요. 상담센터마저도 그 시설을 쓰려면 수련관에 행사가 있으면 밀리더라고요. (H 시·도)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련관 프로그램과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D 시·군·구)

학교 밖 지침에 사실 전용 공간 면적 자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대부분 겹해요. 이걸 법만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전혀 안 만들어진 상태라서.. (B 시·군·구)

이와는 달리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센터도 있었는데 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공간을 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예약제나 대여제 등으로 사전에 기관 간 상호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공간 사용의 기준이 상이하여 이 같은 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수련관과 건물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분리해서 사용해서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의 개념은 아니고요. 수련관을 빌리면 돈 내고 대여해서 하고. 그런 식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수련관 내에 차등 두는 센터는 비용 안 내고 그냥 그걸 빌려서 쓰는 개념으로 하려니까 순서 상 뒤로 밀리더라고요. (F 시·도)

지자체에서 시 건물인데 시 건물에 시 산하 기관이 들어왔는데 왜 돈을 내고 교육실 쓰냐? 불가하다 라고 해서. (중략) 지자체마다 달라요. 어떤 구는 된다는데 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미안하고. 오히려 밖에서 대관을 하고 썼는데 공용으로 쓰면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그런 점도 있어요. (I 시·도)

결론적으로 면접 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용공간의 마련은 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쉼터와 휴식공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이용자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자치구는 사정이 구마다 사정이 달라서 전용 공간이 있는 센터가 있고 없는 센터도 있어요. 전용공간 중에서 체육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 계속 자치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략) 체육공간 뿐 아니라 자치구에 따라서는 학습실 같은 꿈드림 전용공간이 더 갖춰지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F 시·도)

학교 밖 아이들이 좀 썩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과 일반적으로 수련관에 오는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중략) 애들 관리 좀 하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중략) 대상자들이 낙인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눈치 보면서 오는 건 아이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중략) 마음껏 편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중략) (아이들 특성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뭐냐 했더니 노래방이나 이런 거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상담, 쉼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E 시·군·구)

진짜 여유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나 휴식공간이 필요하죠. 접근성 좋은 시내 이런 쪽에 학교 밖 애들이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공간이 어떻게 쓰이냐면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아이들 발굴이 제일 어려운데 가장 좋은 건 친구 데려 오라고 얘기하면 친구 데려오면 재밌거든 그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A 시·군·구)

사실 하루 종일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놀다 가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따로 있으니까 편하게 집에서 눈치 보느니 나와서 앉아 있는 느낌이라 분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 시·군·구)

② 인력(종사자):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 수준, 잦은 이직의 문제

센터의 종사자 수는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0: 8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도센터는 5명 이상, 시·군·구센터는 가나다형에 따라 2~4명으로 동일하게 배치되고 있다. 인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인건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이었다.

시군 센터의 직원들 이직율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30~40%는 매년 바뀌고 있다는 게 저희 대부분이고요. (중략) 올해 실제 임금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무원 예상 금액에서 102만원인데 실질소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4대보험이 올라가서. (중략) 여기는 5년이 돼도 10년이 되면서 직원들 전문성은 올라가는데 호봉이나 생활 여건이 계속 정체가 돼서 그거를 아는 순간 그만 두는 직원이 많은 거죠. (G 시·도)

계약직이라서 2년 되면 계약 만료가 돼요. 만료가 돼서 자꾸 바뀌는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력직이 계속 이동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건 경력이 있다고 그 경력을 인정해서 보수를 더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내적인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여 갈 거예요. A센터에서 근무해서 2년 후에 계약 만료해서 다른 센터 가도 여기 있던 2년을 보장 받아서 그 연한을 인정받아서 보수가 올라가면 그런 불만이 줄어들 텐데, 예산의 한정이 있어서 센터마다 그게 어려워요. 계약 만료하고 무기직이든 정규직을 해주려고 해도 예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F 시·도)

지자체에 따라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였다. 또한 높은 이직률과 그에 따른 경험이 없는 신입 직원으로의 잦은 대체는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센터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저희 센터는 전국 17개에서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는 빨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략) 일이 다른 시·도보다 세 배 하는 거잖아요. 장점이 인건비 보전이 돼요. 시 지원이 먼저 있어서. (중략) 인건비 보존이 더 돼요. 대신 사람 하나 더 줘라 하면 너네는 대신 4천 더 준다. 그 돈이면 사람 하나 값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일이 3배인데도. (중략) 시·군·구센터는 1년, 2년.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신규직원을 교육하러 나가잖아요. (이직이 많아서) 한 센터에 몇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신규직원 교육. (I 시·도)

전반적으로 인건비 보존 여부와 상관없이 센터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절대적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면접에 참여한 도시지역의 시·군·구센터는 센터 당 담당 청소년들이 최소 120여 명에서 400명까지였는데 시·군·구센터 종사자 인원이 최대 4명이라고 할 때 종사자 일인당 100여 명의 청소년을 담당해야 한다.

저희 3명이 담당하는 사례수가 1인당 130명씩 돼요. 그래서 130명을 하려니 사실 진짜 이름 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하나 욕구를 찾아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대외활동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신경쇠약 걸리고 많이 힘들어서 조금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관리가 힘든) 20~30명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담당하세요. (C 시·군·구)

이에 도시 지역의 경우는 일인당 담당 사례 수를 낮추는 한편 행정업무와 사례관리의 비율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인당 담당 사례 수는 종사자들의 경력에 따라 안배될 필요도 있다. 즉 경력이 적은 직원에게는 비교적 쉬운 사례나 적은 사례수를 배정하고 경력이 쌓일수록 그 양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식이다. 물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 아이들은 5명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1인당, 5명 몇 달 해서 이만큼이라도 올려 놓고 다른 5명 받아서 조금 올려 놓고 이렇게 가야지 이만큼 안고 가려니 체력,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해서 힘들더라고요.(중략) 5명 플러스 (일반 관리 청소년) 20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무난히. (C 시·군·구)

신규로 오시는 직원들이 경력이 1, 2년차인데 집중 사례 5개, 일반 사례 20개 주면 바로 사직서 낼 거예요.(중략) 우리 꿈드림 선생님들은 플러스 행정업무, 프로그램업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고 오로지 아이들 관리에 포커스를 잡으면 안 된다, 적어도 행정 사업은 4, 아이들 관리 6 정도 줘서 6에 대한 걱정 기준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E 시·군·구)

몇 명 정도 사례 관리가 적당하나 했을 때 각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중략) 저희는 집중 사례 관리 케이스라고 해서 매 주마다 체크하는 케이스가 1인당 24사례 정도 돼요. (중략)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철저히 맞춤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반자나 방과후아카데미 등 보다) 3~4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집중 사례 관리 케이스는 10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B 시·군·구)

한편 읍면지역은 앞서 지역별 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용 청소년의 수가 적다하더라도 접근성의 문제로 타 지역으로의 종사자 출장이 많아 단순하게 업무량이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의견으로는 종사자와 청소년이 같은 연령대에 속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종사자들의 소진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령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한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일부 종사자들은 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의 연령이 낮은 이유는 처우가 좋지 않아 경력자들의 유출이 심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나이가 있는 경력자들은 좀 더 나은 처우를 해주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경력이 없는 젊은 종사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력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사업비 20%로 묶여 있는 예산배정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어떤 데는 직원이 24살인데 학생이 24살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중략) 그런 애들은 뭐랄까 머리가 깨었어요. 그래서 저 청소년인데 왜 안됩니까? 그래서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정신병원 다니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하나, 그리고 전화기, 다 개인 핸드폰으로 해요. 근데 센 애들이잖아 저녁 때 전화해서 선생님 만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전화기도 녹음이 가능하게 법적 보호를 할 수 있게 기관들이 부담하려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비품이나 그런 것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E 시·군·구)

거기(예산 배정 가이드라인) 풀어 놓으면 인건비부터 다 채우고 운영비 세우고 나머지 이만큼밖에 안 남는데 사업은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총 예산의) 25%했다가 (중략) 20%까지 5%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못하면 가이드라인을 없애든지 안전망으로 15% 맞추면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해 주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4대 보험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하나만 넣 어줘도 ... 예산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산. (A 시·군·구)

③ 프로그램

○ 진로 프로그램: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제한점으로는 실제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거나 참여기회가 한 번(3개월)으로 제한되어 있어 심화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 적성에 맞지 않아도 취소하고 다른 직종(과목)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 참여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지금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해요. 아시죠? 아이들 인턴 체험까지 하는데 문제는 끝나도 직업과 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략) 끝나도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진로 직업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아이들이 끝난 뒤에 자립할 수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 (중략) 또 한 가지는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한 번밖에 못하는데 이게 노동부인가 여성가족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 얘기가 막연하게 정말 가고 싶은 시간을 센터에서, 내가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기관은 한정돼 있는 거지 그 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근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도센터 예산 주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면 그게 있으면 좋아, 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안 맞는데, 그런데 안 맞아도 그만 두면 수당 못 받으니까 그나마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A 시·군·구)

(개별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고 여자아이들은 저희는 동아리도 만들었던 것이 애견미용이 굉장히 많았고 직업 체험도 그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말씀대로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 과정을 이수하면 2급이 나오는데 2급으로 취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1급을 하려면 1번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해 주고 그 아이가 거기서 정식 직원이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서비스지원 제도 세팅은 애들한테 그냥 맛보기죠. 이게 모색이나 진로 체험, 직업 탐색과 다른 그냥 맛보기인 거죠. (B 시·군·구)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별 시·군·구센터들이 기업이나 학교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대도시와 같이 지역 내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자원연계에 관한 종사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상 중도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진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도 이수하기까지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가 ○○공사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셔서 법인에서 인턴십 사업을 일시적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2.5개월을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직업역량처럼 나가면 커피숍, 빵집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하고 연결을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수시를 본 아이들이라 전공 관련된 그런 곳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업진출하고 열심히 조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기업체에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애가 괜찮아서 쓰고 싶다고 하면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밖 청소년들 인턴십 제도가 보편화 되면 애들을 우선 2.5개월 가르쳐 보고 괜찮은 아이들은 채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잘 이어지면 아이들 취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략) □□대학교에서 산업협력단 쪽으로 인턴십 1명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가르쳐서 조교든 뭐든 쓰고 싶다고 했는데 개가 공대 쪽으로 지원해서 그 아이는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체들은 대학교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업 박람회 같은 걸 차라리 대학교 자체적으로 열어서 애들이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야를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하면서 느끼셨대요. (C 시·군·구)

저희 센터에는 전체 경찰이나 법원, 지역에서 오는 친구,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집중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백여 명이 이뤄져 있는 거죠. 비행에도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그러한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하기까지 중도 탈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도센터에서는 B센터는 아이들이 중도 탈락이 많으니 좋은 아이들로 선별해달라고 해요. 그 아이들 의지를 믿고 보내는데 탈락을 했을 때 거기도 실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애로점이 많기도 하고요. (중략) 저희는 각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 정말 자립에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줄 테니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 5, 6, 7명 모아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밖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4, 5명을 하루에 모으기까지 전화나 노력이 엄청 들어가요. (B 시·군·구)

○ 1인 1성과 원칙: 다양한, 통합적인 지원의 어려움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기관의 성과 및 평가와 직결된다. 현재 지원 성과는 1인 1성과가 원칙이다. 즉 청소년 한 명에게 하나의 프로그램 지원만 성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명에게 여러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이는 되도록 많은 수의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우에 따라 1인 2성과 또는 지원 건수에 따른 성과 산출 등 융통성 있는 성과산정 방식의 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애들 뭐 하나 직업 관련해서도 하면.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게 제한이 있고요. (G 시·도)

여성가족부에서 카운트가 1인 1성과. 검정고시 하고 요리프로그램 자격증도 따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해서 애도 중요한데 안 한 아이들. 이 애들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수는 한정적이고, 카운트는 애는 1인 1성과밖에 안 되니까. 개는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건데, 안타까워요. (F 시·도)

○ 기타: 저연령대 청소년 지원과 정신과 지원 필요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 내용으로는 저연령대 청소년과 같이 인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교 밖이라는 대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후에 24세까지 대상 폭이 넓거든요. 9세에서 24세까지 대상들을 다 아울러야 된다는 것은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 중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탈락이나 중학교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타겟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 시·군·구)

정신과 치료가 사실 꿈드림 예산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특별지원은 딱 그런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지원 신청을 하려면 항상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특별지원도 올해 1명밖에 신청을 못했어요.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고 맨날 손목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굵는 애들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선생님들이 출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지역에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C지역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더 그런데 그런 치료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C 시·군·구)

④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업무

○ 과도한 행정업무

시·군·구센터장들은 시·도센터나 지자체의 요구 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업무가 과도하고 그에 따른 피로도가 높음을 호소하였다.

지원센터는 보고 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D 시·군·구)

그냥 행정라인 때문에 위에서 쉽게 일하려고 온갖 걸 다 취합해서 내려요. 갑자기 알림으로 내려서 보고 해야 되는 서류가 곱하기 10은 될 거예요. (B 시·군·구)

지자체 평가 기준에 상담, 학교 밖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고. (중략) 독촉할 수밖에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략) 문서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E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와)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상담센터는 상담사업, 안전망 몇 명이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업무는 상담사가 처리를 해줘 근데 학교 밖은 예산 회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도 본인 거 본인이 해야 되고 결과 보고까지. 그리고 시스템에 올리는 것도 올려야 되고 내부적으로 문서로 보면 똑 같은 거예요. (A 시·군·구)

행정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회계처리라도 좀. (C 시·군·구)

실제 청소년을 대면하는 사업보다 행정 일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되는 게 큰 문제예요. (G 시·도)

○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역할 구분

센터장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도센터 중 몇 곳은 시·군·구센터와 같이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그러나 현재 직접사업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군·구센터장들과 시·도센터장들은 모두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가 각기

11) 시·군·구센터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시도센터에서 일부 직접지원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즉 시·도센터는 직접사업을 자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지원 등으로 시·군·구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시·군·구센터는 직접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역할 구분으로 판단된다.

시·도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니까 시·도센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시·도센터가 시·군·구센터를 지원해 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접 사업하느라 바빠서 시·군·구센터는 시·군·구센터대로 허덕이고 시·도센터는 (시·군·구센터에게) 왜 우리보다 못해 이런 이상한 경쟁을 붙여서 지금 C지역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C 시·군·구)

F지역도 작년까지는 직접 사업을 조금씩 했지만 올해는 전혀 안 하고요. 자치구 센터 지원교육 컨설팅을 중심으로 합니다. (F 시·도)

시·군·구(센터)는 직접사업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사업을 시·도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대상도 중복되고. (중략) (시·도센터는 직접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취합할 수 있는 건 취합해 주고 시·도센터 조율할 수 있는 건 조율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A 시·군·구)

(시·군·구 센터의)애로점을 듣고 개선 방향을 지자체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시·도센터가 각자 자기들 사업 친다고 바쁘니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아이들 동원해줘야 되는... (B 시·군·구)

16개 시·도센터 중에 ○○과 □□랑 직접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특성 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도 한청원에서 컨설팅 오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직접사업을 줄여 달라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센터는 직접 사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서 어려움 있다고 해요. I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중략) 대부분 간접사업인데 연합프로그램을 그 전부터 해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외에 거의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I 시·도)

저는 시·도센터는 정말 직접사업을 아예 안 하고 시·도센터 본연의 역할만 하면 좋겠어요. (중략) 시·군·구센터를 지원하는 거랑 정책 개발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 지역은 시·도센터가 워낙 많이 해서 저희 센터는 (지원 및 성과 인원) 300명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I 시·도)

시·도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두 센터가 모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구센터에 대한 시·도센터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원대상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선택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받았어요. 내가 여기 프로그램 충분히 이용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받아요. 중복 지원이 계속 되는 거예요. 홈스쿨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충분히 받을 걸 받았고 여기서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옆 동으로 가요. (D 시·군·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구센터가 없는 지역에 시·도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같은 경우는 해당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으며, 처우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대 기존 시·군·구센터가 있는 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시·군·구센터에 맡겨 두고 학교밖이 미설치된 곳에 직접서비스를 집중하려고 하죠. (중략) (문제는) 인원수 말고도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학교밖센터라는 사업을 기존에도 하기 어려운데 미설치 된 시·군·구까지 커버를 하는 게 큰 일이 되고 있어요. (J 시·도)

⑤ 타 기관과의 연계

지역 내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는 센터장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타 기관들의 태도, 지자체의 지원체계도 중요한 문제이다. 몇몇 참여자들은 일부 학교가 높은 학업중단율이 공개된다는 생각에 연계를 꺼리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면서 교육청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E지역 사례를 말씀 드리면 재단에서 운영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활동·복지 보호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쉼터에 ... 학교 밖 오는 아이들... 다 연계가 된 상황이에요. 개인은 내가 쉼터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좋긴 한데 문제는 그 외의 기관들 있죠. 연계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 예산 지원부터 인력 지원 이런 협력 관계, 병원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 밖 이미지 때문에 약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 시·군·구)

이게 센터에 따라서 다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 센터장의 역량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분명해요. (중략) 학교에서 하도 그만 두니까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저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학교지원단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중략) (교장선생님에게) ▽▽고교나 솔직히 그만 두는 애들 얼마나 많냐. 근데 창피하다고 안 내놓고 안 되면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창피하냐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꼭 그만 두려고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와서 굉장히 많이 넘쳐서 컨셉을 바꿔...(중략) (A 시·군·구)

교육청과의 연계와 관련한 지적 중 또 하나는 고등학생의 연계문제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업중단학생을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과거와 같이 발생한 지역(학교가 있는 지역)의 센터로 연결해 주지 않고 해당 청소년의 주소지로 연결해 주면서 연계 학생의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일부 지역은 발생률이 높는데 서비스 지원율이 턱없이 낮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낮은 발생률에 비해 서비스 지원율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점이다. 즉 인근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A지역의 학교를 진학했다 그만 둔 경우 과거에는 A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집계되고 A지역 센터에 연결되었다면 이제는 A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집계되지만 ○○지역 센터로 연결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학생 밖 청소년 발생률 대비 서비스 지원율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A지역의 센터와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고교에서 아이가 그만 두게 되면 이쪽 센터로 넘어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바뀌었어요. (중략)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요. (중략) 고등학교에서 그만 두면 바로 도 교육청으로 신고를 해, 그러면 이걸 취합해서 묶었다가 이 아이 주소지에 있는 센터로 연결을 시켜줘요. (중략) (A 시·군·구)

또한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히 된다 하여도 학교나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연계기관을 선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확히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두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정보 공유가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학교 밖에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연계 기관을 구성해라, 안전망 청소년 안전망에서 보면 ... 그것처럼 학교밖 연관기관을 구성해라(라고요). (E 시·군·구)

청소년 연계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동의는 곧 부모의 동의도 포함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동의를 권유하는 일선 학교의 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우울해서 학교를 관뒀어요. 근데 부모님이 쉬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아이가 그렇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시골은 그런 문제 때문에. (D 시·군·구)

⑥ 기타

기타 의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청에 의존하고 지자체에서는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교 위주로 정책이 펼쳐 있어서. 지자체장은 교육 쪽에 의지를 많이 해요. 저는 학교밖이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떼어 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학교를 벗어나야 지자체가 가진 책임으로 지자체장이 받아들이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교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장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소관으로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많아요. (G 시·도)

(3) 개선방향

① 특성화 운영에 대한 의견

특성화 운영에 대해 면접 참여자들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예산이 부족하고 종사자들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청소년들의 특성상 원하는 것이 분명치 않고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원스톱 통합 서비스가 더 적절하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욕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맞는 센터를 찾아 먼 거리까지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지역에서 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센터 역할·기능 재조정, 특성화 센터 지정 등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입장에서 상담센터나 활동센터나 다 청소년센터예요. (중략) 운영하고 관리하는 성인 입장에서 센터를 구분하고 예산 기능 관리 측면에서 구분하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다 센터예요. 청소년이 와서 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목표가 되면 좋겠고요. (J 시·도)

대상별 특성화(센터 운영)는 아주 낙인효과가 클 확률이 있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능별 (특성화 센터 운영)은 청소년의 욕구가 복합이에요. 학교 중단 이유도 복합이듯이. 그러면 활동중심센터 선생님 취업지원중심센터 선생님 학업중심센터 선생님이 다 다른데 결국 우리가 기능을 습득하려 가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길게 가는 게 관계이고요. 그런 면에서 나누는 게 맞지 않다. 꿈드림 와서 한 선생님 당 매칭이 되니까 이 선생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검정고시도 하고 대학 진학 취업 관련한 걸 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각 센터 선생님들을 다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 상 관계 맺기가 힘들고 장기적으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돼서 중단율이 높을 수 있겠다. 그리고 소속감이 없어지고요. (I 시·도)

센터들에서 자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인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역이나 센터별) 특성화가 됐고 (중략) (대입지원과 같은 특성화는) 연계 부분을 강화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F 시·도)

조그만 시군으로 가면 특성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G 시·도)

진짜 맞춤형으로 이런 시설도 있고 저런 시설도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A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저희가 1년에 400명 아이들이 온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엄청나게 정신력과 체력을 쏟아 부으면서 해야 되는 위기 청소년들은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온갖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지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가 꿈이 있기도 하고 의욕은 없지만 나오라고 하면 늦어도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니까 사실 케어는 쉽거든요. 그래서 특성화라고 나눠버리면 그러면 이 20~30명 아이들이 따로 빠져서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0명을 관리하는) 그 센터는 무슨 죄가 있고. (C 시·군·구)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성화 센터 운영을 반기는 의견도 있었고, 장·단점을 모두 피력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이(특성화 운영)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질적인 부분을, 특성화 된 시설로 담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중략) 광역센터, 도센터의 어떤 역할 기능도 특성화 시설과 엮어서 돌파구가 될 거 같아요. 광역센터의 영역 확장인 거죠. (H 시·도)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사례관리가 힘들다고 사표 내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별화를 시켜준다면 이쪽 사례 관리와 이쪽 사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선 이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가 좀 더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참 좋은 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부분은 예산이나 지역에서 과연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가능할 것이냐 가득이나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밖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제일의 문점이고 지역별로 나눌 경우 아이들 깨우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룰루랄라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 그게 먼저 해결이 된다면 특성화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E 시·군·구)

② 개소 수 조정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센터의 개소 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용 청소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소 수 증가에만 급급하다보면 편법운영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산출하여 그에 따라 지역별 센터 수를 축소하거나 증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 때 센터 내 인력 및 예산의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은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몇 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시골 정말 소규모로 있는 곳은 사실은 저는 학교밖지원센터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중략) 대도시권에는 이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대도시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확충해줘야 되지만 시골 아주 소규모 단위 시골에는 어차피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중략) 시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두 명으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뭐가 하기에 너무 부담이 큰 거죠. (D 시·군·구)

○○지역 같은 데는 1년에 1명 그만 둘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요.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 한다고 애들 모아서 프로그램 하면서 학교밖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멀쩡한 애가 프로그램 한다고 갔는데 내가 문제아가 돼 있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센터장님 계시지만 1명밖에 안 그만 뒤, 그러면 실적 1명이면 끝 찌겠죠. (A 시·군·구)

센터가 나와 있고 법률도 나와 있고 센터로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면 권역 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군·구에 내려가면 근무하는 분이 두 명 정도예요. 인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면 학교밖 대상자가 몇 명이나? 10명 20명. 우리가 아무리 학교 선생님들 1인당 몇 명 갖고 이야기를 해봐도 안 먹히고. 결국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 별로 묶어 나가는 거 같아요. (H 시·도)

저희 지역도 그래요. 농촌지역이 많아서. 1년에 학교밖 청소년 1명 발생하거나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처럼 2명으로 뭉기보다 인구가 소멸되는 데는 거점으로 3~4개 묶어서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래야 조금 움직이지. 2명으로 사업을 조금 하는 형태는 차라리 인원 없이 상담복지센터에 인원이 더 있어서 사업으로 하는 형태가 낫다. (G 시·도)

청상복(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자치구마다 다 있고, 학교밖센터도 다 자치구마다 생기면서 이게 청상복에 있지 않고 분리가 되면 자치구에는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건가? 생각이 들어요. 청상복에서 하는 한 팀이 아니라도 청상복에서 지정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연계와 도움 받는 식으로 가면 자치구센터마다 학교밖 사업을 해도 저는 진행이 될 거 같아요. (F 시·도)

센터가 통합 운영될 때는 한 지역 내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 청소년 지원에서 질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때 2명일 때 3개 센터만 모아도 6명인데 6명이 좀 모아서 그러면 ○○권역센터. 왜냐하면 △동네 애들이 여기 있다가 ◎동네 가다 ◇동네도 가요. 각 시·군·구마다 있을 때 발굴이 용이한 장점도 있는데 적어도 인원이 한 센터가 되려면 8명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취업자립팀, 아이들 학업지원팀 이런 식으로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미 매일 업무 이만큼 있죠. 그만큼 2, 3명이 하는 것을 정말 억지로 맞추기식인 거죠. 저희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냈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계속듣고 있어요. (B 시·군·구)

많은 아이들 70% 이상은 그런(욕구가 분명치 않은) 아이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례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 아이들 욕구가 취업에서 대학에 가고 싶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건지 고민들을 많이 해서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중략) 인력을 최대 3명이라고 하더라도 3개 센터만 모이더라도 9명이면 부서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오면 사례 관리 담당자가 있고 학업지원 파트 갔다가 취업지원 파트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에 저희는 건의도 해봤었어요. 근데 각 구군 센터들 역할이 있고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될까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원스톱으로 맞춤형이 되는 거죠. 지금은 3명이 사례관리하면서 학업 담당, 취업 담당, 자기개발 담당 이렇게 되는데. (B 시·군·구)

물론 대도시와 같이 이용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통합이나 권역별 센터 운영보다는 시·군·구별 분리운영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은 2개가 따로예요. 학교밖과 청상이. 현재는 워낙 지역이 좁고 아는 분들이라 협력이 잘 되어 있고 연합축구회 체육대회 이런 게 잘 되는데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신 사람 수가 적은 곳은 (학교밖과 청상복을) 합하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 광역시는 그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I 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지역에 따라 센터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종사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정기적인 출장을 가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내에 출장소를 마련하거나 이동형 청소년쉼터와 같이 이동형 센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자발적인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 4, 5번 해서 깨워서 와라 와라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지역에서 사는 애 버스 타고 40분이에요. (E 시·군·구)

(지역적 특성으로 시·군·구센터 미설치율이 높아서) 분소나 거점 등등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지자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생각만 갖고 있고요. (중략) 그런(시·군·구센터가 미설치된) 곳에 직접서비스를 집중하려고 하죠. (중략) 총체적으로 학교밖센터라는 사업을 기존에도 하기 어려운데 미설치 된 시·군·구까지 커버를 하는 게 큰 일이 되고 있어요. (J 시·도)

3.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20~30대가 56.1%였고, 40대 이상은 43.9%에 달했으며, 3년 미만의 종사경력자는 36.7%, 3년 이상의 경력자는 63.3%가 조사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센터 중 13개의 센터가 참여하였고, 시·군·구 센터는 126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설립주체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43개(30.9%), 법인 및 기타단체 설립이 96개소(69.1%)였다.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5시간으로 나타났다.

기관 현황으로써 재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참여 센터들은 국비는 99.3%, 지방비는 100.0%,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 재원이 21.6%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68.3%였고, 국비, 지방비,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받는 기관은 16.5%였다. 조사대상 센터 중 29.5%만이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70.5%는 다른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인근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8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이 63.3%, 체육시설은 33.8% 정도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학교 밖 청소년 주요 발굴 경로는 학교·교육청 연계, 친구/선후배 소개, 경찰·법원·법무부 산하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본인의 자발적 이용과 가족의 소개 등의 순이었다.

센터의 서비스 및 지원 내용으로써 응답 기관 80.6%가 학습지원을 1순위로 하고 있었고,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이 2순위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활동지원(36.7%)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지원항목별 제공 여부를 보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직접지원이 95.7%였고 학습영역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상담 등 복지 지원” 영역 중 급식지원(89.2%)과 각종 고민 상담(86.3%)의 직접지원 비율이 높았다. 연계지원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일

자리(61.9%),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56.1%), 학력 취득/작업훈련 병행 지역 사회 작업장(52.5%) 등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체험 및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내용들은 용돈 지원, 주거지원,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 영역에 주로 해당됐다. 이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예산 부족 응답도 많았으나, 그 보다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범위와 확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직업/취업관련 내용들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연계할 기관이나 작업장의 부족이었다.

센터 운영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기준), 종사자 처우 문제가 8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센터 내 인력충원(58.3%)이었다. 종사자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 발굴(51.1%)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48.9%)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 종사자 처우와 중앙부처의 지원 부족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꿈드림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간 서비스 질 격차에 대한 인식과 지역규모를 고려한 지원 내용의 차별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에서의 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 80% 내외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유관부처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는 대도시 센터가 다른 지역의 센터보다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센터가 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센터가 읍면지역보다 더 질적 차이를 크게 인식하였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 내역, 인력의 전문성 등 지역 내 인프라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

단 청소년 수,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거점시설 설치기준으로는 “시·도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2~4개 시·군·구 센터 통합 운영”이 36.9%,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학생 수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고려한 설치”, “센터의 위치(접근성)”가 동일하게 20.7%로 나타났다. 거점시설의 주요 역할로는 “지역 사회 내 관계 기관(학원, 작업장 등)과의 협력 및 연계”,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자원 연결”, “학교 밖 청소년 발굴(교육청·학교, 주민자치센터, 쉼터 등 연계, 아웃리치 등)”, “학업/취업/취미활동/상담치료/자립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문/심층적으로 제공” 등이 1순위뿐 아니라 복수응답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 먼저 중앙부처(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이러한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충원 방안 마련, 인건비 지급 기준 지침 마련, 종사자 근속을 위한 종사자 임금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 독립된 공간 및 시설 확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센터 간 격차 방지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매뉴얼 개발, 정책 수립 및 평가 추진 시 현장의 의견 반영 등의 내용들이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 및 역할로 제시되었다.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시·도 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의 경우 유사한 부분이 많았는데, 시·군·구 센터 대상 컨설팅과 시·도센터 및 시·군·구 센터와의 협력과 고충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중앙부처/중앙지원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꿈드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와 외부 민간 자원의 개발 및 연계 등이 주요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시·도센터는 시·군·구 센터의

연합 사업을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모범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의 역할/기능의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크게 현재의 가나다형 유형 구분의 재조정,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 센터별 특성화,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 센터 통폐합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센터별 특성화와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와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수 제시됨에 따라 향후 운영 모형 개발에 센터별 특화와 통합거점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 FGI 조사

FGI 면접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률이나 센터의 접근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센터의 운영방식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센터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다른 청소년기관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공간 사용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위축되고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이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소규모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 공간 마련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청소년 시설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용순위에서 부당하게 밀리는 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 밀집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해 종사자들의 행정업무와 청소년 지원업무(사례

관리)의 비율을 조율하고 일인당 담당 사례관리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구센터는 이용 청소년 수와 실적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종사자를 2~4명 배치하고 있으나 청소년 수가 많은 경우 일인당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청소년의 수가 적다하더라도 장거리 출장이 잦거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례 수를 맡은 종사자보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이용자 규모 및 지원 수준, 센터 접근성(거리 및 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면접조사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진로 프로그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처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동시에 훈련 내용 역시 취업처의 요구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1인 1성과에 국한하지 말고 개인 지원 프로그램 수 확대, 저연령대 청소년과 같이 소수 집단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연계기관을 선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센터들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시·군·구 센터와 시·도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센터와 시·군·구 센터가 같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다보니 업무가 중복되면서 센터 간 경쟁이 발생하거나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에 시·도센터의 업무와 시·군·구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센터의 개소 수 및 종사자 수의 조정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0: 826)에 따르면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2019년 기준 총 198개의 시·군·구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고 각 시·군·구센터는 이용 청소년 수와 실적에 따라 종사자를 2~4명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구센터의 양적 확대와 일괄적인 종사자 배치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개소 수 및 종사자 수의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제언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분석,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관련 정책제언과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조사결과 요약 및 이에 근거한 시사점 및 반영 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요약 표

연구방법	주요 결과 요약	정책제언/운영모형(안) 반영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분석	- 주요 지원정책: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사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친구랑'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 등 -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 강화, 여러 관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 필요, 꿈드림의 효과적인 운영 개선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관련 정보지원 강화 필요성이 도출됨.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 강화 ▷ 꿈드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
2. 2차 자료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 많지 않았음. - 학교를 중단한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행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받는 경향이 더 높아짐.	▷ 지역별 청소년의 욕구(진로상담, 취업관련 교육 및 취업 희망)에 부합한 지원 필요

12) 제5장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2절은 김희진·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연구방법	주요 결과 요약	정책제언/운영모형(안) 반영내용
대상)	-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더라도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 -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취업 등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취·창업 병행 등과 관련된 개입을 더 선호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 멘토, 진학정보, 검정고시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진학정보와 검정고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 아르바이트 관련 전문적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필요
3.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조사 참여 센터들은 국비는 99.3%, 지방비는 100.0%,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 재원이 21.6%였고, 국비와 지방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68.3%, 국비, 지방비,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받는 기관은 16.5%였음. 조사대상 센터 중 29.5%만이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발굴 경로는 학교·교육청 연계, 친구/선배 소개 순이었음. - 직접지원은 전반적인 학습영역에서 높았으나, 직업체험/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지원보다는 연계지원이 많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연계할 기관이나 작업장의 부족이었음. - 옹도 지원,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센터 운영의 주요 애로사항은 낮은 종사자 처우, 센터 내 인력 부족이었고,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지원 미흡이었음. 지역규모를 고려한 지원 내용의 차별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에서의 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꿈드림 설립·운영 재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대한 고려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음. - 거점시설 설치기준으로 '시·도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4개 시·군·구 센터 통합 운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거점시설의 주요 역할로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연계, 정부 및 지자체/민간의 자원 연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지자체 지원 고려한 센터 운영 필요 ▷ 학교/교육청 연계를 통한 발굴 강화 ▷ 직업체험/일자리 지원을 위한 연계기관 발굴 필요 ▷ 경제적 지원 타당성 재고 및 관련 근거 마련 ▷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이 매우 시급하며, 지자체 관심 지원 필요 ▷ 지역규모/특성을 고려한 꿈드림 설립·운영 및 재배치 고려 ▷ 거점시설 설치기준과 주요 역할/기능 내용 조사 결과는 꿈드림 재조정을 위한 기준에 반영 ▷ 중앙부처, 중앙지원기관, 시·도센터 기능 재정리에 반영 ▷ 센터별 특성화 및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안)에 반영

연구방법	주요 결과 요약	정책제언/운영모형(안) 반영내용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 중앙부처 기능으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주도적 역할,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매뉴얼 개발이 지적됨 -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시·도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컨설팅과 고충 해결, 중앙부처(여성가족부)/중앙지원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꿈드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외부 민간 자원의 개발 및 연계 등이 주요 기능 및 역할로 조사됨. - 시·도 및 시·군·구 꿈드림의 역할/기능의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가나다형 유형 구분의 재조정, 다양한 규모의 시·군·구 센터 운영, 센터별 특성화, 통합거점센터의 운영·배치, 센터 통폐합 등의 의견들이 제시됨.	
4. 꿈드림 센터장 FGI 결과	- 꿈드림 센터장 10명 FGI 결과, 도시와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률이나 센터의 접근성 등에서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구 센터와 시·도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 센터의 개소수 및 종사자 수의 조정이 필요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른 기관과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간 사용 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위축되는 문제점을 보임. - 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해 종사자들의 행정업무와 청소년 자원업무(사례관리)의 비율을 조율하고 일인당 담당 사례관리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시·군·구 센터와 시·도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 센터의 개소 수 및 종사자 수 조정 필요 ▷ 시·군·구 센터의 공간사용 기준 및 전용공간 마련 필요 ▷ 종사자의 업무 양 및 내용적 측면 고려한 개선 필요 ▷ 청소년 요구에 부합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다음 절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들을 먼저 제시하였고, 이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1) 정책제언

(1)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발굴 체계 강화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 모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 대한 쟁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경로는 1순위가 학교 및 교육청의 연계, 2순위가 친구/선후배의 소개에 따른 것이었다. 학교/교육청을 통한 연결이 1순위이긴 하나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관련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한 것으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꿈드림 접근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도 꿈드림 연락에 응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후 검정고시 학원 등을 통해 꿈드림을 알게 되어 나중에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초기에 필요한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로상담 등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재고는 매우 시급하다¹³⁾.

우선적으로 학교에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안내가 필수적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후 꿈드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과정이 있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차원에서의 연계 및 협력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꿈드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각 지자체 수준에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인식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13)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여러 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비교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욕구 반영한 데이터 수집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특성에 따라(읍면지역 청소년의 취업 선호경향), 또 개인적 특성(경제적 상황에 따른 욕구 차이, 학업중단 이후 기간에 따른 비행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욕구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또 현장실무자들의 의견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상황과 주변 환경들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또 청소년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조사문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실태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주요 접촉 지점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꿈드림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의 꿈드림 연계 시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실태조사관련 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V-1).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청소년의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다. 2차 자료 분석에도 나타났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항들과, 지역사회 특성과 이에 따른 청소년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교육청(교육지원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의 성명 • 청소년의 생년월일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 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p.841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교육청(교육지원청)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행 기관·조사위탁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수행되는 실태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목적	상동	상동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추가 사항

(3) 현장실무자 처우 개선

본 조사의 설문조사 및 FGI에 참여한 많은 현장실무자와 센터장들은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장실무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잦은 이직을 촉발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낮은 보수 수준에서 현재의 보수 지급관련 내용이 지자체의 상황¹⁴⁾에 많이 좌우되면서 더욱

14) 일례로 현 꿈드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호봉표 및 경력 사정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사업의 기준에 따름' 등(여성가족부, 2020: 829)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상황이나 관심도 등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적인 급여 수준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 간 임금차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실제로 꿈드림 종사자 보수 기준과 관련해서 ‘지역 간 임금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829). 이를 위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보수 지침의 필요성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각종 수당을 통한 임금보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¹⁵⁾.

(4)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력충원과 담당 사례 수 기준 마련

대체로 청소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러한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한 인력배치나 충원이 필요하다. 센터 이용 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역의 꿈드림에서는 직접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뿐 아니라 각종 보고 자료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충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지원업무(사례관리)의 비율을 조율하고 담당 사례관리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시·군·구센터는 이용 청소년 수와 실적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종사자를 2~4명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수가 많은 경우 일인당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사례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담당 청소년의 수가 적다하더라도 장거리 출장이 잦거나 담당 청소년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일 사례 수를 맡은 종사자보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이용자 규모 및 지원 수준, 센터 접근성(거리 및 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사자 수와 담당 사례 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 종사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센터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량

15) 센터장들과의 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당장의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예산배정지침에서 사업비 비율 조정 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재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현장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청소년 쉼터 종사자나 청소년 동반자와 같이 유사 청소년 업무 종사자들과의 업무 비교 및 타당한 직무 분석을 통해 종사자들의 적정 업무량과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산출 및 실적관리 방식 변경

앞서 논의한 현장실무자의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담당 사례 수 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성과 산출 및 실적관리 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서 꿈드림의 성과 산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현재는 청소년 1인 대상 서비스를 1건으로 성과를 산정함에 따라 청소년 1인에 대한 가벼운 초기 상담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입과 프로그램 제공 역시 1건으로 실적이 산출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큼에도 그 만큼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서비스 및 개입의 유형과 기간, 개수와 관계없이 단순 1개 서비스 지원받은 청소년과 수년간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관리 대상인 청소년을 동일하게 1개 성과/실적으로 볼 수 없으며, 전반적인 실적관리 및 성과산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1인당 사례 수에 따른 실적관리가 아닌 서비스/개입의 유형 및 기간, 개수, 사례관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정량적 방식만이 아닌 (건수, 실적에 대한 비율 증가 등), 다양한 정성적인 방식(예,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 사진 자료 등)을 혼합하는 등, 여러 욕구를 지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실무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현재 노력과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 역시 현장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기 때문이다.

(6)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당수의 센터들이 전용공간을 갖지 못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다른 청소년기관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공간 사용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위축되고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종사자들은 꿈드림만의 전용공간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우선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불가피하게 다른 청소년 시설과 공간을 공유해야 할 경우는 사전 예약제나 대여제 등을 통해 사용 순위에서 부당하게 밀리는 일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식공간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도자가 상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홍보책자는 물론 여가시간 선용을 위한 서적, 오락도구(보드게임 등)나 음료, 컵라면 정도의 간식거리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과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7)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기관 구축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각 센터들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학업 복귀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과 기본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의 환경 지원 및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기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심리치료시설, 비행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서·법원·청소년보호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 내 연계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각 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체계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발굴을 포함한 신체, 심리적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원과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인턴십이나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아도 많은 센터들이 직접지원보다는 연계지원을 하거나 아예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 관련 기관이 없거나 또는 연계협력 부족 때문이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해당 기관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MOU 등을 통한 연계 체계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기관의 경우 지자체 더 나아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유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의 특성·현황을 고려한 센터 개편 및 종사자 수 조정 기준 안 마련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0: 826)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총 198개의 시·군·구 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각 시·군·구센터는 이용 청소년 수와 실적에 따라 종사자를 2~4명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군·구 센터의 양적 확대와 일괄적인 종사자 배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 중 하나는 이용 청소년이 적은 지역에 불필요하게 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이렇게 이용 인원이 적은 경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크지 않은 정부·지자체 예산을 고려한 개편이나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재조정(개편)을 위해서는 앞선 조사결과에서도 출된 기준으로, ①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②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③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 ④ 지역사회 인프라 수준 등을 우선 고려하되, 정부/지자체↔중앙지원기관↔ 시도센터↔시·군·구센터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소 수 조정이나 개편과는 별개로, 지역적 특성이나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리 업무량이 많더라도 종사자 수는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종사자의 소진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센터별 종사자 수는 최소 인원을 정하되 최대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량(일인 당 사례 수)에 따라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과 최대 인원을 제한하되 업무량이 초과되면 지역 내 시·군·구 센터나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사례수가 많아 종사자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유사 직종 종사자(쉼터 종사자, 청소년 동반자 등) 배치 기준 뿐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의 양육시설이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종사자들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소 설치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적은 지역에서 기존 꿈드림을 대체, 설치할 수도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사례수가 너무 많거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아웃리치할 목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분소 설치·운영 시 꿈드림의 전체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에 초점을 두되, 해당 시·군·구 센터의 담당 지역이 너무 넓고 교통편 등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빈번한 장거리 출장 등을 고려한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차 자료 분석 및 꿈드림 현장실무자와 센터장 대상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수 및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거점센터 운영의 필요성, 센터의 전문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특성화 센터 운영,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충족 및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거점센터 운영 모형(안)을 도출하였다. 꿈드림의 설립·운영 재조정(개편)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구 지역 내 학생(학교)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 최근 3년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실적),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 지역사회 특성 및 인프라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거점센터 운영 방식: 군 단위, 읍면지역 중심

현재 운영방식에서 가장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꿈드림 조정 방안으로, 여성가족부↔중앙지원기관↔시·도센터/‘거점센터’↔시·군·구센터와 같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시·도센터와 동일 수준에서, 단 기능을 달리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둔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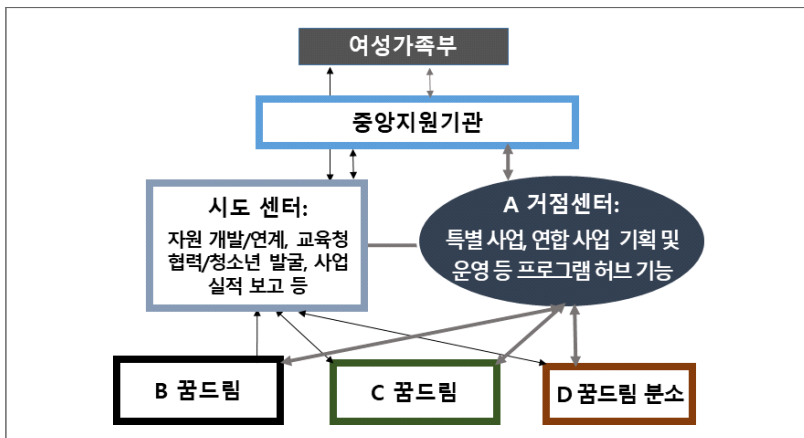


그림 V-2. 꿈드림 거점센터 운영 모형(안): 군 단위, 읍면지역 중심

거점센터 설치 기준으로 앞서 현장실무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가’형 센터처럼 센터 규모가 크고 주변의 인프라 활용 및 접근성 등이 용이하거나, 인접 지역 센터를 2~4개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거점센터의 우선적 기능은 개별 센터들이 운영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직업체험, 훈련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연합사업 방식으로 주관하여 인근 시·군·구센터의 청소년들이 동등한 서비스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의 협력 및 연계나 자원연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나 시·도센터와의 적절한 역할 분배를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서비스·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시·도센터는 본래의 기능인 자원 개발/연계,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사업실적 보고 등 자원연계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이 거점 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권역별 센터의 경우 담당 지역이 너무 넓고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분소(그림 V-2에서와 같은 D센터 분소 등)나 이동형 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분소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내 등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종사자가 상주하면서 본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며, 이동형 센터는 청소년 이동형 쉼터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도시의 경우 이후 논의할 통합지원센터가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면, 도 지역, 군 단위 지역에서는 권역별(예,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으로 하되, 명칭은 서부권역센터, 동부거점센터 등으로 지칭)로 설치하여 넓은 지역을 담당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현장종사자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대도시 거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수가 훨씬 많을 수 있으며, 도, 군 단위지역의 경우는 센터의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출장 등이 많을 수 있어 그 만큼 많은 사례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특성화 꿈드림 운영 및 교차 이용 모형: 대도시

다음 운영 모형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특성화 및 센터 간 교차 이용 모형이다. 현재 2명이 전담인력인 다형 센터의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이후 장기간의 사례관리까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 역시 학업지원, 취업지원, 활동지원, 건강지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업무과중 뿐 아니라 지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는 다양해졌으며, 또한 심층적인 보다 깊이 있는 전문화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졌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른 관련 기관(대안학교, 학원 등)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한다. 결국 꿈드림에 서는 많은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실효성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지원기관과의 차별성을 갖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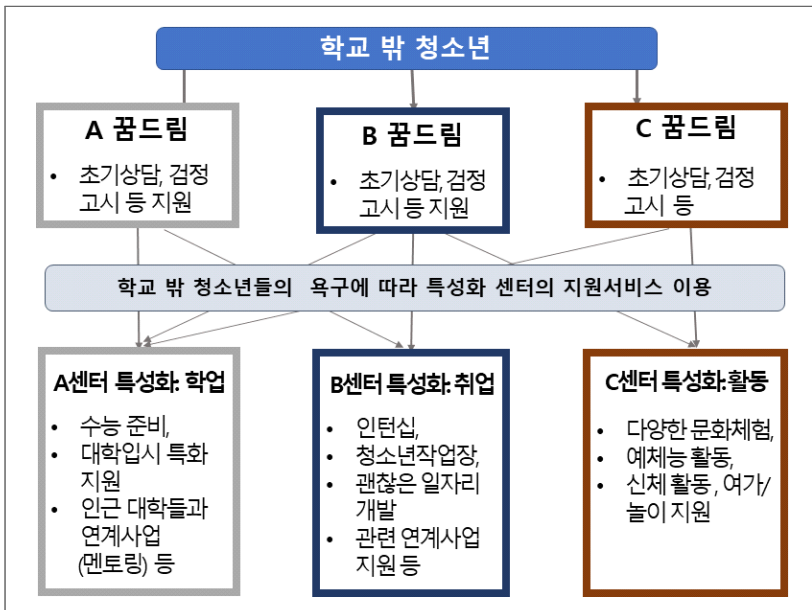


그림 V-3. 꿈드림 특성화 운영 및 교차 이용 모형(안): 대도시

이러한 이유로 꿈드림의 특성화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실무자들 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그림 V-3은 이러한 센터 간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인근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교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인근의 꿈드림을 우선 방문하여 초기 상담이나 검정고시 지원 등의 기본적인 지원을 받고, 이후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다른 센터의 특성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꿈드림을 처음 방문하여 초기상담과 검정고시 지원을 받은 이후 인턴십이나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A센터의 공식적인 의뢰(referral)를 통해 이 청소년은 B센터(직업특성화 센터)에서 해당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소년은 다른 센터의 특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청소년 지원 실적은 A센터와 B센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센터 간 원활한 교류가 매우 필수적인 방식으로, A, B, C 센터 간 정기적/비정기적 회의가 있어야 하며,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한 개의 실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러한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없으며, 결국 각 센터의 특성화, 또는 전문성, 그리고 이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지원 역량 강화 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업지원 특성화 센터, 직업지원 특성화 센터와 같이 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했으나, 한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센터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센터는 비행청소년 또는 다문화청소년 특성화 센터, B센터는 경계성지능이나 학습부진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센터가 될 수 있다. 이때 각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및 인력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3)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 모형: 특·광역시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말 그대로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꿈드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지원센터는 현재의 ‘가’형 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의 3~5개 시·군·구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통합센터는 앞서 논의한 거점센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및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거점센터가 관할해야 할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때 이 통합지원센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밀집한 대도시지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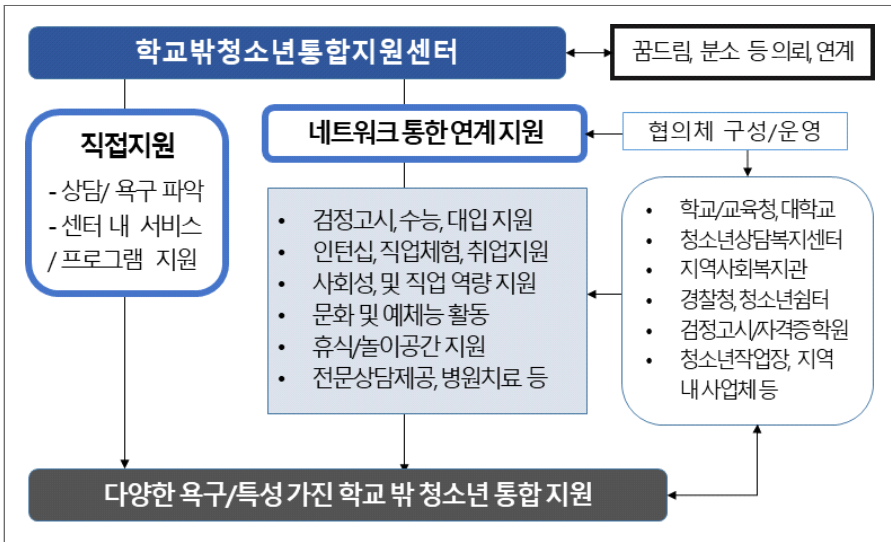


그림 V-4.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설치)·운영(안): 특·광역시

또한 활용 가능한 주변 인프라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지원센터로서 센터 내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직접서비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청소년육구가 더 다양할 경우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시지역이라도 하더라도 도시 외곽의 읍면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수나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하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이 분소의 의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청소년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한 교통비 지원이나 분소↔통합지원센터 간 셔틀버스 운영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임에 따라 종사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꿈드림 센터의 종사자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전담할 직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자신의 진로를 찾기 못했거나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장기 사례관리자도 필요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은 이제 시작이며, 무엇보다 향후 발전적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현장 꿈드림-중앙지원기관-정부(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실천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논의와 제안들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또는 거점센터) 설치·지정, 그리고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분소 설치(또는 분소로의 개편) 등 꿈드림의 규모와 서비스 기능을 고려한 개편을 위해서는 앞서 조사결과에서 시사하듯이 실적 중심이 아닌, 지역 내 학생 수(학교 수) 및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를 참고할 뿐 아니라, 사전에 현장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연구도 더욱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꿈드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앞서 정책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종사자들 처우 개선과, 특히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측정방식을 포함한 타당한 운영방식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종사자 처우와 이들의 성과에 대한 측정방식은 결국 ‘현장에 누가 남아 있느냐’를 결정짓는 잣대이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학교(교육청)정책의 일환이 아닌,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중앙지원기관, 시·도 및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명숙, 황지원(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성과 분석.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pp. 55-1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2011).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고기홍(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학생생활연구**, 24(1), 117-136.
-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업무매뉴얼**. 세종: 고용노동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11.28.). **보도자료: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수립**.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1526&lev=0&m=0501>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교육부(2014.05.28.). **보도자료: 학업중단 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돌봄 공간 「친구랑」 설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3603> 에서 2020년 12월 20일 인출.
- 교육부(2017.01.24.). **보도자료: 학교 밖 학생도 학습경험으로 학력 취득 길 열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70297> 에서 2020년 12월 29일 인출.

구본용, 유재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만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김미옥, 조아미(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을 통한 삶의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1), 27-52.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김수연(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유빈(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용실태 분석: 중도해지·만기현황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20년 2월호.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지혜, 안치민(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김현주, 박재연(2019).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업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119-130.

명소연, 조진욱(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정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 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매일경제(2020.10.27.). **“재워줄게” 가출청소년 유인 성매매 ‘헬퍼’**는데...쉼터

- 는 여전히 부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101716/>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박승곤, 김수정(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233-257.
- 박창남, 도종수(2003). 청소년 학업중퇴의도의 원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혜진, 김정남(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미인가 기숙형 대안학교 적응과정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3(1), 73-90.
- 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백혜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혜진, 김정남(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미인가 기숙형 대안학교 적응과정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3(1), 73-90.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송인덕, 조성겸(2013). 서베이모드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 응답 비교. **조사연구**, 14(2), 165-199.
- 신현숙, 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3), 121-145.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여성가족부(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2015.05.12.).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https://w>

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
&s=moe&m=020101&opType=N&boardSeq=59302에서 2020년 11월 9
일 인출.

여성가족부(2018.1.15.)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준비하세요.**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
mid=news405&bbtSn=70537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370)에서 2020년 12월 18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9.01.21). **여성가족부 2019, 달라지거나 강화되는 청소년 정책**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47525663>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09.26). **지자체와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청소년
안전망팀’설치 본격 추진.**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659
804749](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659804749)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12.17).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에서 미래를 설계하다.** [https://
blog.naver.com/mogefkorea/221740050180](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740050180)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2020.10.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http://www.mogef.go.
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205](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205)에서 2020년 1
1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2020.11.04). **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모집.**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
id=mda700&bbtSn=708865](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865)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업무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오희경, 홍은주(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공감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 5(1), 83-101.
- 유성경, 이소래(1998). **중도탈락학생 사회적응 상담개발 연구: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유진이(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6(11), 229-257.
- 윤철경, 김승경(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서울시-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동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 (pp. 1-5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임아랑,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조사결과 자료집**(연구보고 15-R7-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2018).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연구보고 15-R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번호 19-R34).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혜순(2019). 자발적 학교이탈 청소년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 학교이탈 이전, 과정, 이후 인식을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6(3), 21-45.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성진, 김경미(2020). 마술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남자 쉼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7(3), 117-134.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화명, 김영미(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562.
- 인천일보(2020.11.18.).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중)' 기본적 현황파악 어려움...기초적 교육혜택 떨어져.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08>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정경희, 최정호(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1), 245-271.
- 조규필, 김범구, 김기남, 김민찬, 이건(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 수준과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개발연구. 경기: 경기도청.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아미, 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 18-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혜영, 김영란(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최석현, 남승연(202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달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공공사회 연구**, 10(1), 67-104.

하형석(2020). ‘**학교 밖 청소년**’ 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2019).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9-R5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151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29717>에서 2020년 10월 10일 인출.

황선미, 신현숙(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경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황연경, 홍은영(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복감 관련 변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2), 57-64.

황정옥(2001). 고등학교 중퇴생의 MBTI 성격유형 연구: 대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8, 159-174.

Dupper, D. R.(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Guidelines for schoo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15(3), 141-149.

Franklin, C.(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3.

McNeal, R.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3), 206-22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검색일: 2020.11.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11.03.,

2020.12.15.)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 (검색일: 2020.10.21.)

미취학·학업중단 학습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ducerti.or.kr/main.do> (검색일: 2020.12.2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20.10.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검색일: 2020.10.21., 2020.11.16.)

Wee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wee.go.kr> (검색일: 2020.11.09.)

○ — 부 록

부록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1.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연령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현재 시설/기관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시설장(센터장) ②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 ③ 실무자

3. 귀하가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년 ____개월

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 _____ 시간

5. 기관 설립주체의 해당 칸에 ○표 해주시고 해당 기관/법인/단체명을 써주십시오.

공공기관			법인			기타 단체 등	
국립	시립	구립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법인외단체	기타

5-1. 지자체/기관/법인/단체 명 _____

6. 2019년 기준, 기관 운영 예산의 재원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국비 ② 지방비(시, 군), ③ 자치구비, 읍면 등 기초지자체 지원
 ④ 법인전입금 ⑤ 후원금(기부금) ⑥ 수익자 부담(수업료 등)
 ⑦ 기타 _____

7. 현 공간 현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고, 해당 칸에 기관명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현황	기관명
① 독립된 전용공간 사용	해당사항 없음
② 타 기관과 공간 공유(타 기관 내 전용공간 사용 포함)	타 기관명 _____

8. 귀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냉난방 및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4)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밖 지원센터 인근(도보로 약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② 청소년문화의집,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대안학교(배움터 포함) ⑤ 청소년작업장(일경험 장소) ⑥ 체육시설
 ⑦ 기타_____

10.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발굴 경로를 1~5순위 순서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구분	순위
1	학교·교육청을 통해(Wee클래스 등)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에서	
3	청소년 쉼터에서	
4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5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6	청소년시설(문화의집, 수련관 등)에서	
7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8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9	가족의 소개로	
10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11	기타()	

11. 아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의 5개 영역 중, 첫째로 귀 기관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원 영역의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고, 다음으로 세부 지원 항목별로 지원(타기관 연계 포함)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 [표시방법] ○: 직접지원, △: 연계지원, ×: 지원안함

영역	우선순위 (1~5순위)	항 목	제공여부 ○, △, × 중 표시
1. 학습 지원		1)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복교 지원	
		2) 검정고시 준비 지원	
		3) 대학 진학 지원(관련 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4) 수능준비 지원	
		5)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6)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7) 직업 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8)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9)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10)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3.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		11) 학력 취득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작업장 (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등)	
		12) 급식지원	
		13) 건강검진	
		14) 각종 질병 치료(치과, 예방접종, 정신과 상담 등)	
		15) 각종 고민 상담	
4. 경제적 지원		16)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17) 자산관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18) 기초생활비 지원	
		19) 용돈 지원	
		20) 검정고시 학원비	
5. 활동 지원		21) 취업준비 학원비	
		22) 주거 지원(주거비, 공유 주택 등)	
		23) 교통비 지원	
		24) 체육 활동 지원	
		25)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26) 모임, 휴식, 놀이 등을 위한 자유공간 제공	

11-1. 위의 항목에 × 표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번호	내용	이유

14-2.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은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의견: _____) ②의견 없음 ③ 잘 모르겠음

14-3. 시·도 단위 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의견: _____) ②의견 없음 ③ 잘 모르겠음

15. 시·도-시·군·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해당 센터의 수, 규모, 기능 등에 차이가 큼니다(예, 서울과 제주의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규모, 기능 등). 이를 고려한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의 재분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_____)

부록 2. 센터장 대상 FGI 조사지

〈기관 소개〉

1. 현재 근무하는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인원수)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대략적인 시설 및 종사자 인력 규모, 이용 청소년 규모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특성

〈현재 운영 현황〉

2. 현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현재 근무하는 센터나 인근의 센터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있다면 어떤 서비스/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현재 센터는 어떤 공간(시설)들이 있습니까?
 - 그 공간들은 전용공간, 공용공간, 빌려 쓰는 공간 중 어디에 속합니까? 공용이나 빌려 쓰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외에 더 필요한 공간(시설)이 있습니까?
4. 현재와 같은 센터 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사자 일인당 담당 사례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와 같이 센터에서 다양한 기능/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연계 가능한 시설이나 기관들과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운영에 있어서 관련기관(지자체, 학교, 교육청, CYS-net 등)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개선 방향〉

8. 현재와 같은 전국 시·군·구단위까지의 센터 배치와 가, 나, 다형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나다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꿈드림 위치나 개소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군·구 지역 내 학생 수 및 학업중단 청소년 수, 대안학교나 수련관 등 지역 내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지자체 지원 수준)
10. 시·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지역 커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관할지역을 묶어서 거점센터(가칭)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중점지원 센터(거점센터)를 지정하여 해당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특성화의 예:
- 기능별 특성화: 학업중심센터, 취업지원중심센터, 활동중심센터 등
 - 대상별 특성화: 가출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별 운영
11.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등 지역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리 지역별로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해 주십시오.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이민하·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접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영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터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집 필 진 ◆

김 범 구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소장)

유 성 렬 (백석대학교·교수)

◆ 자 문 진 ◆

김 애 영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과장)

박 수 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사무관)

방 은 령 (한서대학교·교수)

배 성 아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전 경 숙 (평택대학교·교수)

조 혜 영 (공주교육대학교·교수)

현 선 미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지원팀·팀장/꿈드림 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44)868-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